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4권



365열린도서관



B46456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 제4권 |

2009. 7. 1 ~ 2010. 6. 30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차 례

농업회관 현판식 .....	27
▶ 2009년 7월 3일	
남양주 택시체험 .....	31
▶ 2009년 7월 5일	
광암~마산 간 도로 기공식 .....	34
▶ 2009년 7월 6일	
경기도-인천, 인천도시축전 협약식 .....	36
▶ 2009년 7월 6일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	38
▶ 2009년 7월 8일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	41
▶ 2009년 7월 8일	
U-경기포럼 창립 기념식 .....	44
▶ 2009년 7월 9일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	47
▶ 2009년 7월 9일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	51
▶ 2009년 7월 10일	

우이령 생태탐방로개방 기념식 .....	53
▶ 2009년 7월 10일	
광역특별 사법경찰 발대식 .....	56
▶ 2009년 7월 13일	
경기도-한국외국어대학교 자원봉사 상호협약 .....	58
▶ 2009년 7월 14일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 .....	60
▶ 2009년 7월 14일	
의료기기 IICC 창립총회 .....	64
▶ 2009년 7월 14일	
여주 특1급 호텔 건립 MOU .....	67
▶ 2009년 7월 16일	
경기도 제약기업 상생협력 포럼 .....	69
▶ 2009년 7월 20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출범식 .....	74
▶ 2009년 7월 21일	
대심도 광역급행철도건설 정책토론회 .....	76
▶ 2009년 7월 22일	
기우회 .....	78
▶ 2009년 7월 24일	
삼천리자전거 공장기공식 .....	84
▶ 2009년 7월 24일	
북부기우회 8월중 월례회 .....	86
▶ 2009년 8월 6일	

한나라당 지역경제 살리기 .....	90
▶ 2009년 8월 6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합동영결식 .....	92
▶ 2009년 8월 7일	
경기도의료원 경영혁신 노사간담회 .....	94
▶ 2009년 8월 7일	
이화원 준공식 .....	99
▶ 2009년 8월 10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예절관 개관식 .....	102
▶ 2009년 8월 11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	104
▶ 2009년 8월 11일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협약식 .....	107
▶ 2009년 8월 13일	
안양시 재래시장 보증지원 협약식 .....	109
▶ 2009년 8월 14일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	111
▶ 2009년 8월 15일	
쌍용차 평가포럼 .....	117
▶ 2009년 8월 16일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착공식 .....	120
▶ 2009년 8월 17일	
을지연습 상황회의 .....	123
▶ 2009년 8월 18일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식 .....	125
▶ 2009년 8월 18일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조직위 출범식 .....	127
▶ 2009년 8월 25일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	128
▶ 2009년 8월 26일	
철도관광활성화 MOU .....	130
▶ 2009년 8월 26일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십함양 연찬교육 .....	134
▶ 2009년 8월 26일	
로봇산업육성포럼 .....	137
▶ 2009년 8월 27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	139
▶ 2009년 8월 28일	
한나라당 쌍용차 방문 .....	143
▶ 2009년 8월 28일	
고지도 국제학술대회 .....	145
▶ 2009년 8월 31일	
저소득층 아동 소액보험 지원사업 협약식 .....	147
▶ 2009년 8월 31일	
꿈나무 축구대회 선수단 해단식 격려사 .....	148
▶ 2009년 8월 31일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	150
▶ 2009년 8월 31일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	152
▶ 2009년 9월 4일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 .....	155
▶ 2009년 9월 4일	
2009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	157
▶ 2009년 9월 12일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식 .....	159
▶ 2009년 9월 14일	
사기막골도자기시장-단국대 자매결연 .....	162
▶ 2009년 9월 14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	165
▶ 2009년 9월 18일	
가톨릭대 인터내셔널허브 개관식 .....	168
▶ 2009년 9월 18일	
수원천복원사업 기공식 .....	170
▶ 2009년 9월 21일	
제1회 광고테크노벨리 열린마당 .....	172
▶ 2009년 9월 22일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	174
▶ 2009년 9월 23일	
경기뉴타운 업그레이드 전략발표 세미나 .....	176
▶ 2009년 9월 23일	
LG 파주 첨단소재단지 기공식 .....	178
▶ 2009년 9월 23일	

한국만화영상원 개원식 .....	179
▶ 2009년 9월 23일	
기우회 .....	181
▶ 2009년 9월 25일	
2009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개막식 .....	186
▶ 2009년 9월 25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	188
▶ 2009년 9월 25일	
양평시장-협성대학 자매결연협약식 .....	191
▶ 2009년 9월 28일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	193
▶ 2009년 9월 29일	
녹색성장 펀드 협약식 .....	194
▶ 2009년 9월 30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195
▶ 2009년 10월 5일	
제1회 DMZ 다큐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	197
▶ 2009년 10월 5일	
박지성 축구센터 기공식 .....	199
▶ 2009년 10월 6일	
기능경기대회 경기도선수단 해단식 .....	201
▶ 2009년 10월 6일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 경기노인큰잔치 .....	203
▶ 2009년 10월 7일	

한·중 해저터널 국제세미나 .....	206
▶ 2009년 10월 8일	
북부기우회 .....	209
▶ 2009년 10월 9일	
경기도 쌍용차도우미 발대식 .....	215
▶ 2009년 10월 12일	
2009 화랑훈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	218
▶ 2009년 10월 13일	
한국전자산업대전 .....	222
▶ 2009년 10월 13일	
경기뉴타운 기공식 .....	224
▶ 2009년 10월 14일	
기능성게임 G러닝 시범학교 참관 .....	228
▶ 2009년 10월 16일	
2009 DMZ DOCS 평화장정 발대식 .....	230
▶ 2009년 10월 19일	
20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	232
▶ 2009년 10월 19일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개소식 .....	235
▶ 2009년 10월 26일	
전국체전 8연패 환영식 .....	237
▶ 2009년 10월 27일	
경기도 수출농업 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	239
▶ 2009년 10월 28일	

2009 경기도 품질경영 추진성과 발표회 .....	241
▶ 2009년 10월 29일	
경기창작센터 개관식 .....	244
▶ 2009년 10월 29일	
한국HRD 연합학술대회 .....	246
▶ 2009년 10월 30일	
경기도 자활공동체 경영자대회 축사 .....	248
▶ 2009년 10월 30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251
▶ 2009년 11월 2일	
무한돌봄 민간참여 협약식 .....	253
▶ 2009년 11월 3일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	256
▶ 2009년 11월 3일	
경기농협 원로칭년회 게이트볼 대회 .....	259
▶ 2009년 11월 4일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식 .....	261
▶ 2009년 11월 4일	
건국대 유치 협약식 .....	264
▶ 2009년 11월 5일	
G-창업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회 .....	266
▶ 2009년 11월 6일	
친환경주택 그린투모로우 개관식 .....	268
▶ 2009년 11월 9일	

소상공인 창업세미나 .....	270
▶ 2009년 11월 9일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	273
▶ 2009년 11월 10일	
道-도의회 정책협의회 .....	276
▶ 2009년 1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4주년 기념 연차대회 .....	279
▶ 2009년 1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 개소식 .....	281
▶ 2009년 11월 12일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 .....	283
▶ 2009년 11월 17일	
만안뉴타운 토지구상 국제포럼 .....	286
▶ 2009년 11월 18일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	288
▶ 2009년 11월 19일	
G푸드쇼 2009 개막식 .....	292
▶ 2009년 11월 19일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	284
▶ 2009년 11월 20일	
강석희 美 어바인 시장 명예 경기도민 수여식 .....	301
▶ 2009년 11월 20일	
웅진어린이마을 착공식 .....	303
▶ 2009년 11월 21일	

경기고려인삼 공동브랜드 선포식 .....	306
▶ 2009년 11월 21일	
G코리아 대회 .....	308
▶ 2009년 11월 23일	
DMZ미래연합 창립총회 .....	311
▶ 2009년 11월 24일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	315
▶ 2009년 11월 24일	
경기도-가톨릭대 GRRC 생체의약선도분자연구센터 개소식 .....	318
▶ 2009년 11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회 .....	320
▶ 2009년 11월 26일	
기우회 .....	323
▶ 2009년 11월 27일	
한강살리기 희망선포식 .....	327
▶ 2009년 11월 27일	
노인자살예방 ‘경기도-시민단체 협약식’ .....	329
▶ 2009년 12월 1일	
국내 주요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 .....	332
▶ 2009년 12월 3일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 국가경쟁력’ 세미나 .....	336
▶ 2009년 12월 7일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경기도 투자설명회 .....	339
▶ 2009년 12월 10일	

전통시장 상품권통합업무 협약식 .....	341
▶ 2009년 12월 10일	
경기도-산동성 자매결연 체결식 .....	343
▶ 2009년 12월 11일	
북부기우회 .....	345
▶ 2009년 12월 11일	
에버랜드 관광단지조성 협약식 .....	350
▶ 2009년 12월 11일	
경기도미술관 어린이벽화 1주년 기념 리뉴얼 개막식 .....	351
▶ 2009년 12월 12일	
양주-동두천 환경개선 협약식 .....	353
▶ 2009년 12월 15일	
삼성 미소금융 1호식 개점식 .....	356
▶ 2009년 12월 15일	
축산물 안전성 향상 국제심포지엄 .....	359
▶ 2009년 12월 16일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확장 개소식 .....	362
▶ 2009년 12월 16일	
이민정책연구원 개원식 .....	364
▶ 2009년 12월 17일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 협약식 .....	366
▶ 2009년 12월 21일	
무한돌봄경기 우리도 함께 .....	369
▶ 2009년 12월 21일	

청소년 대토론회 .....	372
▶ 2009년 12월 22일	
소수력개발 업무제약 협약식 .....	374
▶ 2009년 12월 22일	
도자테마파크 ‘세라믹유토피아’ 출범식 .....	377
▶ 2009년 12월 23일	
경기도 체육상 .....	379
▶ 2009년 12월 23일	
기우회 .....	381
▶ 2009년 12월 24일	
경기농업 CEO 전진대회 .....	384
▶ 2009년 12월 29일	
누에섬 풍력발전소 개소식 .....	388
▶ 2009년 12월 30일	
시장 군수 정책회의 .....	390
▶ 2009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와 행정인턴 간담회 .....	393
▶ 2009년 12월 31일	
2009년 송년사 .....	395
▶ 2009년 12월 31일	
2010년 신년사 .....	399
▶ 2010년 1월 1일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05
▶ 2010년 1월 4일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10
▶ 2010년 1월 5일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	413
▶ 2010년 1월 7일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17
▶ 2010년 1월 8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20
▶ 2010년 1월 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23
▶ 2010년 1월 8일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428
▶ 2010년 1월 11일	
남양주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 개소식 .....	432
▶ 2010년 1월 13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G-20 성공개최 다짐대회 .....	435
▶ 2010년 1월 13일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준공식 .....	437
▶ 2010년 1월 14일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	440
▶ 2010년 1월 18일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협약선포식 .....	442
▶ 2010년 1월 19일	
경인일자리센터 간담회 .....	445
▶ 2010년 1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신년인사회 .....	447
▶ 2010년 1월 20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	449
▶ 2010년 1월 20일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	452
▶ 2010년 1월 21일	
경기도 행복키움통장 공동지원협약 .....	455
▶ 2010년 1월 25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식' .....	458
▶ 2010년 1월 26일	
'IT 희망나눔 PC돌봄이 사업' 추진 협약 체결 .....	460
▶ 2010년 1월 2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	462
▶ 2010년 1월 27일	
법률서비스 MOU 체결식 .....	465
▶ 2010년 1월 28일	
경기일자리센터 개소식 .....	466
▶ 2010년 2월 1일	
고양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468
▶ 2010년 2월 3일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연찬회 .....	472
▶ 2010년 2월 4일	

1시장-1대학 ‘민들레 쉽터’ 창업개소식 .....	475
▶ 2010년 2월 4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	477
▶ 2010년 2월 4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480
▶ 2010년 2월 5일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	482
▶ 2010년 2월 11일	
경기 도성문화 재발견과 산업화 토론회 .....	485
▶ 2010년 2월 16일	
경기도-서강대 GERB 캠퍼스 양해각서 체결식 .....	487
▶ 2010년 2월 17일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	490
▶ 2010년 2월 19일	
찾아가는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개강 .....	492
▶ 2010년 2월 19일	
용인일자리센터 개소식 .....	494
▶ 2010년 2월 22일	
경기도-삼성전자 제3연구소건립 양해각서 .....	497
▶ 2010년 2월 22일	
경기도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	499
▶ 2010년 2월 23일	
드라마 ‘로드넘버원’ 제작지원 MOU .....	501
▶ 2010년 2월 24일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	502
▶ 2010년 2월 24일	
희망리본 프로젝트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대회’ .....	505
▶ 2010년 2월 25일	
북부기우회 .....	508
▶ 2010년 2월 25일	
기우회 .....	512
▶ 2010년 2월 26일	
제2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	518
▶ 2010년 2월 26일	
서동탄역 개통식 .....	521
▶ 2010년 2월 27일	
제91주년 3·1절 기념식 .....	523
▶ 2010년 3월 1일	
안성 3·1절 기념식 .....	529
▶ 2010년 3월 1일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	532
▶ 2010년 3월 2일	
디지털케이블쇼 및 시네폴리스 입주협약식 .....	534
▶ 2010년 3월 3일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	536
▶ 2010년 3월 4일	
경기도-독일 예넵틱사 투자협약 체결식 .....	539
▶ 2010년 3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	541
▶ 2010년 3월 5일	
성남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545
▶ 2010년 3월 8일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협약식 .....	548
▶ 2010년 3월 9일	
전국창업경진대회 .....	550
▶ 2010년 3월 10일	
오산천 수질개선대책 협약식 .....	553
▶ 2010년 3월 12일	
꿈나무 안심학교 입학식 .....	558
▶ 2010년 3월 12일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560
▶ 2010년 3월 15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	564
▶ 2010년 3월 17일	
경기도 민원모니터 위촉 및 교육 .....	567
▶ 2010년 3월 17일	
항공우주산업 발전 MOU .....	573
▶ 2010년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협약선포식 .....	575
▶ 2010년 3월 18일	
노작 홍사용 문학관 개관식 .....	579
▶ 2010년 3월 18일	

서울우유 종합유가공공장 증설 MOU .....	581
▶ 2010년 3월 19일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584
▶ 2010년 3월 22일	
365·24 언제나민원실 개소식 .....	587
▶ 2010년 3월 23일	
봉녕사 시민문화공원 조성협력 MOU .....	588
▶ 2010년 3월 23일	
무한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협약식 .....	590
▶ 2010년 3월 24일	
고양국제고등학교 기공식 .....	592
▶ 2010년 3월 24일	
양주 홍죽 산업단지 기공식 .....	595
▶ 2010년 3월 24일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	597
▶ 2010년 3월 24일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600
▶ 2010년 3월 25일	
광명시 무한돌봄 해피센터 개소식 .....	602
▶ 2010년 3월 26일	
자녀 안심귀가서비스 협약식 .....	606
▶ 2010년 3월 30일	
독일 린데사 MOU .....	607
▶ 2010년 3월 30일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	608
▶ 2010년 3월 31일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	611
▶ 2010년 4월 1일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614
▶ 2010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의 날 .....	618
▶ 2010년 4월 2일	
식목 행사 .....	621
▶ 2010년 4월 6일	
동두천 일자리센터 확장이전 개소식 .....	624
▶ 2010년 4월 8일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	627
▶ 2010년 4월 9일	
NH팜랜드 조성공사 기공식 .....	631
▶ 2010년 4월 9일	
중환자용 구급차 발대식 및 시연회 .....	634
▶ 2010년 4월 12일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산업 특별금융협약 .....	637
▶ 2010년 4월 12일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서 체결식 .....	639
▶ 2010년 4월 12일	
경기도-세마텍 MOU .....	641
▶ 2010년 4월 14일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식 .....	642
▶ 2010년 4월 16일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	645
▶ 2010년 4월 21일	
중견기업 지원 협약식 .....	646
▶ 2010년 4월 22일	
독일 통일 20주년 특별전 공동개최 MOU .....	647
▶ 2010년 4월 22일	
경기모바일 앱센터 MOU .....	649
▶ 2010년 4월 22일	
55·63 새출발 프로젝트 MOU .....	651
▶ 2010년 4월 23일	
여주도자축제 .....	653
▶ 2010년 4월 24일	
이천도자축제 .....	654
▶ 2010년 4월 24일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발대식 .....	655
▶ 2010년 4월 26일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	656
▶ 2010년 4월 27일	
화성 기아차 공장 방문 .....	658
▶ 2010년 4월 28일	
경기도의료원 건강증진병원 선포식 .....	659
▶ 2010년 4월 29일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막식 .....	661
▶ 2010년 4월 30일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식 .....	663
▶ 2010년 5월 2일	
농생명기업 발전 업무협약식 .....	667
▶ 2010년 5월 3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 .....	672
▶ 2010년 5월 6일	
경기도-독일 싸토리우스 스테덤 바이오텍 MOU .....	675
▶ 2010년 5월 6일	
2010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막식 .....	677
▶ 2010년 6월 9일	
찾아보기 .....	680

여 백

## 농업회관 현판식

일시 2009년 7월 3일

농업회관 리모델링이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새로 부지를 사서 짓는 것도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농업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책임질 농군을 길러내느냐입니다.

문제는 이 바로 옆에 있는 농촌진흥청 10만 평을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대학 4만5천 평,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총 123만 평을 전부 지방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다 지방으로 가 버리면 땅과 건물이 남아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건물은 1906년부터 있었던 농촌진흥청으로 남북한 중심, 토양 지리적 중심으로 무려 103년간 데이터와 시험원 등 시설이 연구를 해왔던 곳입니다. 세계적인 유전자원센터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아직도 안 가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안 가 보셨으면 꼭 들어가 보세요. 대단한 곳입니다.

정부는 진흥청, 대학, 과학원 등 다 옮기고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농민 단체에서 성명 발표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방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단순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조 때까지 합치면 200년간 국가 농업 진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수원시와 경기도는 아파트 지으면 세금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과연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103년간 농업을 시험하고 기록하고 연구해 왔던 곳을 한순간에 지방으로 가져가는 걸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농업단체들도 한번 여기 들러보세요. 대한민국 103년의 농업 중심지이고 역사와 자존심과 근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 농업회관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다 지방으로 옮긴다면 농업단체와 농민들이 나서서 농업과 생명연구 외에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농업의 역사를 외면하고 집장사, 땅장사를 하겠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합니다.

또 다른 입장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농대를 서울 가져 올라가니까 농대 커트라인이 확 올라간다는 입장으로 서울 가려 하고, 한쪽에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다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꺾데기만 남는 건가요.

이 땅을 경매 붙이면 결국 아파트 업자들이 매입해 갈 것이 뻔하지

않나요? 고생하고 연구하는 기술자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해 줘야지요. 정부는 농업 정책에 대해 자신 없으면 경기도에 모두 넘기라는 겁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진정 노력하고, 농업 연구 기관이 더 필요하다면 지방에 더 만들자는 것이면 몰라도 농업 100년 역사를 싹 지방에 가져가서 과연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돌아옵니다. 경춘고속도로 뚫리는 것 아세요? 서울-춘천 40분 만에 도착합니다. 경춘철도도 뚫리고, 경의선도 그제 탔었는데 매우 편리하고, 현인릉에서 판교·분당·광교로 25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 농촌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바로 관광, 농업, 저녁 먹고 바람 쐬러 나올 수 있는 지역이며, 과학 농업, 그리고 판매 시장의 중심인 판매 농업, 또한 수출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세계의 누가 와도 올 테면 와 봐라,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켜야 합니다. 핸드폰도 세계 일등, 자동차도 세계 일등인데 우리의 전통 산업인 농업이 왜 일등 못하겠습니까.

한국인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고, 가장 적응이 빠르고, 가장 잘생기고, 건강합니다. 또한 기후, 토지도 좋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농업도 수출 일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인장, 장미도 일등에 올랐습니다. 2011년 유기농대회도 경기도가 여는데 모두가 협력해 가장 좋은 농축수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인 회관은 이런 꿈을 함께 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머리띠 매고 시위하는 중심이 아니라 정부는 농업 정책을 이렇게 바

꾸고, 도지사 끌고 와서 세계적인 농업 기술을 위해 지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농업을 이끌고 세계 일등을 향한 농업단체로 성장한다는 농업인의 꿈이 이뤄지는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 회관이 단순한 회관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 강의 듣고, 새로운 기술자를 모셔서 배우고, 축분 냄새가 나면 세계 어디서든 기술자를 데려와 발전시키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을 주도하고 세계 최고의 유기농대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뭔지, 대한민국이 뭘 보여 주려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 남양주 택시체험

일시 2009년 7월 5일

제가 택시 체험을 수원, 의정부,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안양에 이어 남양주에서 해 봤습니다. 계속 해 볼 생각인데, 지금까지 사납금 입금하고 제일 많이 남았던 게 3만원입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손님이 많다는 술집 일대에도 가 보고, 콜 받는 부분도 노력했는데, 정말 이래서 먹고 살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 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부분은 이렇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생각하면 마음은 많이 올리고 싶은데 서울, 인천보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잘 타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납금 때문에 너무 난폭 운전 하지 않으실 만큼, 그리고 손님이 이용하시면서 푸근하게 생각할 정도로 요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과 편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도에서 평가해 잘하는 운수회사에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도민들이 불만을 느끼시는 부분의) 50~60%가 교통입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교육입니다. 교통 부분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은 9호선까지 뻗뻗한데 경기도는 너무 없어 문제입니다.

택시운전 하면서 '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는 바쁘게 일해야 할 당신이 택시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시간 중엔 단 한 시간도 택시를 몬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휴일에 골프 칠 때 저는 대신 택시를 몰면서 해당 지역 민심을 깊게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택시 몰고 돈 벌어 내가 사납금 넣겠다는데,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의 장점을 말해 보면, 우선은 도시계획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도지사 취임 후 수원에서 3년을 살았는데 택시 하루 몬 것보다 못합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12시간 정도는 몰아 봐야 어느도로 교통정체가 문제이고, 어디 신호등이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지난주엔 어떤 여성 손님을 새벽 6시에 모셨는데 신경질 부리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편잔을 엄청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은 정말 기사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어찌 이리 다를 수 있을까. 사람의 다양함에 대해서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 택시 모시는 분들의 의견 역시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올리고 사납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하시고, 그냥 두라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십니다. 계속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모범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자격을 주는 제도도 좋지만 그보다 주택 분양권을 우선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지 고민 중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에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 역시, 힘든 공장에서 뜨겁고 먼지 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3D 업종 장기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상상 외로 힘든 곳에서 모두 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공장에 5년 이상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지만, 택시는 그런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공장은 그 작업 공간과 해당 기술과 정보만 알게 되는데, 택시는 움직이는 민원 창구이자 움직이는 방송국, 움직이는 여론조사 기관, 움직이는 도시설계사무소, 움직이는 도로설계사무소라 느낍니다.

## 광암~마산 간 도로 기공식

일시 2009년 7월 6일

여러분 모두들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산도 좋고 경치가 매우 좋은 곳에 좋은 도로까지 뚫리게 되면 더욱 생활이 편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하신 헌신을 생각한다면 오늘 기공식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려 노력하겠습니다.

동두천과 포천이 멀지 않은데도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암터널 등 2.7km 이상을 뚫어 40분 걸리던 거리를 10분 만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시를 원활히 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건설은 순수하게 경기도의 예산 2,249억 원으로 시

작하는 최근 보기 드문 대형공사입니다.

국비나 민간비용도 없이 순수 100% 도비로 공사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나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도비로 건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성수, 김영우 국회의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국회를 시원하게 뚫어 주시라고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여러 현장을 몸소 방문해 가면서 북부의 낙후 사정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위해 국론을 통일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경기도에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천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경기도-인천, 인천도시축전 협약식

일시 2009년 7월 6일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진대제 조직위원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천 도시세계축전은 이미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인천의 도시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적 발전 도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첨단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인천의 발전은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과거 경기도였기도 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축

전이 인천에서 개최되지만 경기도에서 개최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진대제 조직위원장님께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시민·언론이 모두 힘을 합쳐, 인천 세계도시축전 성공이 바로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전폭적 협력과 공동의 보조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인천의 이름으로 좋은 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

##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

일시 2009년 7월 8일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인택 장관님, 윤미량 원장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는 분단도입니다. 개성이 경기도입니다. 늘 DMZ를 사이에 두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옵니다. 박진 외교통일위원장이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 위원장님 부모님처럼 실향민들이 북쪽을 보고 우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눈물이 많은 곳이고 분단의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4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더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면 골목골목을 다 압니다. 이분들이 바로 북한 선생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독재라고 하면 이분들이 웃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으면 무엇이 민주주의고, 독재인지다 압니다.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나요? 저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국경, 사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이 경기도 3,500여 명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이분들을 채용해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귀신같이 알고 전국에서 상담하러 오고, 자기들끼리 잘 통합니다. 정말 잘 채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께도 채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올해 중으로 4명을 더 채용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통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님께 공무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너무 잘해서 늘 칭찬합니다.

오늘 박진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많이 오셨는데, 통일부를 축소하지 말고 확대해야 합니다. 통일부를 줄여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원 분원을 수정법 때문에 못 짓습니다. 하나원이 연수시설에 해당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이 넘으면 법으로 못 짓게 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려도 못 고칩니다. 이것 풀면 다른 연수시설 늘어난다고 못 풀어 줍니다.

아까 박진 위원장님 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 있으시죠? 북한이

탈주민들의 가슴을 풀어 주는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여야 간 힘을 합쳐서 법을 고치도록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제가 하나원에 여러 번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병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파견했습니다. 안성에는 종합병원이 도립병원 한 곳뿐입니다. 북한이 탈주민들은 탈출 과정에서 정신과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시다.

또 이분들은 고독합니다. 고향에 가족들이 다 남아 있어서 늘 우십니다. 친구 이야기 들으며 울고, 자기 이야기를 하며 읊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개원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뿐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대한민국을 여야 간에 손을 잡고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일시 2009년 7월 8일

오늘 기분 좋으세요?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혜정 원장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경희대학교 박물관 관장이십니다. 다른 상 받으신 분들도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오늘 상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피겨 불모지에서 피겨 여왕을 키우셨습니다. 오늘은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미남이십니다. 연아가 아버지, 어머니 미모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만나보면 늘 생각되는 것이, 군포에 사실 빙상경기장이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도 어머니가 애를 쓰셔서 오늘날 김연아가 있게 됐습니다. 박수 크게 한 번 보내 드립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 인순이 씨도 나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여성들은 정말 꿈이 있을 때 여신이

됩니다. 꿈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늘 꿈을 꾸며 그 꿈이 매우 아름답고 소박하고 매우 착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성 때문에 보육 문제 등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여신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계셔도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모정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너무 다정다감하신 여성 여러분, 감성 때문에 늘 평생을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피땀 흘리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학교에 아이를 보내 왔는데 과외수업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하시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꿈나무 안심학교도 합니다. 보육, 교육 이 두 가지가 우리 어머니들의 골레이고, 시원하게 해결 못해 드려 늘 가슴에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이 기르기, 공부 가르치기 등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맹자의 어머니를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여성 여러분의 교육열이 맹자의 어머니보다 위대해 대한민국 오늘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 문제도 큼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의 집은 여성들의 편리함, 여성들의 주방 등 구조 자체가 여성을 위한 집입니다. 덕택에 남자들도 덕을 봅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주택 설계, 택지 입지, 관공서의 서비스 등 모든 부분을 여성 여러분을 위한, 보다 여성 친화적

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시부모 모시느라 힘드시죠. 경기도는 노인요양 등 부분에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 걸리신 시부모, 친부모 계신 경우 너무 힘드셨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는 부분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다 일하고 싶고, 일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사회적 일을 통해서 전공을 살리고 꿈을 실현하는 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여성들이 먼저 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 기르고 나와서 경력이 단절돼 복귀가 안 되는 점 등 여러 악조건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U-경기포럼 창립 기념식

일시 2009년 7월 9일

서문호 총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u-경기포럼이 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포럼이 쑥쑥 자라라고 비도 옵니다.

최근 국경을 넘어선 해킹, IT 환경 전체를 교란시키는 문제 때문에 저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는 이때, u-경기포럼이 출범하게 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장경순 부의장님께서 지원하기 위해 의회를 대표해 오셨고, 원유철 의원께서 전 행정기관을 대표해 지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김성태 원장님이 기초연설을 위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제 발표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비쿼터스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뿐이 아니라 국

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하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럼을 통해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의 이 부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u-경기포럼에서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행정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늦은 점이 있습니다. 민간, 대학, 연구기관이 주도를 하고 도, 시군, 중앙정부가 신속히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결국 민간사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u-경기포럼의 여러 전문가들의 리더십에 최대한 뒷받침을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제가 다른 부분도 많이 보지만 제일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1년에 14조의 예산을 쓰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데 경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직은 특성상 앞선 시스템 구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자극을 주시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늦지 않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道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인적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비교해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취약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역시 경쟁에 노출될 때만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문호 총장님을 비롯한 일선 연구기관,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도·의회·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경제 위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창립하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일시 2009년 7월 9일

오늘 이렇게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기쁩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럽 대도시권, 일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비해 또 떨어져 15위가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국가가 최근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한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타 규제 정책 자체가 위를 꺾어서 아래를 받치려는 방식입니다.

유학생 숫자도 점점 늘어납니다. 자기 아이 공부시키는 것으로 고발당하고 불러 다닐 바엔, 차라리 외국 나가서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도의 적도 지방,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위생상 형편없는 곳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42명이 와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로 인도까지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도지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데 대해 우리 지식인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유, 자율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경기도 자매도시가 많습니다. 우호 협력 관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성장, 당서기를 만납니다.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획일화된 정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쌍용차에 왔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면서 저보고 한 소리가, 자기들이 문화대혁명 때 꿈꾸던 노동 해방의 사회가 쌍용자동차라면서 철수 발표를 하고 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문화대혁명 때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공산국가는 엘리트에 의한 국가가 중앙집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첫째입니다. 통제가 정당하고, 옳이고, 그 결과로 만인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균형을 추구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지나고 보면 합리성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평등을 안 합니다. 중점적 거점을 만듭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이징, 발해만, 산둥 등 거점을 만듭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거점을 흐트러뜨립니다. 이것이 국가 GDP의 지속적인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오천 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은 없는데 해외로 나가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자의 2%만 한국으로 왔습니다.

요즘 투자유치를 위해 나가보면 핵, 미사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시위 등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최대 투자기업이 3M입니다. 미네소타 본사에 가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최근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노조 전임자 5명을 달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중국·일본 공장을 한국으로 합치려고 하다가 분산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각으로 선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끼리 키 재기를 하면서,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GRDP가 8위를 하다 작년에 10위가 됐습니다. 집은 짓는데 공장, 컨벤션, 대학 등 직장을 안 해서 베드타운만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에 10위입니다. 과도한 규제에 의해 순위가 낮아집니다.

지방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분산 정책으로 활력을 잃습니다. 예로 경북의 경우, 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등 계속 분

산을 시켜서 지방의 거점도시도 거점 역할이 약해집니다. 쪼개서 나누면 선거 때 표는 많이 받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거점을 분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권화를 해야 합니다. 과외수업 단속 등은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소소한 정책은 지방분권을 해야 합니다. 중앙이 나서서 분산시키고 앞선 곳은 누르고 해서 국가가 되겠습니까.

하북성(허베이성 · 河北省)과 며칠 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땅이 남한 면적의 1.8배입니다. 중국의 한 성에 비해 우리가 작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큰 나라거나 지역이 아닌데, 너무 나뉘어서 동네마다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가지고는 국가의 핵심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으로 가치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일시 2009년 7월 10일

그동안 경기도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해 모든 도민들의 열망, 나아가 서울·인천까지 2,500만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GTX라는 획기적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민간 건설업체들이 모두 참여해 예산 75%를 부담해야 할 광역국고부담을 15%로 감소시킨 데 대해, 어떠한 정부 관계자들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물론 서울과 인천 어느 곳도 반대하는 분들 없으십니다.

GTX는 기술·경제적 효과를 가졌고,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돼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내 철도 건설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이자 녹색성장의 획기적 대안입니다. 도민들의 꿈과 여망을 실현해 줄 최첨단 친환경 사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동참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 또는 녹색 기여만이 아니라 건설 시작부터 상당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 주체로 이 사업을 힘 있게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이령 생태탐방로개방 기념식

일시 2009년 7월 10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공치사가 아니라, 제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을 6년 했고,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했고, 환경관리기사를 1977년에 땀습니다. 그것으로 월급을 타고 살았습니다.

제가 겪어 본 많은 장관님이 계시지만, 환경장관님은 환경만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모르시겠다고 해 오셨는데, 이만의 장관님은 녹색과 성장, 성장과 녹색, 환경과 경제와 인간 사이를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습니다. 복장부터 얼마나 멋집니까. 하는 모든 것이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도 합니다. 직원 여러분께 박수 한 번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내놔도 자랑스럽습니다.

양주시 출신의 김성수 국회의원님이 안 다니신 곳이 없습니다. 개통하도록 노력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은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좋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성수 의원께 박수 드립니다. 정양석 국회의원님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훌륭한 역할 더 해 주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양주시장님과 강북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 두 시와 구가 만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군인 여러분과 전투경찰 여러분께도 박수 드립니다.

김신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북한 공작원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 성락교회 삼봉예배당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입니다. 자유의 땅, 신앙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발전과 변화를 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오신 자체만으로도 어떤 간증보다 강력한 간증입니다.

국립공원이 세계에서 수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도 서울 안에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북한산 국립공원 하나입니다.

이곳에 터널을 뚫을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다녀 보니 터널 괜찮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돼서 터널이 개통되면 굉장한 훼손이 일어날 것으로 봤는데, 보통 길과 다르게 아름다운 길을 보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뒤에서 보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양주, 장흥에서 보는 아름다움을 탐방로를 통해 자주 보시고, 세

계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서울, 양주시, 경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세계 어느 곳을 다녀도, 웅장하면서 신비롭고 국립공원으로 참 좋은 휴식, 안식, 명상, 발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역사적이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잘 제시해 주는 좋은 탐방로 개통을 해 주신 이만의 장관님과 환경부 관계자 여러분, 국립공원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 광역특별 사법경찰 발대식

일시 2009년 7월 13일

오늘 사법경찰 발대식 개최가 살기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득신 부장님께서 지난 4월부터 이미 와 계셨는데, 실제 공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겁내하기도 하고 저 또한 법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8,500여 道 공직자 등, 거대 조직이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4월 4일 화성에 경찰서 개청이 됐고, 4월 20일 동두천경찰서, 이어 의왕·하남경찰서가 개청했습니다. 화성, 동두천 모두 큰 살인사건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법치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 없는 곳곳에 만들어 주시고, 지방관서를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 사법의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관련 관서를 만들어 주고 필요 인

력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군수님들도 매우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道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소한 것은 시립경찰이 해 주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과 우리 도민들이 일체가 돼 나갈 때 안심할 수 있고, 한국에선 어떠한 먹을거리도 문제없고, 야간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주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한국외국어대학교 자원봉사 상호협약

일시 2009년 7월 14일

박철 외국어대 총장님, 통역 부문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어대가 용인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경기도가 도움을 청해도 학생들이 너무 유능해 바빠서 저희를 잘 도와주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외대 출신분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경기도 정도는 오시질 않으십니다. 이런 가운데 총장님 등 외대 주요 지도자들과 협약 체결로, 단순한 세계유기농대회뿐 아니라 경기도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경기도를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특별히 오신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앙드레 루이(Andre Leu) 부회장님께 경기도 명예도민증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많은 가운데 한 분 더 늘어난 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님도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조현선 유기농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공적인 유기농대회로 가기 위해 경기도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유기농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우려할 정도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유기농과 조화하면서 대회까지 순탄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 이후에도 대회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환경친화적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기농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경기도가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기농대회야말로 대한민국 농업을 위기로부터 구해 내고, 건강의 꿈을 실현해 주는 오가닉 라이프(organic life)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기농대회가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

일시 2009년 7월 14일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GTX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이 오십니다.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GTX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박창호 교수님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 교통을 위해 늘 많이 도와주십니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연해 철도대학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해보자고 하면 늘 반대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저희 집사람부터 반대하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GTX는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찬성합니다. 여야, 지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찬성하시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GTX 같은 것은 누가 봐도 효과적인데 하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하기엔 마땅치가 않고 대통령께서 강력히 밀고 나가셔야 한다고 했더니,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성질이 급합니다. 기왕 할 것이면 빨리,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TX를 왜 경기도지사 당신이 자꾸 하자고 하나, 이유가 뭐냐고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경기도 주민의 60%가 교통을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늘 교통 때문에 경기도에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막히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통 문제는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도로를 닦아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한준 사장님이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일 때부터 도와주셨는데 결론이 이것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시작했습니다. 교통학회, 터널학회, 철도학회에서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GTX는 획기적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대통령, 장관도 타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의아한 것이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조심하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녹색교통이라면 철도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철도 말하

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철도학장님만 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야말로 '철도전도사'이십니다. 저는 우리 국가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목을 별로 못 끄니다. 철도가 너무 찬밥 신세입니다.

철도야말로 그린(green) 교통수단의 핵심입니다. 저는 녹색교통의 핵심은 자전거가 아니고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레저, 근거리를 가는 수단이라면, 철도는 대륙 시대를 앞둔 한반도에서 통일, 대중국 교류, 한-EU FTA 등 여러 측면에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철도에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입니다. 철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녹색성장의 핵심적 교통수단입니다.

이한준 사장님이 메가시티(megacity)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이징, 도쿄와 겨루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 춘천, 아산, 당진까지 포괄하는 대수도(大首都)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겨루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합쳐도 북경보다 작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북경의 70%입니다. 우리는 공간 자체를 제대로 계획적,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GTX보다 획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북아의 중심을 말하면서 GTX를 말하지 않으면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민간 건설회사가 민자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145km를 하려고 하는데 160km를 하자고 하고, 3개 노선을 하려는데 4개 노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사업비 60%를 부담하면서, 국비는 15%밖에 안 받겠다고 하면서, 제시

한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설회사, 그것도 상위권의 10대 회사가 다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하겠다는데,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왜 빨리 안 찍어 주는지 답답합니다. 민간에서 하겠다고 할 때 얼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GTX가 완성되는 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쾌적하고, 첨단인 GTX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통 편리를 넘어서서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LCD, IT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 철도산업이 자리 잡지 않겠냐는 꿈을 꾸 봅니다.

GTX가 대한민국의 통일의 열망,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 대통령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그린크로스의 가장 주효한 부분으로 꿈을 이루고, 펼칠 수 있는 훌륭한 GTX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시고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GTX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의료기기 IICC 창립총회

---

일시 2009년 7월 14일

오늘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협의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금 의료기기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배병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빨리 잘 지원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기기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통해 심포지엄 내용을 봤습니다. 첨단 IT 융합기기, 홈 헬스케어, 국제세일즈 성공전략 등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처음 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좋은 발표였습니다.

경기도에 전국의 43%의 의료기기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고 노력을 했나. 경기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배우고, 이 자리에 오신 박순자 최고위원님, 박주원 안산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MOU를 체결하기로 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대기업 으론 처음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기대가 큽니다. 삼성이 하면 세계 제일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의료기기 산업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MOU를 9개 기관이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등 9개 기관이 함께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주대학교 박기연 원장님, 우리들병원 원장님,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산업들이 있지만 특히 의료기기 부분이 가장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적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고부가 가치고,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첨단복합의료단지에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는 단연코 경기도가 최적이라고 봅니다. 광교의료복합단지가 여러 측면에서 가장 좋고, 적은 투자로 빠른 시간 내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분산정책과 무관하게 경기도의 광교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제일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이 부분을 설정하고,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혁신클러스터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일본·러시아와 접경한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힘을 합치면 세계 일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되고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세계 제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기도에서 의료산업 부분이 이미 세계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주 특1급 호텔 건립 MOU

일시 2009년 7월 16일

경기도는 지금까지 특1급 5성 호텔이 없어 지나가는 관광지라 다름 없었습니다. 향후 지역 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기도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주군민이 힘을 모아 특1급 5성 호텔 유치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매년 2,000만 명의 내외국인이 경기도를 찾지만 이들이 묵을 수 있는 특1급 관광호텔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콘도나 러브호텔뿐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DMZ, 북한강·남한강 등 수려한 관광지가 있는데, 호텔이 없어 외국 손님들 모시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대체로 서울에서 주무시고 그저 경기도에선 볼 일만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道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깎아 드리자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시군에서도 재산세 50% 추가 감면, 수도 요금도 50% 깎아 드리려 물도 마음 놓고 쓰시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서는 특1급 호텔 유치를 경기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히 두바이에 가보면 우리 경기도보다 면적 3분의 1, 인구 6분의 1, 찜통 날씨에 별 볼 일 없는 곳에도 7성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인구, 땅, 관광지도 많은데 왜 안 되나 생각했습니다.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사장님께서 호텔 신축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경기도에 5성 호텔 10개 정도는 생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주호텔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큰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제약기업 상생협력 포럼

일시 2009년 7월 20일

공무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요녕성(랴오닝성·遼寧省) 대련시(다롄·大連)에 있는 STX, 우리나라 조선업체를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요녕성은 9.3%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3.1%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곳은 9.1% 성장을 했습니다. 가보면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STX만이 아니라 도심지부터 공항 옆, 항만, 빌딩, 그것도 부족해서 그곳에서 145km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고속도로, 철도공사 등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비상하는 것이 보입

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봐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부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못하게 하고 어디로 옮기라 합니다.

STX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30만 평의 자기 부지를 진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150만 평을 바로 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더라고요. 양식장 갯벌 해삼밭에 있는 매립지를 5개월 만에 매립했습니다. 당초 약속은 1년이었는데 5개월 만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 완료하자마자 바로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장준공허가, 생산허가가 나기 전에 가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아직 까지 주거허가가 안 났습니다. 매립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허가를 내줘서 9개월 만에 첫 배가 진수됐습니다. 전부 임시허가입니다. 생산을 위해 공산당과 정부에서 다 밀어줍니다.

또 대련시에 있는 은행을 다 모아서 6억 달러의 장기우대금리 용자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중 6억 달러를 장기저리용자로 해줬습니다. 바로 그 회사 옆에 50만 평의 주택지를 줘서 2만 8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 옆입니다. 통근 버스만 200대가 다 댑니다. 아무 기술도 없던 지역 주민들 1만 명 이상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좋은 기업이 좋은 돈을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대한민국에 했으면 어땠을까, 참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교육훈련을 월급 주면서 다 시켜 주고 아파트까지 값싸게 줍니다. 이런 기회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STX 회장이나 임원들 말처럼 제가 자꾸 그 질문을 하니, 와서 보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입이 딱 벌어져서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자기 조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가는 투자 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55억 달러 이상이 중국에 투자됐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40분의 1 정도가 왔습니다. 여러 시장 요인도 있지만 심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 부분도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소재하는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방에 가라고, 그것도 낙후된 지역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낙후도가 높을수록 가점을 더 주는 형식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당입니다. 균형발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공산당이, 어제도 제가 보니 대련은 5점 1선<sup>1)</sup> 정책을 합니다.

요녕성 자체가 한반도 남한보다 1.4배 넓습니다. 인구는 4천 3

1) 5點1線(5개의 도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뜻). 랴오둥 반도를 둘러싼 후루다오, 진저우, 잉커우, 다렌, 단둥 등 발해만 연안의 5대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공업지구 개발 프로젝트.

백만입니다. 1.4배 넓이인데 다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5점 1선. 5개의 지점을 정해 중점 개발하고 그 사이를 고속도로로 잇는 것입니다. 중점 우선 개발을 해서 그 영향을 내륙으로 파급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중점 발전을 시켜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파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보다 더한 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며, 특히 중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첨단복합단지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저보고 당신이 너무 수도권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측면이나,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전부 제 이야기가 맞고 한술 더 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유명 기업 인섬(INSERM)이 찾아와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어딜 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의료산업이라는 것은 사람, 사람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둘째, 대상자·환자·수요자가 어디에 많습니까? 모든 측면에서 봐도 그 사람들 이야기도 제 이야기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취급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제약 산업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기업 연구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道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밀어 드리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출범식

---

일시 2009년 7월 21일

오늘 전재희 장관님, 특별히 고향인 경기도에 오셔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아이낳기 간담회 등 노력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고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열쇠는 여성분들이 쥐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에게 우선 큰 박수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시면서 저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보다 실천, 하나라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이 필요하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육과 교육을 확실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택공급 규칙을 도지사에게 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이 많이 낳

는 순서대로 더 큰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육, 교육, 주택 정책, 그리고 공무원 채용과 직장에서의 채용에서도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저도 26년 전 아이를 낳았는데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 산아 제한이 출산 장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은 무엇이든 한다면 하는 무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와 경제에서도 세계 최고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동차·조선·핸드폰, 세계 일등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출신 김연아, 장미란, 박지성, 모두 일등입니다.

저출산 극복,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 대심도 광역급행철도건설 정책토론회

일시

2009년 7월 22일

장광근 의원의 힘을 여기 들어오는 순간 확 느꼈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10년 하면서 야당 사무부총장 된 것이 최고였는데, 여당의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실감했습니다. 박희태, 이상득 선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가 대심도 급행철도 한다고 3년을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실장님 한 번 만나 뵙지 못했는데, 장광근 총장님이 하신다니 최고의 인물들이 다 오셨습니다.

저도 과거 총각 때 청량리에서 3년여를 살았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역시 청량리가 경원·경춘·중앙선이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허브 지역입니다.

또한 이 대심도 철도는 지하 40m에 지하도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현재 구리·남양주는 지금 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양평·가평·춘천 등 모두 여기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도 결국 열차를 이용하면 청량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에 노력하시는 장 총장님께서 총장 현직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 갔더니 한번 건설하면 뭐든 놀랄 정도로 대규모 공사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자매도시 요녕성도 1/4분기 9.4%, 작년엔 13%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EU FTA를 해 주셨습니다. 20여 개국을 한 번에 모아 협상하는 것이 대단히 큰일입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열차 역시 대륙으로, 유럽으로 연결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녹색교통입니다. 자전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바로 녹색 철도입니다. 효율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론 일본, 중국과도 지하 터널로 철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는 세계 최고의 철도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철도기술국이 됩니다.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서울이 춘천·원주·천안·아산까지 합쳐져 35억 평에 이르는 거대한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등과 경쟁하는 거대하고 힘 있는 수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륙을 향한 꿈, 선진 강국을 향한 꿈을 장광근 총장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이룹시다.

## 기우회

일시 2009년 7월 24일

지난 일요일 중국 대런 STX에 다녀와서 매우 놀랐습니다. 기술과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앞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서면 순간 가장 훌륭하고 깨끗하고 크다는 걸 느낍니다. 주변 확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갯벌 일대도 공항의 수심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은 중국 13억, 일본 1억, 러시아 1.6억 이상이 있어도 모두 이용 가능한,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공항입니다.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넣어주시는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님이 좋은 말씀 하시러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이 웅비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이 웅비하는 공항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기가 질렸습니다. STX가 153만 평 조선소를 만드는데, STX는 원래 진해에 3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진해 공장을 5천 평 늘리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린벨트 푸는 데 6년, 지역민과 협상하는 데 2년, 건설에 2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기자재 부품 공장을 짓기 위해, 바로 옆에 마산 수정만에 매립을 하기 위해 마산시장과 2005년 MOU를 맺고, 이후 4년 뒤인 지금 80% 매립을 하다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때문에 올스톱 중입니다.

중국 대련시장과의 MOU는 마산시장과 MOU 한 지 2년 뒤였는데, 벌써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진수식도 가졌습니다. 투자금 340억은 매립하고 공장 착공하자마자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요녕성장과 대련시장이 지역과 협조 용자해서 장기 저리로 6억 달러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 일부는 아직 매립허가가 덜 된 곳도 있습니다. 사업 착수 후 9개월 만에 첫 배를 진수시켰습니다. 아직 공장 건축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준공허가 안 나고 배 나갔다가는 큰일 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련 공항에서 STX로 가는 고속도로가 145km 거리로 도로가 약간 꺾여 있는데,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 직통하는 새 도로를 올 연말 완공합니다. 45km 거리가 단축돼 30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련 STX는 지금 1만 2,000명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3만 명으로 늘릴 것이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50만 평 부지를 추가로 썼고, 부품협력 단지 부지 50만 평까지 썼습니다.

대런 공항에서 STX가 있는 장흥도까지 가다 보면 고속도로 고가 다리 하나가 무려 10km 길입니다. 끊어진 것도 아니고 단 한 개짜리 고가도로가 그런 규모 길입니다. 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중국에 진출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이미 중국은 토목 분야에서 우리를 능가했고 우리가 들어갈 시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장광근 의원 주최 세미나를 했습니다. GTX는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 최고 기술력의 고속철도가 됩니다. 경기도가 3년 동안 철도·도로·터널 학회와 함께 연구해 제안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해 민자 60% 투자, 국비 15%로 추진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요청하라고 하는데 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민간이 다 책임지고 국가 예산은 나중에 착공할 때쯤 좀 주면 됩니다. 민간이 다 합니다. 전부 수익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게 민간의 예상입니다.

또한 GTX는 우리가 145km 구간, 민간이 오히려 160km 구간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3개 노선을 생각했는데 민간이 4개 노선을 하자고 합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X가 또한 지금 계획된 종점에서 끝난다는 우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구리, 남양주까지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양주 일대 캠프 케이시(Camp Casey)까지, 파주까지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거 인천공항 건설 때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경부도로 등 반대했고, 이에 저는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때 반대했던 분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포

항제철, 자동차 창원공단, 저 역시 다 반대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인천 공항 와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지금 운하 등 족족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KTX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도롱뇽 죽는다고, 아직도 개발 못한 구간 있는데 사람이 중요하냐 도롱뇽이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됩니다. 한미 FTA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를 이제 소속 정당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EU FTA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국가 간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27개 나라와 조율해 퍼즐 맞추듯 이끌어 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명박 대통령께 박수 한 번 보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4년 중임제 하자는데 이걸 가능성이 낮습니다. 5년 단임제에서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도 취임 한 달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00일 동안 물러가라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국 쇠고기 먹고 배탈이라도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미디어법 갖고 난리인데 잘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신문은 30가지 이상 얼마든지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싫으면 한겨레 보고, 한겨레 싫으면 조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방송은 KBS, MBC, SBS 세 개 밖에 없는 실정이고 솔직히 내용상에서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송을 허용하고 IPTV 등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법 통과로 방송과 IPTV에서 IT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한국이 방송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한류가 확산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게 미디어법 아닌가 합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의 민주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금 공중파들은 솔직히 천편일률적으로 매일 똑같은 방송입니다. 채널 돌리려 해도 돌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3사 독과점이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각 분야가 치열한 경쟁 속에 발전하고 있는데, 방송만 독과점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요.

이와 함께 경의선 타고 베이징·몽골·유럽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책으로 가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신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북에 끌려 다니고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는 남남 갈등이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독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나쁘다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나쁘다고 한마디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기회만 되면 정부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세력이 문제입니다.

인천공항은 과거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력의 하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일본·중국·러시아 강국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반쪽 형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희망을 볼 것인가, 그중 하나가 바로 인천공항 아닌가 합니다.

저도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공항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반대를 해서 판단이 힘들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 가운데 상당수 있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대련에 세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에 우뚝 서는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읍시다.

## 삼천리자전거 공장기공식

일시 2009년 7월 24일

김석환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의왕은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의 9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녹색이 많은 도시입니다. 의왕은 또한 오늘의 자전거 공장만이 아니라, 세계 5위 기술력을 가진 철도기술연구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특구를 만들어 철도대학 등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통일이 되면 이곳의 철도 기술로 대륙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반도 국가에서 미래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EU FTA 체결이라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유럽 27개국을 상대로 퍼즐 맞추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유럽으로 가는 철도와 자전거, 그리고 선박·항공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의왕시는 삼천리자전거에 매우 빠른 행정으로 공장신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삼천리는 중국에서 되돌아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녹색성장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북부기우회 8월중 일례회

일시 2009년 8월 6일

오늘 아침 언론을 보셨겠지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억류된 두 여기자를 데리고 미국에 도착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자유롭게 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남북 유소년 축구를 위해 직접 북한에 가진 않았지만 중국 곤명에서 친선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북한 아이들 44명과 임원 5명 등 49명과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버짐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와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팀과 붙었는데 2: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체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팀은 당일 2시에 도착해서 바로 경기를 하고 그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와서 전지훈련을 했는데도 2:0으로 이겼

습니다. 후반전으로 가면 북쪽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점점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클린턴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노련합니다. 국무장관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불러다가 둘을 풀어주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며 벼랑 끝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남북 간에 변화가 시대적 추세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북측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쪽이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잘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이 없어 보입니다.

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 북부입니다. 강원도가 아닙니다. 정말 남북관계가 열릴 때는 경기 북부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파주, 고양 쪽이 물론 교류의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원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한승수 총리께서 북부 지역에 오셨고, 오늘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오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경기 북부는 확실히 밀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와 보시라, 다른 것 필요 없고 철도·도로라도 해 주십시오. 경기 북부 도로율이 전국 14위입니다. 강원도, 경북을 제외하고 제일 나쁩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철도, 도로를 닦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춘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가평, 남양주 등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남에서 춘천까지 빨리 가면 25분입니다. 과속 방지기가 지금 없어서 요즘 25분 만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경의선도 개통이 됐습니다. 고양시장님께서 어제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 파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특히 북부 지역은 경원선을 통해 금강산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교류가 생길 것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도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돼야 합니다. 개통되면 많은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이 매우 시급합니다. 국도 37호선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빨리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군 공여구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달이나 다음 달까지 계약을 착수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대학이나 여러 가지 좋은 공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개 군과 동두천시 등 경기도의 5개 시군과 접경 지역,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정비발전 지구로 변경되는 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아까 영상을 통해 보신 섬유 부분에 대해서는 EU와 FTA가 되므로 8% 관세율이 줄어듭니다. 섬유 산업 발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제대로 갖춰진 산업단지, 물류 유통,

아울렛 매장 등이 많이 나와서 경기 북부 지역이 단순히 염색 폐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도 깨끗하면서 작업 환경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 아래서 최첨단 패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최전방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고 산업 발전에 애쓰시는 시장, 군수,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나라당 지역경제 살리기

일시 2009년 8월 6일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오시기 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 보고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들께서 모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핵심적인 것은 동두천 기지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12~2013년에 끝나는 것인데 2016년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미군이 있든지, 나가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미군 이전이 2016년 말까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2012년 이전에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두천 경찰서를 지난 4월에 폐건물에 특별한 결단으로 개서했습니다. 50년이 넘게 경찰서도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애국심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천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수도권입니까.

경기도 군 단위 지역과 동두천 등, 5개만 수도권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빼달라고 하면 필적 뛰십니다. 왜 빼냐고 하는데 와 보시면 수도권이 아닌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해 과한 규제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합니다.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빼 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16중첩 규제입니다. 너무 중복 규제를 많이 해서 첩첩산중입니다. 아무리 고개를 넘어도 끝이 안 보이는 형국입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 기지 이전이 불안정합니다. 이전할 때 해 준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4개의 군 단위 지역과 동두천시는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합동영결식

일시 2009년 8월 7일

오늘 6·25 호국 영령 136분의 유해를 발굴해 영결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 후에 님들의 유해를 찾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님들이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호국 영령들의 유품을 수습해 큰 성과를 올리신 임관빈 수도군단장님과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국 영령들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아시아 최선진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호국 영령들께서 차가운 땅속에 유해로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 영구사업으로 끝까지 남들을 찾아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영령님들께서 목숨으로 지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영령님들을 바로 기리고 정의를 세워야만 대한민국은 선진 통일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국자들께 반드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유해를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님들의 명복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 경영혁신 노사간담회

일시 2009년 8월 7일

오늘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도립병원이라면, 제일 좋은 병원이 도립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도지사가 되고 난 후 보니 도립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소위 말해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지역이든 도립병원이 랭킹 1위였습니다.

지금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도는 일단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인재가 부족합니다. 둘째는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립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어제는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병원 의사들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볼 때 우리 의료가 너무 훌륭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가 뉴욕주 변호사인데 아플 때마다 한국

에 옵니다. 도립병원은 안 옵니다. 아산 등 민간병원에 갑니다. 도립 병원을 가능하면 가장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중국 요녕성, 하북성 등이 자매도시입니다. 중국 자매도시만 인구가 3~4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우리와 자매 관계에 있는 인구가 6~7억입니다. 아프면 도립병원 오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에 세일즈를 할 때도 도립병원이 친절하다, 깨끗하다 등으로 왜 세일즈를 못합니까. 국립 다음에 도립입니다. 왜 못합니까. 사립병원, 재단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병원 등도 다 좋은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못하게 된 데는 저를 비롯한 도지사 책임이 1차 책임입니다. 2차 책임은 도립 의과대학을 불허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를 방치, 도외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 책임입니다. 제가 쌍용차에 대해 늘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오너가 없습니다. 상해차 오너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노조밖에 없습니다. 옥쇄투쟁 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노조 안 고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노조지부장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동북아 최고는 고사하고 한국에서 잘나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등이면 아시아에서 일등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일등 해 보자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 1년에 돈 13~14조 씩입니다. 잘만 하면 1조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보다 못하겠습니까. 환자가 제일 신뢰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일등입니다. 도립병원 가야 산다, 아픈

것 낫는다, 바가지 안 쓴다, 친절하다고 느끼고 오면 일등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자, 잘해 보자는데 상급단체에서 그것 되겠다, 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어용입니까. 도민 위해서 일한다는데 무슨 어용입니까. 저보다 잘하면 도지사 자리 내드리겠습니다. 전 손 안 땁니다.

공공기관, 기능혁신, 좋은 이야기인데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도립병원이 푹푹 뭉치면 됩니다. 도립병원 직원이 1,200여 명입니다. 봉급이 꼭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대 병원보다 봉급이 낮습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하면 돈 더 줍니다. 못하면 문 닫습니다. 간단합니다. 경쟁력 없으면 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통상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르는 소리 매번 듣고 주고받아봐야 안 됩니다. 저는 도립병원만 생각하면 도지사로 가슴 아프고, 창피합니다. 표가 납니다. 병원 랭킹에 다 나옵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그런 것 안 매깁니다. 그런데 병원은 다릅니다.

한국 일등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정신이 못 따라와서 못하는 것이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쫓기고 데모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국민들이 봐서 좋아야 합니다.

복장도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것 맞춰 드립니다. 환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 드립니다. 더 밀어 드리겠습니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 신축비 합쳐서 600억 쓰는데 6,000억 드리면 일등 합니까. 도민들 건강 위해 6,000억 못 쓸 것 없습니다. 도로 닦는 데 하나에 2,000억입니다. 돈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 봐서 그렇습니다. 믿을 만하게 하시면 밀어 드립니다.

병원, 의료에 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도립병원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상태, 목표를 분명히 해서 모든 것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 병원 아닙니다. 도민들 것입니다.

노조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병원장님은 곧 집에 가십니다. 노조위원장님들 19년, 21년 일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계시면 30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원 제일 사랑하십니다. 누가 좋게 해야 합니까. 답이 뻔합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벽보 붙이고 하는데 손님 많이 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떼세요. 손님, 도민 기준으로 도립병원 유지해야지 누구 위주로 합니까.

상급단체가 먹여 살리면 상급단체에 가면 됩니다. 우리 존재 기반은 도민의 행복, 건강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부 밀어 드립니다. 정말 발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대혁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40년 전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 청렴도가 16등이었는데 지금 2등입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 안 되면 문 닫고 다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2년 만에 16등에서 2등이 됐습니다. 아직 1등 못했는데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공사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 닫으면 됩니다. 1등 꼭 할 것입니다. 반드시 1등 할 수 있습니다.

도립병원이 현대, 서울대, 삼성병원보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도립 의과대학이 없어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는 병원장님들이 지부장님과 알아서 하세요.

자나 깨나 모든 기준을, 아프고 병든 분들이 도립병원을 가장 먼저 찾아오고 믿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확실히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해 봅시다. 못하겠다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1등 할 수 있겠다는 사람만 남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도민들께서 사랑하고 찾아 주고 믿는 도립병원을 만들기 위해 내 몸과 정성을 다 바쳐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경영지표가 무슨 소용입니까. 도민들이 만족하면 병원 무한 확장하겠습니다. 대신 도민이 꺼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화원 준공식

일시 2009년 8월 10일

다들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따뜻한 온실 안에서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마련돼 기쁩니다. 멀리 고흥에서 박병중 군수님, 하동에서 조유행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진용 가평군수님과 가평 출신의 김영복 도의원님, 군의회부의장님 등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이화원을 만드느라 너무 많은 애를 써 주신 우리문화가꾸기에서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문화가꾸기 운동을 하시며 이렇게 훌륭한 이화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원로 어르신들께서 우리나라를 보다 더 대한민국다우면서도 글로벌하게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특히 브라질 커피 농원을 한-브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 드릴 필요 없이 경기도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하천 부지입니다. 팔당 지역이다 해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자라섬 일대에 이렇게 우리 고흥의 유자, 하동의 녹차, 브라질 커피 등을 옮겼습니다. 명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가평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산이 많고, 물이 맑고, 사람 인심이 좋은 이곳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이화원 같은 곳을 많이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지금 남이섬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라섬과 연계해 개발하고 경춘 복선 전철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평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역 주변을 더 개발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높은 아파트가 많이 서는 곳이 아니라 가평의 강과 산, 자연에 맞는 아름답고 땅 터에 맞는 아름다운 가평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애를 써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도 우리 가평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입니다. 그동안은 녹색성장이 안 됐습니다. 녹색이라면 가평군수님 말씀대로 녹색은 있는데 성장은 없는 녹색 낙후, 녹색 저개발밖에 없었습니다. 녹색이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녹색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에 경춘고속도로 개통으로 가평 설악을 비롯해 가평, 청평 이 지역까지 동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엔 철도까지 개통되면 여러 가지로 지역 발전에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난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녹색이 더 푸르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지도자분들께서 힘을 합쳐 주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이화원 발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道에서도 가평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곳으로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예절관 개관식

일시 2009년 8월 11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 첫 행사입니다. 체부도·대부도 너른 갯벌과 멋진 낙조가 있는 곳이며, 경기도 창조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계적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 예술을 하는 창작 창조 학교입니다.

김희자 원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수련원을 바꿔 놓으셨고 전국 일등의 청소년수련원으로 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훌륭한 체육관과, 화장실 시설을 깨끗하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매우 넓은 곳입니다. 싱가포르의 15배, 홍콩의 10배, 서울의 17배 넓이입니다. 인구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우리 수련원 역시 세계 일등이 될 것입니다.

세계 3대 갯벌이 펼쳐져 있고, 탄도항·전곡항의 요트대회를 열어 봐도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왜 철조망을 쳐 놓고 있냐고 합니다. 저희가 철조망을 모두 제거하고 세계적 요트 대회·보트쇼를 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길이 열려 바다가 갈라지고 이 인근엔 세계적 마리나 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

370km 거리엔 중국 대륙이 위치해 있으며, 과거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고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자리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예절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을 지킬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16억 인구 이상의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도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데 청소년수련원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고 착한 여러분들의 정신과 지식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파이팅!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일시 2009년 8월 11일

김경한 장관님을 모시고 화성직업훈련소 개청식을 하게 돼 매우 기쁘습니다. 정명철 소장님과 교도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 검사장님, 안산지법원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곳 화성은 아시다시피 서울보다 1.4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활력 1위의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만큼 넓고 크며, 도시가 매우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게 세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화성에 개청하게 돼 화성의 도시가치를 더 높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화성이 될 것입니다.

화성이라면 '살인의 추억' 등의 기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경찰서가 생기고,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또 교도소가 개청하면서 화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 법치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고, 그 상징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2년 6개월 이상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교도소 생활을 안 하고 계속 데모만 했다면 제가 오늘날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세 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교도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 국가 유지, 사회 등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 여러분이 악조건 속에서 재소자들을 위해 밤새도록 애를 쓰시며 국가를 위해, 사회의 법치를 위해 애쓰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법과 국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24시간, 몇 년간 생활하는 재소자들이 이보다 훌륭하게 국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소자들끼리 흔히 '국립대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세계에서 첫째라고 봅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쭙 보니 장관님께서 교정행정에 조예가 깊으신데 우리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십니다. 또한 교도관님들도 세계 최고입니다.

재소자들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범수들만 오십니다. 정말 삼박자

가 맞습니다. 거기다 화성시 자체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이 교도소가 대한민국의 자랑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견학 오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도소임과 동시에, 직업훈련학교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직업훈련교도소를 통해 출소하는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법치를 실천하고 공부하는 대한민국 법치의 전도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교도소 생활을 해서 어디를 다녀도 법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또 음지에 계신 교도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말합니다.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교육자, 국가의 질서를 지켜 주시는 애국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훌륭한 교도소를 화성에 개청토록 해 주신 김경한 장관님 등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시는 여러분께 경기도민 모두가 감사드리며, 교도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최영근 시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협약식

일시 2009년 8월 13일

요즘 아주 힘드시죠? 괜찮으십니까. 상인회장님 어떠십니까. 얼굴은 좋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오택렬 부총장님과 박찬욱 테크노경영대학원장님 등이 오셨습니다.

경희대가 이곳(사강시장)과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가 사강시장 발전을 위해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부총장님? 많이 오신다는데 박수 한 번 드립시다. 경희대 학생, 동창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동창회도 사강시장에서 많이 개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역 출신의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도의원님, 화성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 화성시 부시장님 등 다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강시장은 전곡항과 가까워서 덕 좀 보십니까? 아직 온기가 안 미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전곡까지 거리가 4km 정도인데 아마 앞으로 이곳까지 올 것입니다.

전곡항은 제가 보니 장사가 잘됩니다. 필요하다면 진출하시고, 그곳 손님 모시기도 해서 사강시장은 다른 데보다도 바다를 내다보고, 나아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강시장 분들이 전곡항이 늘어날 때 진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서 휴일 때도 노점 행상을 시작으로, 가게도 진출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전곡항에서 제일 가까운 시장이 사강시장입니다. 건너편에 탄도항도 없습니다. 그곳도 시장이 없습니다. 탄도항, 전곡항 일대에서 제일 가까운 시장입니다. 이 일대는 앞으로 해양복합산업단지도 조성되고, 호텔 등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강시장에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인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사람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돈 냄새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냄새도 많이 나고 바다 냄새가 많이 나고, 앞으로 경희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젊은 학생 냄새도 많이 나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사강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 재래시장 보증지원 협약식

일시 2009년 8월 14일

뜨거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을 믿습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을 도와 드리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SSM 슈퍼마켓이 주변에 들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다가 경기도에 넘겨졌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전통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 내렸어야 합니다.

용산 참사도 이명박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 물러가라, 쌍용차 사태에도 이명박 물러가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하느님도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이필운 안양시장님과 도지사가 도움을 줘야 제대로 될 것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도의회에서도 나서서 도와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각자 업무를 분담해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기에 지역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기 박달시장이라고 써놓은 입구간판이 얼마나 예쁘니까. 제가 전국 전통시장 다 다녀 봐도 간판이 예쁘기론 전국 일등입니다.

김영철 박달시장 회장님과 회원님을 비롯해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이 조금이나마 재래시장 운영에 도움이 되고, SSM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세요.

또한 경기도에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활동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박달시장,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 파이팅.

##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일시 2009년 8월 15일

오늘은 제64주년 광복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세운 지 61년째 되는 날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 위대한 건국일입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광복의 감격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61년의 위대한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애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바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황갑수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1천2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광복과 건국에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

선열들은 가혹한 식민통치 아래서 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원리로 정했습니다. 민주주의 경험도 없고, 교과서 한 권조차 없었지만 용기 있게 선택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최강의 조선·반도체·철강·자동차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3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이룩하지 못한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61년의 역사는 위대한 성공의 역사입니다. 건국자들의 탁월한 선택 덕분입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 70년간 실험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방식대로'를 외친 북한 경제도 실패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의 본성에 맞는 체제입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우리 민족은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과 건국 유공자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의 힘은 개인의 자유와 민간의 자율성, 분권에서 나옵니다. 자율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대신 분권과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게 주택과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신도시 지정권과 같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경기도 스스로 맞춤형 교육과 치안,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경제의 주역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서 억지와 폭력을 추방하고 법치를 확립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애국심도 살아납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받들어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자율과 책임, 질서의 바탕 위에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재능과 넘치는 열정, 애국심을 한데 모아 선진 일류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공자 여러분!

경기도는 전쟁의 참화를 가장 많이 입고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이자, 한국군의 70%, 주한미군의 90%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입니다. 경기도 개성과 개풍·장단의 우리 형제, 친지들은 굶주린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자, 남북의 경제력이 집중된 경기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더욱 힘차게 가동하고, 철책선으로 막힌 한강 하구를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로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평화통일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광복과 건국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한반도의 심장,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30만 년 전에 구석기 문명을 만들었고, 삼국 시대 이래 언제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실학으로 근대화를 이끌고,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경기도에는 무한한 자원과 우수한 인재가 있습니다. 드넓은 땅이 있고, 중국으로 세계로 닿는 한강과 서해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싱가포르보다 14배나 넓고, 홍콩보다 9배, 동경보다 4배나 넓습니다.

세계는 치열한 대도시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북경, 상해, 동경 같은 대도시들입니다. 경기도와 수도권은 세계의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율과 분권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혁명 GTX로 수도권 동서남북을 한 시간 내에 잇는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듭시다.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규제, 그린벨트 규제, 군사 규제와 같은 중복규제 대신 첨단기술이 안보를 지키고 깨끗한 물도 지키는 그러한 경기도를 만듭시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교육하기 좋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에 이웃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최첨단 기업과 도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삼성과 LG, 현대기아차와 같은 세계 1등 우리 기업이 있고, 최고의 농업기술을 가진 농민도 많습니다.

군포에서 태어난 소녀 김연아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자랑스러운 장미란, 박지성 선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연천의 한센인들은 129차례나 고발당했지만 세계 최고의 니트 염색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에 세계 1등 기업, 최고의 농민, 스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승리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드시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배타적인 민족주의, 편협한 이념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 미국과 독일, 영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국보다 더 잘살고 반듯한 나라를 만듭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용감하게 전진합시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복과 건국의 선열들이시여!  
우리를 지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쌍용차 평가포럼

일시 2009년 8월 16일

일요일 이른 시간,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신 정갑득 위원장님과 정병문 현대차 상무님이 노사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오셨습니다.

쌍용차가 현대·기아차처럼 튼튼한 오너가 있고, 세계 최고의 R&D 센터를 만들고, 세계 시장으로 약진해 나가는 쌍용차로 만드는 것이 경기지사로서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갑득 위원장님과 정병문 상무님이 노사 간 문제 등 쌍용차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덕 고문님이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실 때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위해 팀을 만들어 진단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쌍용차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처럼 글로벌 기업

이라고 하기엔 시장점유율이 2% 정도로 작습니다. 너무나 작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쌍용차가 이번에 세 번째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안 무너지고 잘살 수 있겠나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노사관계고, 둘째가 R&D입니다.

저도 쌍용차 타고 다니고, 道에서도 상하이차 철수 후 많이 구매했고, 삼성에도 매달리다시피 해 파는 등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판매는 도울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도와 드릴 수 없습니다. 생산을 안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도와 드릴 길이 없습니다. 판매 뿐 아니라 품질 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R&D 비용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겠다고 나오면 도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소방을 보내 전력투구했는데 불 탄 차만 40여 대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산하시고 R&D를 하시면 적극 지원하고, 판매도 적극 돕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 미국 등 해외 판매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넘어지는 것은 속수무책이고, 안타까운 상황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차 직원 중 90%가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경기도민입니다. 답답하긴 우리가 중앙정부보다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쌍용차가 현대차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회사 발전에 노사가 똘똘 뭉치면 道와 평택시뿐만 아니라 안성·수원·화성·오산 등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 전체가 뭉쳐 판매

촉진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도 사 달라고 하고, 중국·미국 등 해외 판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쌍용차가 현대·기아차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좋은 말씀 하시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일시 2009년 8월 17일

정련 이사장님 등 훌륭한 고승대덕 스님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영교 동국대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백성운 국회의원님께서 국토해양위에 계신데 동국대 도와 드리러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님, 경기도의회 의원님, 보병 9사단장님, 중소기업청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스님들이 도를 닦으시느라고 세상 물정이 조금 어두우십니다. 무얼 만드는데 땅 넓이가 얼마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어두우십니다.

그런데 오영교 총장님처럼 이렇게 전 행정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학식과 경험, 경륜을 가지신 분께서 스님들께서 부족하신 빈자리를 모두 메워서 훌륭한 의료생명과학캠퍼스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

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자대비, 중생의 생로병사를 걱정하셨습니다. 생, 노, 병, 사가 부처님의 관심사 중 첫째인데 이것이 전부 의료고, 생명 과학입니다.

도 닦는다고 생로병사를 얼마나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몰라도, 우리 같은 속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선 의료, 메디컬 서비스를 해야지만 부처님 뜻을 속세에서 실행하시는 대자대비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웰빙 시대가 돼서 인간, 사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외국 분들이 경기도에 왔다 갔는데 우리 의료가 1등입니다. 성형, 치아 교정, 건강 검진 등이 다 1위입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 뉴욕 주 변호사가 있는데 치료받으러 계속 옵니다. 왜 오느냐.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종합검진 등은 안 해 줍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경기도 병원을 둘러보더니 자기들은 주로 유럽·러시아 병원을 가는데 거기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느냐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제가 다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주목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가보면 이렇게 의료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에서 1단계 4,500평, 2단계 51,000평 하신다는데 스님, 이것 좁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동국대 병원 할 때 좁다, 제대로 넓게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좁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곳에 몰려와서 아프고 한 사람들이 전부 치료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넓이로 되겠습니까.

고양시장님께 물어보니 45%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도 과감히 풀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정말 동국대 대자대비 실천을 위해, 전 세계인을 건강히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잘 활용해서 더 넓게, 훌륭하게, 글로벌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이고, 대자대비를 실행할 수 있는 훌륭한 캠퍼스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큰 스님, 고승대덕 스님 여러분께서 부디 정신만 지도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 건강도 잘 지도하셔서 더 크고, 훌륭한 병원을 지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을지연습 상황회의

일시 2009년 8월 18일

군단장님, 장병 여러분, 행안부 통제관님, KT 관계자, 경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전에 근접한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 이런 실전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접한 대응책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북이 핵을 터뜨린다면 어디가 될 것이고, 어떤 모습이 될 것입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사진 사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פות이라도 실제 상황을 보여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떤 경로로 피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반격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든지, 실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핵보유국은 어느 나라이며, 중국·러시아·일본은 어떻다든지,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에 군에 대한 다소 전문적 부분도 알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중국·일본·러시아의 존재는 우리에게 상수이고, 국방 안보에서 정확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주변 국가의 군 정세 등을 아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포가 어느 지역에 떨어졌고 이에 도로가 끊겼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전에 매우 근접하고 와 닿는 사례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등 동떨어지지 않은 알찬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두터운 군복과 철모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번에 나홀로 기간이 늘었는데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도청 장비전시회 등도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학교 등에 확대돼 한번 썩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식

일시 2009년 8월 18일

농업경영이란 농민이 더 잘살고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G마크 우수농산품을 학교 급식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FTA가 확대 체결되어도 G마크 농산품뿐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농산품을 급식 등으로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슬땀을 흘려 좋은 농산품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판매하는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엔 농지도 농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엔 좋은 시장이 많습니다. 군부대 급식에도 지금 경기미 떡으로 급식하는데, 쌀라면·쌀국수·쌀과자도 만들어 판매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기 각계각층의 지도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결국 여러분들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 농림수산부 차관님도 역시 판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하신 것입니다.

경기도 선인장은 세계 최고입니다. 벼·포도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선박·가전도 세계 최고인데, 오천년 역사를 지닌 우리 농업은 세계 일등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비바람과 폭풍을 뚫고 경기도 농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조직위 출범식

일시 2009년 8월 25일

바둑, 한자, 영어회화, 공부가 게임과 결합된 기능성게임이라는 게 뭔지 재밌게 잘 알았습니다. 바둑게임 '바투'를 통해 바둑 9급밖에 안 되는 제가 유창혁 9단과 대결을 해 보기도 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문화를 즐기는 데 게임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배가 유학을 갔다 돌아와선 게임을 연구한다고 해 아이들이 노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산업과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의 코스튬 퍼포먼스도 처음 봤는데 매우 재미있고 학교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봅니다.

NHN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일시 2009년 8월 26일

오늘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우석 박사님, 그동안 원래 경기도와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많이 하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으로 잘 몰랐는데 지난번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자 분들께 감명도 받았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축산 담당 연구자들에 더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진에게 뭔가 뒷받침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협약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경기도는 지금도 축산을 많이 하고 있고,

젓소·돼지·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여러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 생명공학 여러 면에서 앞설 수 있다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때론 어려운 점, 악조건에 절망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의 우수성, 열정, 분명한 사명감과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작으나마 뒷받침으로 전 인류의 꿈과 근원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가 생명공학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님 등 연구자분들의 역량을 믿고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어려운 점이 많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떠한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생명공학을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연구원들이 전 인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시던데, 보다 쾌적한 조건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꿈을 담아 여러분들께 큰 박수 드립니다.

## 철도관광활성화 MOU

일시 2009년 8월 26일

정말 기쁩니다. 허준영 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철도로 DMZ관광 열차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 역장님께 박수를 더 많이 쳤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박수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자전거가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녹색은 철도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동네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철도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에서 북한, 신의주로도 갑니다. 아까 청장님에게 여쭙 보니 여기서 부산, 신의주 거리가 같습니다. 부산에서 2시간 걸리면 신의주도 2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북경까지도 3배 정도 더 걸립니다. 1,300km입니다. 부산 가는 것의 세 배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적으로 발전

했습니다. 철도가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부상열차도 만듭니다.

앞으로 북경까지 3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있습니다. 타 봤는데 진동, 소음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관차 화통을 임진각에 전시해 놔습니다. 그 열차가 유럽까지도 갑니다. 중간에 갈 아타긴 하지만 갑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중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동 그리고 런던까지 열차로 갑니다. 해저터널로 가능합니다. 이 철도는 지금 단순히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대륙을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모든 곳을 철도로 갈 수 있습니다.

철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륙을 향한 꿈입니다. 지금은 막혀 있어서 배, 비행기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철도를 타고 대륙을 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철도 요금은 비행기 요금의 3분의 1입니다. 값싸고 편안하고 위험성이 적은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막혀 있지만 이곳도 경기도입니다. 판문점이 파주입니다. 오늘 파주시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드립니다.

파주는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최전방입니다. 6·25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려오면 다 파주로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군인 중에 미군, 육해공, 해병대, 모든 부분이 파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제1사단장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장군님께 큰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사단장님이 오케이 안 하시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뒤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화가들이 그린 DMZ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DMZ에는 생태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6년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이 보호된, 세계 하나뿐인 DMZ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장벽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나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56년간 생태가 보존돼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의 유골도 묻혀 있습니다. 국군이 계속 발굴 중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름 없이 묻혀 있는 무덤이 많습니다. 가장 아픈 우리의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DMZ에는 또한 우리 민족 전체, 전 세계인들이 꿈꾸는 평화와 통일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DMZ에는 6중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보실 수 없지만, 이렇게 DMZ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그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슬픈 이야기,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DMZ는 그냥 땅, 전쟁터, 철책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간절한, 역사·자연·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DMZ를 사랑해야지만 DMZ를 다시 평화와 새로운 희

망이 담겨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보존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이 부분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뿐이다, 지금은 막혀서 많은 사람을 갈라놓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꿈을 안고 최전방 DMZ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십함양 연찬교육

일시 2009년 8월 26일

사슴농장 하시는 박철호 회장님, 매년 1천만 원씩 농업 후배들을 위해 내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철호 회장님께 도지사 표창을 드려 감사를 표해야겠습니다. 여기 나이 20대의 젊은 농업회장님,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알고 놀랐습니다.

세상의 트렌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골 폐교가 농촌학교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들판이 있고 공기가 좋고 강이 있는 곳이 가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의 도시가 아니라 인정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이 트렌드인데, 결국 녹색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 아닙니까.

중국은 2036년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2020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어마어마한 부자로 올라서고 부자 인구는 매우 많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가 보니 우리나라 유제품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 유제품이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결과 안전의 국가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낙농제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는 큰 잠재시장입니다. 우리 핸드폰은 세계 일등이지만 곧 우리 농업도 일등이 될 것입니다. 매우 안전하고 매우 깨끗하고 매우 보기에 좋은, 최고의 가치 있는 농업으로 방향을 잡읍시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우리 능력을 믿으십시오. 다음으로 심장이 가장 뜨거운 사람 역시 한국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강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일하는 열정도 세계 일등입니다. 제가 외국인들에게 왜 한국인들을 선호하냐고 물으면, 왜 한국에 투자하냐고 물으면 '한국엔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한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밤을 새고 집에 안 가면서 될 때까지 해내는 끈기와 참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입니다. 얼마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주치의를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경기도 병원을 둘러보고, 유럽 어느 나라 미국 어느 나라보다 병원 시설이 가장 좋고 기술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뛰어난 머리,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손, 최고의 건강.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김연아, 양용은, 장미란, 박지성, 모두 세계 일등에 올랐습니다. 음악, 미술, 패션, 세계 일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세계 일등을 지향하고 대신 비싸게 받으십시오. 급식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대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수출에서도 최선의 판로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황우석 박사님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뇨를 갖고 있는 돼지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람의 질병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돼지를 그냥 식용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수십만 원짜리 돼지로 바꾸는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등 모두는 최고여야 하고 없어서 못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 로봇산업육성포럼

일시 2009년 8월 27일

젊고 도시계획 잘돼 있는 안산에 로봇을 육성하기 위해 모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늘 중앙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인데 지식경제부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보면 교수님들께서 산업로봇을 넘어 집집마다 로봇, 지능형 개인로봇을 애완용이나 형제처럼,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수족처럼 사용하는 미래의 모습을 잘 그려 주셔서 저 같은 문외한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한 로봇 산업은 일본·독일·미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 정도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 훌륭한 두뇌가 많이 와야 하는데, 억지로 지방에 많이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안산처럼 좋은 연구자들이 많고 연구에 몰두하다가 시화호와 너른 갯벌 낙조를 둘러볼 수도 있는 훌륭한 곳에 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좋은 도시는 초고층 아파트 도시가 아닙니다. 녹지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두뇌와 독특한 산업 육성 지역이 좋은 도시라 생각합니다. 항공·로봇·메디컬 산업 등에서 안산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에서 최첨단, 인간적 냄새가 나는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의 많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일시 2009년 8월 28일

바쁘신 가운데 위촉을 수락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진짜 녹색의 지역입니다. 다른 데서 녹색을 이야기하는데, 경기도를 다녀 보면 녹색이 참으로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녹색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녹색도시란 말을 들으면 성장이 안 되는 지역이구나 생각해 왔습니다. 연천·가평·양평 분들은 녹색이라면 지긋지긋한 곳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과천·의왕·하남시 등이 그린벨트 90%의 도시입니다. 시흥·의정부 80%, 광명 등 그린벨트가 대부분 50% 이상입니다. 전국 그린벨트의 31%가 경기도에 있을 정도입니다. 한 도시를 90%씩 그린벨트로 지정하면 도시가 유지될 수가 있을지, 그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신 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지를 그린벨트로 묶어 안 쓰고 왜 산지를 깎아 씹니까. 대표적으로 남양주는 평지가 그린벨트이고, 산지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축령산·천마산 등 남양주에 산이 많은데, 산을 그린벨트로 대신 묶고 평지는 해제하자고 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손대면 정책 자체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소규모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싸게 짓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50~80% 선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싸기 때문에 고층, 고밀도 아파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그린벨트에 왜 아파트만 짓습니까? 공원, 체육관, 도서관, 녹색 연구단지, 학교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 사람이 살려면 길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철도를 닦을수록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길 값, 철도 값, 도서관·철도 많이 지을수록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도로 없고, 철도 없고, 학교 없고, 공원 없으면 반값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합니다. 가평은 가평에 맞는 산촌 주택, 강변엔 강변 주택, 화성 같은 해안엔 해변 주택, 이런 식으로 지역에 맞고 오래가는 백년, 천년 기억되는 주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지금이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천년 역사 중 지금이 가장 역사적인 때입니다. 최근 전통가옥을 보존하려는데, 경기도에 보존할 집이 없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한옥, 고궁이 있습니다. 수원엔 화성, 남한산성 빼면 보존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민간 주택에는 과거에 잘 지어놓은 게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때 전통가옥을 전부 슬레이트집으로 만들어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더 보존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짓는 우리 집들은 백년 천년 후 가치 있는 주택·공원·도로로 남아야 합니다. 저렴함을 위주로 가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께서 싸게, 빠르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건물이 나오겠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안 됩니다. 보금자리특별법을 만들어 건축·도시계획 허가권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도 한마디 하는 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역사를 쓰는 일입니다. 그것도 오천년 만에 최고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짝 들어왔기 때문에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천년 역사에 최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GTX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녹색성장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탄다고 전국이 난리입니다. 온통 자전거입니다. 다치는 분들이 많아 지금 외과 등 병원만 북적거립니다. 김포시장님도 산에서 자전거로 내려오다 6주 부상 중이십니다.

내년 예산이 41%가 줄었다는데 4대강보다 더 중요한 게 녹색철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되게 하는 녹색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오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이고, 싱가포르의 14.6배, 홍콩의 9.4배, 두바이의 2.6배 면적입니다. 인구밀도는 서울의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여지가 있고 세계 유일의 DMZ도 있습니다. 50여 년간 전인미답의 녹색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팔당 일대는 손대지 않은 저 넓은 녹색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무허가 축사, 붕어찜 가게만 계속 만들 것인가. 정말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저것도 어떻게 아름답게 관리할 것이냐. 강도 경기도에 2,700개이고, 아름다운 산과 강과 DMZ, 바다 등 녹색이 이렇게 많은 경기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실력은 뛰어나신 것 잘 압니다. 거기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를 쓰는 순간이라 생각하고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쌍용차 방문

일시 2009년 8월 28일

그동안 애써 주신 이유일 회장님, 박영태 사장님께 박수 한 번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핵심은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저는 산다고 봅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고의 생명력을 갖고 잘 살아 나갈 것입니다. 크게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더 잘 자라듯 쌍용차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지난 87년 이후 '노청(勞靑) 관계'라고 불릴 만큼 노는사와 대화하지 않고 청와대와 직접 대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아픔을 딛고 성숙한 노사관계 틀이 마련되고, 우리 임원들은

좋은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회사는 R&D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거의 완성 단계까지 온 C200 신차를 위해서 천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던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노력을 잘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쌍용차 노사관계가 어려움을 딛고 극적 반전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향후엔 노조가 최고의 쌍용차가 되기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봅니다.

경기도에선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는 쪽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쌍용 직원들도 정말 스스로 회사를 살려 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더욱 명차로 불같이 일어서는 쌍용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고지도 국제학술대회

일시 2009년 8월 31일

김용덕 동북아재단 이사장님, 부총장님, 혜정박물관장님, 이렇게 좋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에서 상해복단대학 교수님, 베이징대학 교수님, 대만 타이완박물관 학예사님, 일본에서 학예사님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그동안 한중일이 서로 갈등과 다툼의 역사를 청산하고, 보다 더 화합해 사이 좋게 지내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막연히 서로 누가 더 힘이 강한가, 목소리가 크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도를 펴놓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고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크지 않지만 매우 과학적이고, 한중일이 서로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방학 중에 훌륭하고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경희대학교 부총장님과 혜정박물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저소득층 아동 소액보험 지원사업 협약식

일시 2009년 8월 31일

김승유 이사장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 보험 등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정성, 애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액수를 넘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오는 울림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승유 이사장님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정을 하고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꿈나무 축구대회 선수단 해단식 격려사

일시 2009년 8월 31일

축하합니다.

회장님이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자 선수는 우승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우승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저씨는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해야 밀어드리겠습니다.

여자부는 4등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내년엔 1등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지훈련도 했습니다. 제가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 더 잘하도록 뒷받침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학생들은 내년엔 3연패 틀림없죠? 경기도는 체육대회를 하면 8

연패, 10연패 합니다. 3연패로 안 됩니다. 8연패, 10연패까지 해야 합니다. 여자 선수들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는지 적어서 주시면 그대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자 선수들 훈련 기간이 짧았습니다. 1등 할 때까지 훈련 계속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내년에 여자 선수들 우승, 남자선수들 3연패를 위하여!

##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일시 2009년 8월 31일

도기능경기대회 부위원장님, 선수단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곤 도 교육감님도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느라 애쓰신 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더위에, 힘든 과정을 통해 열심히 연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승하실 수 있으시죠? 작년에 우승 못했습니다. 우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 수원공고 악대는 아주 잘합니다. 작년보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 봤는데 가장 잘합니다.

여러 학생들께서 잘하셔서, 올해 꼭 경기도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꼭 우승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승 틀림없습니다. 꼭 우승하셔야 합니다. 꼭 우승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승을 위해, 우승이라고 세 번 외칩시다.

경기도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승! 우승! 우승!

##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일시 2009년 9월 4일

오늘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주관해 주신 김경한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경진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존하 회장님과 각 노인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진중설 의장님과 황선희 보건복지위원장님 등 많은 도의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방금 전 영상에 나오셨는데 정말 실감도 나고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어르신들께서 일자리가 없으셔서 얼마나 힘들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핵가족화가 돼서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어르신들 기력이 좋으셔서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답답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대회를 보니 기능경진대회, 생산품 전시회 등을 하십니다. 이

런 제품 전시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채용 코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고령자가 많은 고령국가 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력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일은 아니라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 식견, 통찰력을 활용해서 보다 더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후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대회만이 아니라, 우리 실버대회 자체가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도 어렵고, 신종플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사전 예방하려면 손을 잘 씻고, 술잔을 돌리면 안 됩니다. 술잔 돌리는 습관은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걱정, 자식 걱정 등으로 머리가 아프실 것

입니다. 백팔 번뇌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들면서 한꺼번에 백팔 번뇌가 몰려듭니다.

여러 어르신들, 제가 나이 먹으면서 어르신들 심정을 잘 압니다. 다 깨우치고 나면 너무 늦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늘 가르침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늘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곳곳에서 오신 어르신들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고 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경기도 공무원들은 어르신들이 희망,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

일시 2009년 9월 4일

우리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전통이 있어야 하고, 민속이 있어야 하고, 민속예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경기도에 오케스트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 최고입니다. 좋은 것들이 많지만 경기도의 역사·문화·예술이 없고, 이 자리의 여러분이 없으면 경기도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고 계시는 민속예술이야말로 경기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핵심 예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노래를 부르면 조수미부터 신영옥 등 전부 세계 최고입니다. 비, 조용필도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합니다. 정명훈, 금난새 등 지휘자, 바이올린 하는 분들도 다 최고입니다. 김연아도 세계

최고고, 골프도 최고고, 박지성, 야구도 최고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만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포항제철, 대우조선도 세계 최고입니다. 머리로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용인도 선진용인,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역사, 전통이 없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경기도에는 아시다시피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구석기 전기, 지금부터 30만 년 전부터 경기도 연천 전곡에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산 흔적이 있고, 만 가지 이상의 유물이 있습니다. 요즘도 길만 파면 돌도끼 등이 나옵니다. 중국, 일본보다 역사가 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물, 농악, 기생놀이, 나무꾼놀이 등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전통예술이 옛 전통을 가지면서, 아름답고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제가 되도록 애써 주신 각 문화원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서정석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대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종플루 때문에 관객이 조금 적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온갖 잡귀도 오늘 민속예술제로 다 물리칠 것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우리의 전통,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 민속예술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큰 함성과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2009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일시 2009년 9월 12일

역시 안산이 다릅니다. 안산에서 박람회를 하니, 오던 비도 그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이 기가 강한 곳이라 오던 비도 멈추고, 하늘은 맑고, 바람이 분다고. 또 비가 내릴 것 같은 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과 산림 관계하시는 분들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보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장이신 김형국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안산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님, 이화수, 강명순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중설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 분들도 오셨습니다.

안산이 산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산이 바로 대한민국 도시

중에 녹지율이 1위입니다. 안산이 가장 공원이 많고,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 도시라고 산림청장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산에는 우리 경기도립 바다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습니다. 영어마을과 청소년수련원, 창조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최고의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인데 더 확장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오늘부터 선전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을 만드는 중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목원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독특한 수목원을 만들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뒤편에는 시화호가 있습니다. 안산은 시화호, 대부도, 바다, 호수, 도시, 산업단지, 대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녹색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3분의 2가 산입니다. 전부 녹색이고, 나무입니다. 녹색을 이야기하면서 나무를 말하지 않고, 산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녹색은 껍데기만 있는 녹색입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무, 산을 사랑하는 안산시민, 경기도민이 됩시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녹색의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가꾸고, 바다를 사랑하고 가꾸는 훌륭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 함께 녹색 안산, 녹색 경기도, 녹색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식

일시 2009년 9월 14일

제가 정희경 이사장님 팬입니다. 정희경 이사장님 잘 아시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일 미인이었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하셨고, 모든 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처음 왔는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풍수가 좋습니다. 이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둘째, 건물과 캠퍼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예쁜 학교가 없습니다. 셋째, 이사장님·총장님·교수님 등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학교 안내를 읽어 보니 청강문화산업대학이 1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특성화 대학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특

성화교육 대학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내용 자체가 다른 대학에 없는 독특한 것이거나, 있다고 해도 다른 대학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지사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조병돈 이천시장님도 총력을 다해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미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게임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서병문 이사장님, 권택민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콘텐츠기업협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청강산업대학 졸업생을 더 많이 취업시켜 줄 것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 공부하시는 여러 학생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협회의 회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홍보대사로 김가을 감독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칸(KHAN) 감독님입니다. 나중에 게임 좀 배우겠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여러분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실력을 기르시고, 꿈을 펼치시는 데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학생 여러분들은 난관이 오면 올수록 용기백배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교수, 선배, 후배들과 힘을 합쳐 뚫어 나가면 못할 것

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이 없습니다. 용기 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를 비롯한 경기도, 이천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상용화지원센터가 게임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대학의 명성을 떨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이천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게임산업 발전, 청강문화산업대학 발전을 위해 파이팅!

## 사기막골도자기시장-단국대 자매결연

일시 2009년 9월 14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기막골을 여러 번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단국대 총장님, 부총장님이 오셨습니다. 기약과 학생들도 왔습니다. 오늘 단국대 마케팅학과에서도 왔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젊은 학생들이 오니까 사기막골이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장호성 총장님께서 특별히 사기막골, 도예인들을 사랑하시고, 전통 도자를 발전시키기 위해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국대가 용인에 있습니다. 이천과 단국대가 거리가 조금 있지만, 단국대가 경기도에 와서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도예 발전, 판매를 위해 왔습니다. 단국대에 도예과도

있습니다. 이천의 도예인들과 함께 우리 도예가 더 아름답게 값도 싸고, 품질 좋게, 세계적인 도예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른 1시장-1대학은 전통시장, 생선, 순대, 과일을 파는 곳인데, 사기막골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아닙니다.

사기막골은 우리 역사를 통해 전통, 문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자존심을 파는 시장입니다. 다른 시장과 다릅니다. 도에서도 다른 어떤 시장보다 사기막골과 도예에 대해 도자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기막골을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더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그냥 차 대는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차를 대면서도 도예를 느끼고, 대한민국 도예의 아름다움, 자존심을 느끼며 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간판을 만들어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판을 보며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어느 곳보다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도자는 일반 판매가 아니라 전통과 아름다움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막골 도자시장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역사, 혼, 문화, 전통이 녹아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단국대, 대한민국 최고 지성, 최고 대학이 사기막골 도자촌과 결합이 돼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장호성 총장님과 학생들 오셨습니다. 도예과 학생들도 왔습니다. 도예과에서도 교수님이 오시고, 마케팅과에서도 오셨습니다. 잘 만들

고 잘 팔면 됩니다.

단국대가 이렇게 사기막골을 오셔서 대학이라는 최고의 지성, 생기 발랄한 젊은이들이 옴으로써 다시금 천년 도자가 새롭게 날아오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조병돈 시장님께서 이천의 어려운 점, 특히 하이닉스 때문에 머리도 깎고 오셨습니다.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자르셨습니다. 이천 시민들께서 기네스북에 오르실 정도로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상인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로 이천 사기막골 도자기는 다른 시장과 다르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도예인들의 혼과 땀과 간절한 기도가 합쳐지는 그곳이 바로 이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사기막골은 너무 현대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낡아도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사기막골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데 단국대의 훌륭한 지적인 교수님,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찾아 주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일시 2009년 9월 18일

그간 쌍용차 사태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격한 대립 속에도 사망사고 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치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가 법치 없이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쌍용차의 경우 주인이 몇 차례 바뀌면서 결국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을 분담하고 회사가 좋아질 때 재채용을 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억지 주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쌍용차가 어려움을 딛고 회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를 갖고는 도저히 회사가 살아날 수 없다 느껴 노총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파업을 안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살지 않습니다. 기술과 경쟁에서 이겨 판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마땅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되는 리비아, 인도 등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술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한국 이상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나서 줘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인수 작업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노사문제 되겠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 행위는 안 됩니다. 77일간의 불행하고 잘못된 파업은 이제 안 됩니다. 확실히 법을 안 지키면 손해 본다는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노동계의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악을 쓰고 파업을 해야 봉급이 올라간다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쌍용차 해결은 경찰들이 일등 공신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에서도 화재 진압 등 큰 불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쌍용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임진강 사고는 군, 경, 소방, 행정,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잘 수습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북이 예상 밖 행위를 할 때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예방 시스템이 아직 잘돼 있진 못합니다. 국가하천이어서 지방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많지만, 국가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노력이 계속될 때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CCTV도 보면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경비시스템과의 통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 해결에 CCTV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없는 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더욱 확충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경찰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찰을 믿지 못해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치안 역량도 경찰에 더 집중시키고, 인권 시비도 치안 강화의 범위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하고 밀어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77일간의 어려움 속에 잘 해결해 주시고, 임진강 사고의 분석도 경찰이 논리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가톨릭대 인터내셔널허브 개관식

일시 2009년 9월 18일

부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톨릭대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기 위해선 교육이 크게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민주적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역할이 큼니다. 저도 신자인데 가톨릭대의 지적 리더십과 역할이 매우 큼니다.

가톨릭대는 단순히 대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도권 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도자 분들도 이곳 평생교육 과정에서 공부하고, 캠퍼스를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 아시아 일대에 가톨릭 정신과 지적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캠퍼스에서 만나 평화와 우의를 나누기 바랍니다. 경기도 역시 가톨릭대의 발전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수원천 복원사업 기공식

일시 2009년 9월 21일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首府) 도시이자 수구(水口)입니다. 그렇다면 하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15년 전에 복개했고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습니다.

수원의 큰 발전은 화성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최대 연구소인 삼성전자 연구소가 수원을 대표합니다.

과거를 그대로 100% 복원하기보다는, 약간의 인공미를 가미해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청계천보다는 좀 더 자연적이고 한강보다는 좀 더 인공미인으로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구 도시로서 위용과 역사를 표현하는 수원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과학 정신도 수원천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수원은 다른 지역보다 역사가 있고, UN이 인정하는 역사와 뿌리의 도시입니다.

또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있는 기업도시이자 최첨단 과학도시로, 수원의 특징이 잘 드러나길 바랍니다.

많은 지도자 분들께서 세계 최고의 수원천으로 복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수원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1회 광교테크노밸리 열린마당

일시 2009년 9월 22일

우리 광교테크노밸리가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테크노밸리로 성장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전국 R&D 분야 역량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선 가장 소외된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제일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심이 많고, 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지 판단 못하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 여기 광교테크노밸리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모두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원하는 걸 별로 말씀 안 하신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리면 더 발전할 것인지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 일대의 광고신도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신도시입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싶지만, 지금의 정부 주택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편리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녹지가 많고 더 훌륭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천년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와 공무원들에게 마음 놓고 시키시고 잘 부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큰 기여 더욱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일시 2009년 9월 23일

참석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애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세 침체로 도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국비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로 기대가 크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지원이 크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들께서 되실 땐 지방분권 약속하시지만, 되고 나시면 (지방분권 이행이) 잘되지 않습니다.

행정 개편과 관련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통합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시군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자율적이고

원만하게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은 찬반 서명이 진행되면서 대립이 심화되는 점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잘 조정하려고 하며, 기본적으로 도는 시군의 의도대로 잘되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최근 교육국 설치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개국 가운데 교육 관련한 국이 없어 하나 만들어서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명칭에서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에서 소외된 경기도의 교육지원·평생교육·대학유치 등에서 노력해 보자는 의지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을 설치해 교육 권한을 해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GTX는 일괄 착공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올해 예산에서 한마디만 드리면, GTX 관련 예산은 당장 내년에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후년 정도부터 전체 사업 예산의 15% 정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 북부 SOC 지원은 절실합니다. 경기 북부 예산에 대해 특별히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뉴타운 업그레이드 전략발표 세미나

일시 2009년 9월 23일

오늘 이렇게 경기도 뉴타운 23개 지구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뉴타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더 빠르고, 더 가치 있고, 더 문화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리고 품격이 높은 뉴타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오늘 다시 경기도 뉴타운을 특색 있게 순환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훌륭한 발표를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중설 의장님과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전문가들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께서 뉴타운 지구에 민원을 하십니다.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뉴타운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높은 수준의 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이 자리에 주민을 대표해 오신 도의원님들과 함께 늘 말씀을 더 잘 들으면서, 아름답고 품격 있고 신속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적 뉴타운 추진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과 뉴타운 관련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허심탄회하고 품격 높은 좋은 토론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 LG 파주 첨단소재단지 기공식

일시 2009년 9월 23일

LG가 파주에 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지역입니다.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야 할, 세계 유일의 DMZ도 있는 접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파주 월롱단지에 이러한 첨단 기업들이 지속 입지해야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은 최선을 다해 기업을 지원해 윈윈(win-win)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성공적 기업 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닌 기업입니다. 공직자들은 기업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 진정,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만화영상원 개원식

일시 2009년 9월 23일

여러분 좋으시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현세 이사장님, 박재동 축제위원장님, 만화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부천의 홍건표 시장님, 원혜영, 임해규 국회의원님, 여러 도의원님, 부천 시민들,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부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한 세계 제일의 진흥원을 이렇게 부천에 설립하게 돼서 장관님과 정책관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 주셨습니다. 오늘 와 보신 분들은 모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위용, 아름다움, 다양함, 무엇이랄도 다 이곳에

오면 생산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아름다움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진흥원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진흥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훌륭한 공간, 작품, 작가들이 한군데 모인 적은 처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진흥원을 가지게 된 만화가들께서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주는 작품을 만드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 오셨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욱 세계적인 작가들로 성장해 영원히 오래가는 훌륭한 만화를 그려 주시고 세계인들께 널리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기우회

---

일시 2009년 9월 25일

아시다시피 요즘 쌀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라 여러 가지로 농민들은 추수가 너무 잘돼서 가격 문제 등으로 걱정을 할 정도로 풍성하고 좋은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진국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첫째가 규제완화입니다. 과도하고 맞지 않는 규제를 경기도에 너무 많이 합니다. 얼마 전 물난리가 난 연천은 98%가 군사시설입니다. 물난리 사상자가 났는데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대

표적인 곳입니다.

경기 북부, 동부는 국방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또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방분권이 돼야 합니다.

최근 헌법을 고친다고 내각제,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통령의 행복한 퇴임입니다.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1인에게 집중돼 불행해지는 점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가장 문제없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道 폐지 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많은 화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구를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보면 우리를 능가합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중국 경제특구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공산당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신발 한 짝까지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경제로부터 경제특구로 자율권을 줬습니다. 중앙의 간섭 없이 특구의 경우 토지 사용, 외자 유치, 기업 관리 권한, 세제 등 포괄적 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이 1980년 지방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1985년에 14곳으로 특구를 확대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계속 지방에 줍니다.

제가 얼마 전 자매관계인 요녕성 대련시를 방문했습니다. STX 조선소를 갔습니다. STX가 입지하고 있는 발해만, 153만 평 갯벌 매립을 5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은 성까지도 필요 없고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우리보다 양식장이 많은데 싹 밀고, 6개월이 안 돼서 STX 부지를 마련해 줬습니다. 153만 평의 땅을 공짜로 줬습니다. 주택지 50만 평과 협력단지 50만 평까지 250만 평을 그냥 줬습니다.

거기다 6억 달러의 협조 용자를 대련은행에서 해 줬습니다. 이 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닌 시 은행입니다. 금융권도 특구의 경우 지방에 줬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놓아서 지방에 줬습니다. 치안, 무역, 금융 등을 다 줬습니다.

특구의 경제성장이 1년에 30%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지방의 관료들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더 잘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980년 지방 경제특구를 처음 할 때는 지방재정이 전체 재정의 46%였는데 최근엔 72%입니다. 지금은 지방이 80%가 넘고 중앙이 20%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안 된 나라입니다.

한국은 공무원 중 30%가 지방공무원입니다. 중국은 지방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과감한 지방분권,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치안 유지를

합니다.

대신 (중국어) 잘못된 점은 일당 독재, 선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행정 개편은 중앙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방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 단위가 작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 평균 시·군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보통 선진국은 1~2만으로 자치 단위는 아주 작고, 오히려 우리가 큽니다. 20만이 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작다고 합치자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법치가 중요합니다.

쌍용차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쌍용차 같은 경우가 기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쌍용차에서 그 난리 통에도 품질관리 은메달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은행도 안 도와주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회사를 살리겠다고 노동자들이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쌍용차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노사관계뿐이 아니라 기술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을 겪어서 불같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하는 만찬에서도 저는 쌍용차는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연구소를 왜 만드느냐고 물었습니

다. 봉급, 토지가 값싸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이 머리로 우수하고 열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세계 초일류 기업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82%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처한 악조건이 있어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지방에 권한을 주는 분권을 하고, 법치를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신속히 중진국의 늪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추석 보름달에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명절 맞아서 좋은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9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개막식

일시 2009년 9월 25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개막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멀리 미국에서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잔 시거먼 미국기능성게임협회회장이 오셨습니다. 주한 뉴질랜드 리처드만 대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 드립니다.

홍보대사님들도 오셨습니다. 김가을 삼성전자 칸 게임단 감독님입니다. 다들 잘 아십니다. 유창혁 9단은 다들 잘 아십니다. 성남에 기원이 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도 프로기사이십니다.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홍보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게임 발전을 위해 큰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제가 수잔 회장님에게 성남시를 경기도에서 가장 부자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잘살고, 활기차고,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소개했습니

다. 성남시의 활기찬 발전과 세계적 도시로 이끌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 오셨습니다. 왕년에 슈퍼스타셨습니다.

이백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도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한국 온라인게임이 세계 제일입니다. 이제 기능성게임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기능성게임이 교육과 결합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군사훈련 등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많은 면과 결합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이미 산업적 기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산업적 기반과 인재가 결합하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세계 최고의 기능성게임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지만 게임산업을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기능성게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멀리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일시 2009년 9월 25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 고려, 신라왕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불과 61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망하고 생겼습니다. 회사도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삼성도 100년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됐습니다. 가정은 국가, 회사보다 생명이 더 깁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났지만 가정, 가족은 못 떠났습니다. 굉장히 강한 생명력과 끈끈한 네트워크,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경기도는 바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물가가 어떤지를 살펴서 여러분을 도와 드리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저는 그 서비스 센터의 머슴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도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해서 경영학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 지도자란 서번트, 머슴으로 잘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 정도 되면 저처럼 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경호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오면 벌써 앞에서부터 체크합니다. 대통령 되시면 굉장히 국민들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 행복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거리를 가깝게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메신저입니다. 여러 의견을 전해 주시고, 소통이 되도록 하는 메신저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시는 덕택에 요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심각한 이야기, 예를 들어 한-EU FTA 등을 해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EU 27개국이 얼마나 양속이 많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가 양속입니다. 이 나라들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했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은 치십니다.

저는 오늘 기능성게임 대회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EU와 가까워지

는 것이 경제·생활·문화 등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대통령이 시장에 와서 떡볶이 드시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 자기와 가까워야 좋아합니다. 아빠도 아무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있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가까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대통령과 시민, 공무원과 주민, 시장님과 시민들을 가깝게 연결해 주시는 좋은 역할을 해 주시는 데에 굉장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셔서 모이시는 기회가 적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자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매우 위대한 활동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양평시장-협성대학 자매결연협약식

---

일시 2009년 9월 28일

협성대 총장님 부총장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많이 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도시로, 서울의 1.5배의 넓이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양평군수님이 최고입니다. 인구는 9만여 명으로 10만이 조금 안 되지만 자연 여건이 최고입니다. 두물머리 등, 녹색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은 있지만 성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녹색성장이 어려운가. 바로 서울·인천·경기에 식수를 공급하시느라 그렇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공급하고 또한 국방 안보를 위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땅에 최고의 자연을 갖고 있기에 성장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최근 녹색성장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기에 양평은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자 협성대 총장님과 학생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해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침 양평시장에 장이 섰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살피는 게 아니라, 유심히 공부해 보고 경제를 알아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협성대와 양평시장이 힘을 합쳐 좋은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좋은 협약식이 이뤄져 기쁩니다.

##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포럼

일시 2009년 9월 29일

경제가 어렵지만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젊은이, 조기 정년 감원되신 분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창업 내지 기업의 추가 확장투자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사회적기업이 공익성과 여러 사회적 필요에 의해 노력하지만, 사실 자리가 좁습니다. 바위 틈새에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습니다. 잘 견디면서 꽃을 피우고 계신데, 악조건 속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매우 탄력성 있게 이끌고 계신 지도자들 덕에 유지됩니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업과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강렬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꽃을 피워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녹색성장 펀드 협약식

일시 2009년 9월 30일

KT가 녹색성장 펀드를 조성하는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녹색성장 부문의 펀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경기도와 손잡고 새로운 발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이석채 회장님, 현대캐피탈, 중기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먼저 앞장서서 영역을 개척하는 정신에 박수 보냅니다.

좋은 펀드 조성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와이브로(WiBro) 사업에서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도내 구석구석 도움을 주신 데도 감사드립니다. 녹색은 있는데 성장이 없는 도내 구석구석까지 도움이 되는 펀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레(olleh)'가 유행인데 '헬로우(hello)'를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성과로 이른바 올레 KT가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 관심과 지원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일시 2009년 10월 5일

추석 연휴 마친 뒤 이렇게 좋은 수도권 경제발전위원회가 마련돼 매우 기쁩니다.

사실 서울·인천·경기는 한 지역입니다. 같은 생활권이고 하나인데, 서울·인천·경기를 합쳐도 넓이가 북경의 70%밖에 안 됩니다. 큰 것 같지만 실제 규모에서 볼 때 수도권이 그리 넓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세훈·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 저는 교통조합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도권 광역 발전을 광역 차원에서 함께합시다.

이렇게 수도권으로서 같이 뛰어 보자는 것은 동경·북경·상해 등 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는 이야기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은 나라가 나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뉘었고, 너무 담장을 높이 튼튼히 쌓다 보면 서로 불편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하나 되어 나아가고, 수도권과 지방도 하나, 남북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통합적이고 통일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도 한두 번 서울이나 인천을 거쳐 경기 북부로 가는데 사실 서울과 인천 거치지 않고는 존립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인천·경기 연구개발원장님, 석학들이 함께 모여 수도권이 북경·동경에 비해 앞서 나가는 선두 주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세훈·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제1회 DMZ 다큐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

일시 2009년 10월 5일

우리의 DMZ는 어느 특정 지역보다 가슴 시리고, 피와 눈물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세계 어떤 곳보다 특별하고,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문헌 철모가 많이 나오는 곳이 DMZ입니다. 16개국 6·25 참전국들 장병들의 철모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깃거리가 문혀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는, 전 세계에 하나뿐인 곳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있지만 경기도의 것도, 강원도에 있지만 강원도 것도 아닙니다. 남한의 것도, 북한의 것도 아닌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동족의 상잔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고심을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큐를 하겠다는 조재현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대로를 놓고 전 세계가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 다큐는 조재현 위원장이 애를 많이 쓰시고 무궁무진하고 앞으로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를 마련했습니다.

윤도현, 이인혜 씨와 김관유 학생도 그래서 함께 오셨습니다. DMZ와 함께 더 훌륭하고 의미 있게 엮어 줄 수 있는 다큐영화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박지성 축구센터 기공식

일시 2009년 10월 6일

우리 수원시장님께서 박지성 선수를 조카처럼 돌봐 주십니다.

일전에 도청으로 우리 박지성 선수와 아버님이 함께 찾아와서 경기도 땅이 제일 좋으니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도내 농업 등 중요한 일도 많지만 저는 박 선수의 세계적 활약과 도민 모두의 건강을 생각할 때 마음은 그냥 다 드리고 싶지만 최선을 다해 저렴하고 좋은 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이 땅이 선수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좋은 조건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여기 인근에는 많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 주셔서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좁은 나라라 하지만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민에게 기쁨을 드리는 박 선수의 역할을 생각하

면 얼마든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축구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박 선수와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은 박 선수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꿈이 있으며, 자신만 아니라 후배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량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박지성 선수야말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원시민, 경기도민, 우리 국민 모두가 열렬히 팬이 돼 끝까지 응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 기능경기대회 경기도선수단 해단식

일시 2009년 10월 6일

우리 국제기능경기대회의 메달리스트 대해선 병역특례 혜택을 다른 예능·체능과 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능인들의 덕입니다.

앞으로도 기능인들이 더욱 열심히 맡은 기술을 발전시켜 최고의 기능강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으로 병역 혜택이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기능인에 대해 병역 혜택을 제외시킬 계획을 갖게 된 것은 기능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한국의 산업, 한국의 미래가 바로 기능인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병역특례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있고난 뒤부터 제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

민국이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오직 이 '기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도 땅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선, 핸드폰 등이 발전한 것은 기능인들의 피와 땀과 손재주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기능이 세계 최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능인들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주택 배정에서도 우대권을 받고 병역에서도 특례 혜택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능에 대해 마이스터, 기능학교,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학력 인정 학교가 많습니다.

기능은 세계 보편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16회 연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기능인들의 실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기능인이 만든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걸 입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기능경기대회 성적입니다.

##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 경기노인큰잔치

일시 2009년 10월 7일

이존하 회장님, 그리고 경기도노인회 임원 여러분, 각 지회 회장님, 어르신 여러분, 노인의 날을 맞이해 큰 잔치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신종플루에 안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 경기도 어르신 중 신종플루에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 어르신들께서는 특별히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회의 가장 스승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존하 회장님 말씀 들어 보니 행사 규모를 1,000명 이하로 하라고 해서 일부러 적게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 좋은 것을 다 하십니다. 좋은 구경 못하시고 다른 곳에 계시는 어르신

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즐겁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축하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도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진중설 의장님, 황선희 보건복지위원장님 등 많은 도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 존경하는 뜻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보내 드립니다.

경기도 복지재단에서도 서상목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어르신 복지 문제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한 스님께서 복지재단 대표인데 오셔서 여러 가지로 경기도 노인복지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농협본부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자녀 취업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빨리 좋아졌는가, 어르신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 해방시키고, 남북 분단이 되고, 6·25전쟁이 났지만, 공산 침략으로 지켜 주셨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피, 땀, 눈물로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전쟁을 이겨 내고, 가난을 이겨 내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정신을 이어받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잣더미 위에서 빛나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이 어르신들께서 만드신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중국보다 잘사는 역사는 지금 40년밖에 없습니다.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신 분이 이 자리의 어르신들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맨주먹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오직 피를 흘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땀을 흘리고, 가정·이웃이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잣더미 위에서 기적을 일으킨 가르침이 대한민국의 교과서입니다. 바로 이 자리의 어르신들의 살아온 발자취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교과서고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 등 여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워 마시고, 힘들어 마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어르신들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외로움이 있더라도 이겨 내시고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통일 국가로 발전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한·중 해저터널 국제세미나

일시 2009년 10월 8일

그동안 연구가 진척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더욱 구체적 연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원장님의 발제물을 보니 전보다 진도가 더 나아가고, 구체적인 검토가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님이 전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영·불 해저터널도 타 보고, 그 주변도 봤습니다.

영국과 불란서, 전쟁도 하고 양속 관계인데 터널 개통 후 프랑스 북부 릴리 지역에서 런던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릴리가 낙후 지역인데 발전하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영·불 해저터널도 나폴레옹이 제안한 후 190년이 지나고 완공됩니다. 양국의 국민정서 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양국의 페리 업체, 특히 항구를 중심으로 한 업체가 타격을 받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190년 이상에 걸쳐 실현된 것을 보면서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국내 터널 뚫듯이 역량, 경제적 타당성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밀접한 관계입니다. DMZ에는 6중 철조망이 있습니다. 사실 한중 간의 터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양국 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꿈과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희망 등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이 되는 과정은 아무리 자주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런 국제 세미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만, 서해안 지역에 좋은 해안선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대간첩 작전의 최전방으로 인식돼, 바다로 나가는 것은 어민들 외에는 상당히 통제된 세월을 50년 이상 살았습니다.

지금 전곡항을 중심으로 보트, 요트 부분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서해안에는 철조망도 많고 통제가 많습니다. 이런 제약을 넘어서 중국까지, 1시간여 만에 산둥성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꿈은 꾸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제약 조건이 많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데 한중 해저터널,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전체, 황해 전체가 지중해보다 좋은 대해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류가 있는 중요한 바

다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고 발전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북한과도 가깝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황해 일대 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성장, 개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놀라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황해를 끼고 있는 뛰어난 도시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인천, 평택 등 여러 곳이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훌륭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과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님, 중국 산둥성에서 오신 연구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래, 대륙을 향한 꿈, 막힌 바다를 열어 세계로 나아가는 기상과 진취적 미래를 함께 꿀 수 있는 주제로, 한중 해저터널은 관심이 많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향한 꿈, 중국과 일본과 함께 교류하며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중일의 중심에 놓인 대한민국의 모든 역할이, 국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도 좋은 발표가 있길 기대합니다.

---

## 북부기우회

---

일시 2009년 10월 9일

오늘 시장, 군수님들 다 오셨습니다.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시장님, 연천군수님 등 다 오셨습니다.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지도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임진강 방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북한에서 잘못해 방류를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류하면서 통보만 해 줘도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방류하고, 그것을 조기에 알게 돼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에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직원만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선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에 연천군에서 무슨 책임이 있고, 국가하천에 대해 연천군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서 오직 연천군청의 직원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까. 제대로 책임의 소재가 가려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대강 정비 등을 한다고 하지만 임진강을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 안 됩니다.

경기 북부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대접을 안 해 주고, 억울함이 있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취급을 안 합니다. 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다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시군의 도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전쟁에 죽고 피해를 많이 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려니 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려니 하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임진강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도 주요 의제로 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북한에 강력히 말을 해야 하고 실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에

서 연천군에 책임을 지우려면 권한도 주고, 예산도 줘야 합니다.

권한, 예산 안 주고 사람 죽으면 덮어씌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국가의 정당성과 정의로움, 공정함이 국가의 최대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다.

힘든, 어려운 것은 밑에다 씌우면 국가의 정당성, 리더십이 발휘될 것입니다. 저도 도지사로서 군수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말단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소방은 99% 도에서 합니다. 국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방이 즉각적으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 그 점에서 경보시스템이 있을 때 경보가 바로 울리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군에서 여러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국가하천이라 안 돼 있는 점을 우리 소방에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의 협조와 국가의 도움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토부, 군, 시, 도가 일사불란하게 해서 칸막이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허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연천군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입니까. 이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의 책임을 느

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 북부 소외된 지역,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잘 풀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이야기하지만 경기 북부보다 더 위험한 곳이 없고,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권이라고 묶어 놓긴 했지만 무슨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예산 특별집행 과정을 보니 형편없습니다. 진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연천에 555억의 선사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이미 402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비 362억과 국비 192억을 가지고 도립선사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후반기 내에 완공됩니다. 세계에서 이 박물관 자체가 최고가 되도록 짓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의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 박물관 하는 데에 300~400억 하는데, 이것은 500억이 듭니다. 道로서도 무리를 했습니다. 인구도 없는데 짓는가 하는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얼마나 훌륭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지, 인류의 발자취가 얼마나 생생히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드높이는 데 선사박물관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께서 발굴 과정, 박물관 운영 과정에도 지원을 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해서 시 통합이 논의되는 곳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道에서도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뿌리를 찾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됐으니 바뀌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곳은 뿌리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뿌리인데 흩어져서 살다 다시 한 번 합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연고·뿌리·역사·생활권을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됐으니 바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점을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말고 통합을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고 통합이 되지도 않습니다.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모든 대표자를 뽑는 데도 주민투표를 하는데 한 시의 존폐가 걸린 문제를 투표도 안 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대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시의 존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가면 빠른 것 같지만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아시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의 합의와 합의를 허용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올바르고 향후에도 좋습니다.

저는 통합의 명분, 뿌리 찾기는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

은 점도 많다고 봅니다. 통합할 역사적 뿌리가 있고, 생활권에 공통점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경기도 19개 시군이 통합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 갈등이 일어나든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같이 살 것인데 맘 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통합 이후에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통합이 돼야 합니다.

저도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에도 그랬습니다. 경기도에 다른 것 다 빼고 이야기한다면 경기 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부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총력을 집중해 경기 북부의 도로, 철도를 위해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경기도 쌍용차도우미 발대식

---

일시 2009년 10월 12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쌍용차는 그간 세계적 관심 속에서 파업을 하며 모든 국민의 애를 태웠습니다. 절망이 있었지만, 오늘 희망을 만들고 기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였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회사가 죽든 말든 모르겠다며 새총을 쏘고 병을 던졌지만, 이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회사를 살리겠냐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자동차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쌍용차보다 더 작은 자동차회사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에선 쌍용차 그거 잘되겠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뜻만 강하다면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쌍용차를 탑니다. 하루 300km 달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두 쌍용차 체어맨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지닌 쌍용차입니다. 그간은 스스로 차를 부수기도 하며 쌍용차를 버리셨습니다. 부모가 버린 자식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살려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인의 손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노동자들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던지고 파업하는 게 문제이지, 그것만 해결된다면 분명 쌍용차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겠다고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노총을 탈퇴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노조를 해 봤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살려고 결단 내리셨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면 누가 돕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우려고 구매를 하시겠습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물건 잘 팔면 결국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좋은 기술자 많으시고, 부채가 있어도 회사만 잘 돌아간다면 투자는 얼마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살릴 생각이 최우선 된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쌍용차의 도약이 다각적 방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훌륭하게 이겨 내면서 잘 이끌어 오신 이유일 회장님, 박영태 사장님,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4,500여 근로자들이 세계인들에게 쌍용차의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2009 화랑훈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일시 2009년 10월 13일

오늘 이렇게 제가 도지사 되고 난 후 별이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임관빈 수도군단장님과 일선 안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군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화랑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해 16일까지 합니다. 바쁘심에도 오늘 도청을 방문해 주셨는데 특별히 환영합니다. 진중설 의장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등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더운 8월에 시작했던 을지연습에서 많이 도움 주시고, 군에서 장비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도민들이 직접 도청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청을 방문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군 장비, 병기, 탱크, 비행 장비 등을 보면서 든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의 훈련이 보다 더 실감 있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는 최전방 DMZ가 있고, 육·해·공, 해병, 미군 등 대한민국 주둔 병력의 절반 이상, 미군은 90% 이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최일선, 최전방에 우리 도가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특히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는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통합 방위, 안보 대책을 강화하려고 도에서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선에서 현역으로 계시는 임관빈 수도군단장님을 비롯한 일선 군지휘관들께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군이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방력을 높이는 점이 무엇이나는 점에서 많은 군사규제 해제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51사단장님도 국제보트쇼 등에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병2사단장님, 육군55사단장님, 공군10전투비행단장님 등 감사드립니다. 합참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역과 달리 최전방 지역이면서 최고 요충지입니다. 역대 전사(戰史)를 봐도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이 쪽이 함락되면 당시 선조가 피신할 수밖에 없고, 병자호란 때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취약한 안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목숨, 재산을 잃게 되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흔적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역사, 국가가 있는 한 경기도가 국가안보의 최일선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년은 특별히 6·25 전쟁 60주년입니다. 16개국 참전국가중 15개 참전 기념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DMZ도 경기도에 있는 DMZ가 강원도 이상으로 철모, 유골 등이 가장 많이 나오고, 긴장된 지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최근 정세와 비추어 도민들이 안보 일선에서 안보 의식을 가지고 군 당국에 협조하면서 직접 협력,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6·25 전쟁 6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통성이 무엇인가, 역사적 정통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등 문제를 알아보면 북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하는 등 국제적인 정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보 부분에 대해 소홀함이 많습니다. 오늘 핵심적 내용은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져야지만, 각 분야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복무하고 있지 않지만, 민관이 통합해서 안보 방위 태세를 갖

추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기회로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님, 군 최고 지휘자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특수 상황을 생각하시고, 군에서도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관에 요청하시고, 우리도 군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관군이 일치해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군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한국전자산업대전

일시 2009년 10월 13일

전자산업대전을 준비해 주신 윤중용 회장님 등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라고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삼성, LG 등 여러 전자 관련된 모든 제품이 호텔에 있습니다. 아마 삼성, LG 제품이 있는 곳은 일류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미국 맨해튼의 아무리 좋은 호텔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인터넷 강국입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자, IT 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갈 때

마다 내가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도와 드려야 더 많이, 높이, 오래 명성을 유지하고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개척하실 수 있나 하는 점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달려가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이닉스 등은 말이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R&D 부분에서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연구 많이 하십니다. 생산 과정 또는 여러 가지 판매, 수출 부분 등에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장관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도 작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치단체장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원래 기업,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시고,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국회에서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강력하고 확실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뜻에서 전자, IT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박수 한 번 크게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뉴타운 기공식

일시 2009년 10월 14일

소사의 여러분들을 뵈니 정말 기쁩니다. 저도 아직 집이 소사구 한신아파트 그대로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게 살 좀 써야 하는데 더 빠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늘 다듬고, 여러 가지로 도와서 잘 부려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소사구에서 뉴타운 기공식을 하게 됐는데 따스한 햇볕이 여러분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소사구 주민, 부천시민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라도 잊지 않고, 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보여 주신 무한한 어머니 같은 사

량을 명심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치, 무한한 사랑을 보답하는 정치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여러분을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차명진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 시장님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늘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홍건표 시장님과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오늘 도의회 진중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천 출신의 도의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늘 저를 위해 많이 밀어 주시고, 부천 소사구가 특별히 뉴타운 될 수 있게 밀어 주신 데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부천시 한윤석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부천 시의회 의원님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의원으로 일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뉴타운이 많지만 소사 뉴타운을 국토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주신 주택정비과장님께서 장관님 대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사 뉴타운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수십 번에 걸쳐 소사구 곳곳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역사를 기억

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훈훈한 정성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어울리게 되고 실개천이 아름답게 흐르는 정든 고향 소사구, 인정이 흐르고 훈훈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혼을 바쳐 계획해 주신 총괄계획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장님도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사구민 여러분, 뉴타운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소사구에 정들어 살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쫓겨나서 뿌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소사 사람들이 소사 뉴타운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사시는 분과 세입자 모두가, 최대한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된 소사구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든 소사를 떠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사 뉴타운에 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평택을 거쳐 당진, 서산으로 내려가서 전라도까지 가는 서해선 철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원미구를 지나서 오정구를 지나 고양,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사통팔달되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도와 시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GTX, 200km로 달리는 최첨단 철도가 오정구로 지나갈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부천이 모든 철도, 교통이 다 연결되고 김포공항이 가까운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범박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북한도 저렇게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차명진 국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과 늘 이것 하나는 고쳐 보자고 말을 합니다. 이번 12월 중으로 정비구역으로 고시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 내어놓아도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16년에 걸쳐서 저를 부모처럼 사랑해 주시고, 형님, 누님,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부족한 사람을 정성을 들여 가꾸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 인간을 사랑하는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뽑아 주신 공직자들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늘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살고 있는 부천 소사 뉴타운이 빨리, 여러분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능성게임 G러닝 시범학교 참관

일시 2009년 10월 16일

장평초등학교는 지난번에도 왔습니다. 이번에 6개월 만에 왔는데, 그동안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장평초등학교에 왔을 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올 때부터 감동적입니다.

교장선생님도 훌륭하시고, 학생들이 57명밖에 없다는 자체가 감동입니다. 800명에서 57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가치를 잇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평초등학교는 열두 분의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 사이에 온전한, 가족·형제와 같은 전인적 완전 일체화가 될 수 있는 탁월한 교육 환경입니다.

게임이 없어도 가장 훌륭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서로가 전인적으

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교학이 되는, 정말 모범적인 배움의 터이자 가르침의 터입니다. 이런 훌륭한 학교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선생님들 힘드신 점 많으실 텐데 그런 점은 용인시장님이 다 도와 주실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확실하게 도와 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제일 좋은 조건에서 최첨단의 G러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2009 DMZ DOCS<sup>2)</sup> 평화장정 발대식

일시 2009년 10월 19일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세 분이 오시고, 팔레스타인 여러 곳에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미얀마에서 여러 학생이 참가하셨습니다.

DMZ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 아시죠? 경기도에 있는 것 아시죠? 경기도에 있지만 경기도 것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DMZ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것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평화를 꿈꾸고, 앞으로 어려움을 딛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DMZ에는 평화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

2) 2009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곳이 DMZ입니다. DMZ는 그냥 땅이 아니라 보배고, 생명이 살고, 전쟁의 아픔과 철포, 죽은 군인들의 뼈가 묻혀있는 아픈 상처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뼈, 상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생명, 녹색, 평화와 모든 국민, 세계인들의 자유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DMZ를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DMZ를 사랑하고, DMZ를 더 평화로운 곳, 풍성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민은행 행장님, 경기도의회 이백래 위원장님, 조재현 경기도영상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DMZ를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생명이 더 활짝 피는 DMZ로 보존하고 가꾸어 나갑시다.

## 20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일시 2009년 10월 19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신 277개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를 공무원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살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공무원은 희망근로밖에 못 만들지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창업을 하셔서 많은 실패도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시고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국부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 꿈을 실현해 나가시고, 국위 선양을 하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잘할까 연구합니다. 저희는 책상에 앉아서는 여러분을 돕기 힘들다고 생각해 현장으로 나가고, 간담회를 하는 등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만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말씀 주시면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연락하면 바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119 소방처럼 하려고 합니다. 소방은 바로 찾아오고 합니다. 경기도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바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몸을 낮춰 겸손하게 섬기고,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윈스톱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 한 명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환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하듯이, 저희도 경기도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동섭 중소기업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도와 드리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금융, 기술, 자금, 교육, 각종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증서를 통해 신용도를 더 높이고,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개소식

일시 2009년 10월 26일

심동섭 중기청장님, 입주기업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경기대 일대는 광고신도시의 한가운데입니다. 경기도의 계획은 광고신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녹지율도 42%로 전국 최고이지만 특히 대학도 아주대·경기대처럼 좋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입니다.

또한 아주대~광고테크노벨리~경기대로 이어지는 녹지축 그린웨이와 R&D 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녹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재가 많고 훌륭한 대학이 존재하고, 연구원 2만 명의 세계 최대 단일연구소인 삼성연구소가 위치해 공부하기 가장 좋고, 주거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쉬기 가장 좋은 신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경기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R&D 도시로 만들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최호준 총장님, 예산도 여의치 않을 텐데 22억 5천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훌륭한 보육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더욱 두뇌를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뇌를 대학이 보충해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기는 죽을 지경의 수준입니다. 무엇이 그리 어려운지, 절차가 너무 쪼개져 있어 부지, 금융, 인허가 등 창업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곳 창업센터에 오시면 바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창업하는 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학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어 초기부터 산학이 한 몸이 되어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곳이 바로 창업보육센터 이곳인 듯합니다. 통계도 보니 평균 30% 창업 성공률에 비해 이곳 창업센터에선 70%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창업자들에게 이곳이 창업의 모태와 같고 아늑한 어머니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거금을 들여 좋은 창업보육센터를 지어 주셔서 총장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억 원 밖에 지원을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는 보육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체전 8연패 환영식

일시 2009년 10월 27일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메달만 무려 140개를 따 주셨고 8년 연속 1등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9연패 틀림없죠?

제가 이렇게 1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포츠 강국이 아니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체육교사로서,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중심이 돼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의 목표가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훈련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 주셔야 국민들에게 희망과 건강의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1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덕에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산소 같은 존재이고 국민 행복의 길잡이이십니다.

내년 9연패 외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 수출농업 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09년 10월 28일

경기도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래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러시아 등 세계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상해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현지인들을 적극 활용해 직접적으로 판매 촉진에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자매도시도 곳곳에 많습니다. 경기도의 기존 모든 해외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 서로의 분야에 대해선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농림재단 등도 함께 협력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따로 공업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공업 등 다른 수출 분야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사업지원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수출을 원하는 기업인들 교육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 분야는 출장 교육, 해외 판촉 프로그램 등 많은데 이를 그대로 활용해 농업 분야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G마크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알리기 위해 영문 안내문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매체들을 활용해 경기도 농산물을 알리는 데 영어 번역본 홍보자료를 널리 보급하는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

## 2009 경기도 품질경영 추진성과 발표회

---

일시 2009년 10월 29일

최갑홍 한국표준협회회장님, 경기 지역의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을 모시고 품질경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또 일품공원 조성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크지 않은 나라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은 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바로 옆에 있어 양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질로는 세계 1등입니다. 삼성, LG, 제철, 조선 등 많은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이 제조, IT 부분에서 세계 1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품질 명장님, 교수님 등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십니다. 현장에서 오신 각 명장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품질 명성이 있습니다.

품질분임조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더 대한민국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저도 사실 공장에서 있을 때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머리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공정, 품질을 개선하고, 불량을 줄이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를 품질분임조에서 힘을 합쳐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를 품질 개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다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위해 지혜를 짜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세계 제일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는 여러분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품질경연대회에서 6연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7연패를 할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에 대부분의 기업, 연구소, 우수한 여러분이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7연패를 위해 박수 보냅니다.

저는 일품공원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지원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일품공원을 그대로 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없어 다 깎는다고 하는데, 품질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해도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금 등이 다 줄어서 안 깎는다는 것은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형편이 되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사업에, 도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효과적이고, 더 품질이 개선되고, 반대급부가 더 커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활동, 어떤 곳에 세금을 쓰는 것보다 품질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희망과 살 길을 찾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진중설 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중설 의장님이 품질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보내 드립니다.

## 경기창작센터 개관식

일시 2009년 10월 29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클레이튼 캠벨 (경기창작센터) 국제자문위원장께서 미국에서 오셨고, 마리오 카로 (레즈 아티스<sup>3)</sup>) 회장님 등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박수 보내 드립니다. 김홍희 관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와 보니 활기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훌륭한 작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 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유지고, 넓은 땅과 좋은 시설이 무궁무진한데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까 늘 걱정인데, 제대로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Res Artis :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이 자리의 작가 여러분께서 일단 편안하셔야 합니다. 경기창작센터가 예술적 영감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여러분을 도와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감도, 대부도 주민 여러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예술가, 관계자들이 대부도, 선감도 오시면서 편안하고, 모든 면에서 예술활동 하시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안산시 공무원들도 특별히 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혹시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 주시면 뒷받침하겠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 작가 여러분의 창작, 도전정신에 감사드리며 훌륭한 영감, 작품을 이곳에서 많이 창조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HRD 연합학술대회

일시 2009년 10월 30일

제가 와서 스티븐 프로리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영어도 잘 모르고, 전문용어, 정보에 대해 이해를 전부는 못했지만, 수준 높은 기초강연을 들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HRD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최종대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훌륭한 강의, 토의를 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하니 설치하지 말라고 소송도 걸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니 한쪽에선 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도에서 하냐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 문제도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이곳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합니다. 교육단지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교육하러 온다고 하면 쉬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켰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합

니다.

교육은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하니 효과가 바로 납니다. GTX 등은 하자고 하니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철도 등은 10년씩 걸리고, 도로도 큰 것은 그 정도 걸립니다.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만족도도 1등입니다. 경로당 등을 가면 화투만 치는데 노래, 댄스, 붓글씨 등 가르쳐 드리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께서 삶을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전에는 가면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공부를 하고 나신 다음부터는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점에서 배움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단순히 일방적 강의식이 아닌 참여하면서 스스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HRD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널리 확산이 돼서 글로벌하게 가는 기업 수준으로 바로 갈 순 없지만, 최소한 기업이 하는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공공서비스가 굉장히 달라지고 모든 국민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HRD 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자활공동체 경영자대회 축사

일시 2009년 10월 30일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물건들을 봤는데 아주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잘 만드셨고, 맛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매혹적으로 손님을 끌고 계시는 여러분의 탁월한 생산 능력, 판매 역량, 미소 서비스가 있고, 모든 이들에게 늘 꿈과 희망을 주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늘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곳곳이 철학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십니다. 단순히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시면서 이제는 조직, 기업, 경영인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정근 회장님에게 늘 어려운 점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요새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황선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고교 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고향의 부모님을 편하게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대학을 나옵니다. 작년까지 89%가 대학을 가는데 다 대학을 나오고도 백수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하는데 왜 백수 천지가 됩니까.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들은 취업박람회 온 그 누구보다 약조건입니다. 평균소득이 1인당 83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못 살죠? 그런데 잘살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아플 때는 어디, 일자리는 어디 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꿈꾸는 것은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돌봄도 해 보니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다. 정말 어려운 분은 조건 따지지 않고 도와 드립니다. 아직 돈이 남았습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안 간 것도 있습니다.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리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남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훌륭해지는가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며, 부지런히 일을 하며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십니다. 83만원을 다른 사람의 200만원보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깨진 사발, 버려진 꽃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학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처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하십니다. 머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조직가로 일을 하시고, 모여서 더 좋은 미래, 인간관계를 위해 애써 주십니다.

이런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 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못 오신 분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이끄시는 지도자가 되셔서, 이 경영 자체가 더 성공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활공동체가 되도록 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땀방울과 눈물이 적혀진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일시 2009년 11월 2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입법권도 없고 법령 해석권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일을 많이 접수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기업이나 서민 생활 속에서,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답답하지만 평소 알지 못하던 규정과 제약,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극적, 안전 위주여서 국민들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애로를 겪던 차에 국민권익위에서 좋은 체결식 기회를 주서

서,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중앙과 함께 풀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권익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기업의 타는 가슴보다 공무원들 자기 몸보신 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관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민후관(先民後官)의 자세로, 평소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위원장님, 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더 큼니다. 원진우드, 대광다이캐스트 등 여러 기업 애로 케이스를 해결하는 데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권익 위가 통쾌하게 국민들의 타들어 가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는 진정한 신문고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소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무한돌봄 민간참여협약식

일시 2009년 11월 3일

돈이 없는데 도와 달라 찾아오면 여기저기로 연락해 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복지부에 가 보시라, 밥이 부족하면 어디로 전화해 보시라, 공부를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 연락해 보시라, 우리 이런 식으로 벽을 쌓고 미루지 맙시다.

누구든 먼저 보는 사람이 이들을 돌보자는 게 무한돌봄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무한돌봄을 제안하면서 경기도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복지예산을 총 30조 원 쓰는데, 이런 도움에 대해 감사하다는 이보다는 별로, 텅텅해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도와 칸막이와 한계 때문에 인간 사이의 벽이 쳐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사이의 벽을 깨지 않고는 복지란 없습니다.

복지는 돈이 아닙니다. 복지는 사랑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지만 돈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만으로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절대 복지가 안 됩니다. 다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비와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는 종교와도 함께해야 합니다.

공무원, 돈, 제도, 권한 그것과 민간의 종교단체, 그리고 오늘처럼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도 도우려고 하는 곳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전에서 요금을 내라 할 때 지로용지에 '당신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전화해 보라'고 한마디만 써 준다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 하나가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사랑을 실천하시는 인순이, 최불암 씨도 나눔을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단순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술과 사랑이 함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벽들을 다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벽을 다 깨자는 것입니다. 무한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우리 무한돌봄의 본뜻이 아닌가 합니다.

무한돌봄 사업을 무한히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힘만으로, 시장·군수·도지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지 지도자들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네트워크와 사랑으로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모두들 받아 보는 가스·전기요금 지로용지에도 그 내용을 알리고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협에서 쌀도 주셨고 축산협회에서 돼지고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나누자. 여기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만나는 경기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 뿐 아니라 가장 인간미가 있는 경기도,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고 많이 나누는 경기도, 서로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우리 도시 우리 경기도, 나아가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경기도가 되고자 합니다.

약조건 속에서 무한돌봄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일선 동사무소 공직자 분들부터 무한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마음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싹이 트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무한돌봄이 됐으면 합니다.

##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일시 2009년 11월 3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풍년이 오히려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우, 돼지, 쌀 등 각 부문별로 모두 애쓰셨습니다.

농업이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농촌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이 세계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옮겨 오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짜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선 농업 관련 수출과 기술 발전, 농업을 소농이 아닌 기업농·협동농·대농으로 발전시키 나가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새로운 농업, 중국처럼 제조업이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농산품·축산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선 최고급품으로 사 먹고 있고, 그 농업브랜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은 워낙 깨끗하고 품질이 좋고, 외국인들도 요즘엔 젓가락질 잘 못하면 스스로 창피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식 보급이 많이 됐고, 일식 중식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한식의 발전으로 젓가락 문화도 서양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김치, 고기, 막걸리, 포도 등 경기도 생산품이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몸에 좋고 믿을 수 있기에 비싸더라도 우리 것을 사 먹는 시대입니다. 식품 가공품, 인삼 등 특산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 핸드폰, 삼성·LG 핸드폰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모지에서 불과 오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낸 것처럼 농산품에서도 최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가 아주 잘 팔리고, 파주 가막산 머루주, 안성·화성 포도주, 가평 대통주 등 여러 특산품, 농업 생산품이 식탁을 품격 높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면서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양주나 맥주를 마시겠습니까. 인삼주, 머루주, 막걸리, 소주, 전부 우리 특산품을 찾습니다. 이런 특산품이 세계 제일의 것으로 돼 가고 있고, 이를 내놓으면 외국인 누구나 아주 만족해하는데, 우리 농업인의 땀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농수축산품의 안전과 품격을 높이는 데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FTA로 큰일 났다고들 하는데, 큰일 났기 때문에 더 크게

노력해 우리가 이제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칠레 FTA로 칠레에 포도를 팔고, 어떤 FTA가 되더라도 우리 농업이 다 뺏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는 김치는 발효를 시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고 있고, 각국 나라 입맛에 맞는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농업 또한 망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마음먹으면 끝내 해내고, 인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품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일등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니 논을 갈아엎는 일은 이제 안 됩니다. UN 사무총장도 한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들 성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250만 교민들이 아주 잘살고 있고, 일본·중국 어디서든 한국인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 농산품으로, 그것도 고급품으로 뒤덮을 수 있는 힘이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농축수산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농사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고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농업 역시 세계 일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노고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 경기농협 원로청년회 게이트볼 대회

일시 2009년 11월 4일

제가 여러 대회를 많이 다녀 봤는데 오늘 경기농협 원로청년회 게이트볼 대회를 보니 이렇게 정정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흐트러짐 없이 계신 분들은 경기도 최고가 원로청년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전국체전 결단식 등을 한다고 하면 몸을 비틀고 합니다. 학교에도 강의를 가 보면 젊은이들이 전부 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청년회는 건강이 받쳐 주시고, 관절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정신력이 강하십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한 젊은이들도 정신이 흔들하면 몸이 흔들합니다.

이 자리의 어르신들은 정신, 몸이 다 깨끗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종플루 위험이 있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내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청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장이 강연하셨습니다.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산림녹화를 잘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의 여러분이 놀라운 산림녹화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제 중국 광둥성 서기가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 내리자마자 분당 새마을연수원에 들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기는 내리자마자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새마을을 누가 성공시키셨는가. 이 자리의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훌륭한 업적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농협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을 곳곳이 세우고, 이끌고, 뒷받침해 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신용, 경제, 문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원로청년회 분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로청년회 여러분들께서 신종플루, 경제 어려움 등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위에 어려운 분 계시면 경기도, 각 시군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란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축하합니다.

---

##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식

---

일시 2009년 11월 4일

괜찮습니까? 저는 조금 더 건물이 높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높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과보고에서 빠졌는데 이 땅이 국유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장관님을 대신해 오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국가의 땅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신 데 큰 박수 드립니다.

송명호 평택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린센터 준공까지 진중설 경기도의회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이 설계, 예산 등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관련기관 단체장들께서 입주하셨습니다. 사실 환경이 열

악한 평택항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교통, 시설 등이 불리한 가운데 평택항을 일궈 나가시는 데 애써 주신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관계기관 기관장, 임직원 여러분께서 평택항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해운항만에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이 더욱 노력해 훌륭하게 항만 발전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택항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아시아의 유일한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평택항입니다. 중국 여객, 물류가 많이 옵니다.

미군이 동북아에서 가장 많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미국학교만 18개가 들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보통 1년 근무하는데 앞으로 3년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학교가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평택은 우리 미래의 중심입니다. 중국, 미국, 세계 각국이 만나는 곳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항구에 철도가 없습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는데 돌아가셔서 철도가 더 빨리 연결되도록 애써 주실 것입니다. 속도가 조금 늦는데 빨리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체증이 심합니다. 앞으로 낙후되었던 서해안 지역에 국토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길 기원합니다.

평택항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충남 일원에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평택항에서 세계 모든 사람, 물류, 자본, 문화, 기술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진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평택항을 중심으로 갈등이 있었던 곳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구가 넉넉하게 모든 다양한 문물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미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웅장한 대한민국의 기상이 이곳에서 마음껏 발전하는 데 마린센터가 하나의 기념탑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건국대 유치 협약식

일시 2009년 11월 5일

언론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잘 보도해 달라고 박수 보내 드립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로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김경희 이사장님은 건국대를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으로 만든 일등 공신으로 건대 방문 시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명 총장님은 부총리 등 관계, 언론계의 여러 자리를 거치시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신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제가 평소에 존경한 석학이고, 대선배이십니다. 이사장님도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총장님도 그런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건국대학교 클러스터를 의정부에 만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문원 시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훌륭하게 성사시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수도라고 하지만 4년제 대학이 없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쪽이 다 없습니다.

경기 북부 일대에 건국대가 훌륭한 캠퍼스를 만드는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이사장님과 오명 총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순히 의정부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큰 빛과 희망을 주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국대가 빨리 의정부 캠퍼스를 만들어서 북부 지역 학생들이 4년제 대학 갈 곳이 없어서 전국으로 유학을 나가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사장님과 총장님, 학교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 G-창업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회

일시 2009년 11월 6일

우수한 창업 활동을 해 주시고, 독특한 창의정신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주시고, 성공 사례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서울대 대학원 과정 등이 함께 해 주시는 융합기술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녀 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앞선 훌륭한 나라가 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좋고, 손재주가 좋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은 세계적입니다.

외국인들이 말하길, 당신네 나라는 매일 북핵 이야기가 CNN 뉴스에 나오는 등 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상품을 잘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도 좁아 기업인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 창업자 분들이 좋은 상품 개발에 앞장서 주시고, 전문가 분들이 첨단기술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창업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두뇌와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의 성과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친환경주택 그린투모로우 개관식

일시 2009년 11월 9일

그린투모로우(Green Tomorrow)<sup>4)</sup>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개관식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를 맡고 보니 사방에서 집을 짓는데, 도시 만들고 하는데 한마디로 난개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것을 보니 창원, 안산은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먹고살 산업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일치합니다.

분당, 일산은 잘 지었다고 하지만 베드타운입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보금자리는 너무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난개발 상태로 가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미래형 친환경 시범주택. 실제 적용 가능한 68가지 친환경기술이 도입돼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음.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건축물과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히 현대건설 회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건설 전문가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1,000~5,000년이 남을 훌륭한 도시와 건축물을 많이 짓는 것이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자연 속에 도시, 건축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을 존중하는 건축물이고, 셋째로 도시의 역사, 문화, 예술이 조화롭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 채 지어라 하는 식으로 지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획일적, 천편일률적 회색도시를 늘어놓는 것은 곤란합니다. 헬기를 타고 경기도 전역을 내려다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당대를 산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늘 역사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오늘 삼성이 그린투모로우를 하는데 아직 안 봤지만 획기적이고, 질적인 대전환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차관님도 오셨으니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확실히 뒷받침을 해서 이런 좋은 시도가 우리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 어떤 곳보다 더 빨리 기억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상공인 창업세미나

일시 2009년 11월 9일

잘하면 성공이지만, 못하면 그나마 더 어려운 처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모한 창업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창업을 성공하실 수 있고, 기왕에 하시는데 성공 확률을 높여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자리가 오늘 교육, 세미나 자리입니다.

여러분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딜 가서 물으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네에 아주 잘하는 집에 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경쟁자 나타난다고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 드셔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기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님이 오늘 이 세미나를 주 최해 주셨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자금도 도와 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드릴 중소기업청장님도 오셨습니다. 또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올해는 포장마차까지 도와 드릴 계획입니다.

이 모든 자금 부분에 대해, 박해진 이사장님 등 여러분이 자금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창업하는 분들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지원받아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저도 매일 보는데 복잡합니다. 창구,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역별로 다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고, 한꺼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가면 도움 받을 수 있겠나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하게 도와 드립니다.

또 직접적으로 돈, 기술을 바로 지원해 드리지 못해도 경기도 모든 단체가 여러분을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 책자도 요즘 본 것 중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업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벌리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기간이 어느 정도고,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받는다고 다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 집니다. 가급적이면 편하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좋은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부끄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분야가 다 달라서 한 사람이 다 알 순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제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오셔서 늘 상담하시고,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 성공을 돕고 싶습니다. 하시다가도 정말 힘들다 하면 어떤 경우에는 팔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용을 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여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데 오늘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의 핵심은, 그 누구도 여러분 운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창업은 사장, 노조, 근로자, 기술자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사장이고 노조위원장이고, 기술자고, 알파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실 때까지 챙기는 무한 책임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모두 큰 성공 거두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일시 2009년 11월 10일

한화도시개발에서 직접 나서서 바이오밸리를 개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산업단지 조성은 피하려 합니다. 산업단지 만들어 남는 것이 없다고 토지공사, 주택공사들도 안 하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화도시개발에서 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기도와 화성이 적극 돕겠습니다.

이번에 꼭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는 기업도 잘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한 번 참여하면, 주위에서 무조건 분양가 낮춰 달라고 하고 남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럴 바에야 고층아파트 짓는 게 훨씬 낫다는 게 기업들 입장입니다. 공공조차 하려고 안 하는데 민간은 어떻겠습니까.

바이오 의약 분야는 정부에서 각종 규정과 인센티브를 내세워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자율적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으로 내려 보

냈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바이오밸리 조성을 맡아 주신 한화도시개발에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기업에서 줄을 지어 지방으로 가십니다. 저는 지방으로 가시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꼭 있어야 할 기업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 카자흐, 남미도 가야 합니다. 기업이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달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기업이 잘되도록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여기는 상수원 때문에 안 된다, 저기는 공장총량제 때문에 안 된다, 대기업은 또 안 된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뭐다 안 된다고만 막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기 참여해 주시는 기업인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인데,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뛰어야 합니다. 기업이 결국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은 기업을 도와야 합니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기업이 경제의 주체라고 교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기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땅도 지원해 드리고,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파스퇴르연구소 등 연구센터, 각 기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를 연계하는 기술닥터, 그리고 기업 SOS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문이 넓어서가 아니라 기업을 무조건 도와야겠다고 노력하다 보니 여러 제도나 도움책이 나왔습니다.

집 짓는 데는 그렇게 정부가 난리입니다. 그린벨트에도 집 지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환경에 큰 문제 없는 곳에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화성 마도가 다소 거리가 좀 먼 것 같아도, 지금까지 철조망 쳐 있던 곳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서해안 일대입니다.

아직도 철조망이 많지만 군 당국과 대통령께 말씀드려 철조망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고, 이 일대에 1,800만 평 매립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화단지도 거의 2,000만 평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일대에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송도만큼이나 좋은 곳입니다.

서해안 일대는 가장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만족감이 들도록 경기도와 화성시,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펼 것입니다.

지금은 별판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악조건 속에서 노력하는 제약 기업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道-도의회 정책협의회

일시 2009년 11월 10일

오늘 마침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행안부의 보도자료와, 제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3개 권역, 9개 시군은 총인구가 4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문에서 통합 찬성이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도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발표된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의견은 지역별·시군별·당별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 도를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전국을 60여 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는 좀 약화하고 시와 중앙 역할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도는 중간 전달자 역할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는 등 의회에도 의견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통합은 역사가 오래됐기에 고쳐야 한다는 것도 경기도엔 맞지 않습니다. 수원·화성·오산은 그동안 오래된 것을, 오래된 역사를 돌아보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오래됐으니 단순히 나누거나 합쳐야 한다는 건 안 됩니다. 나뉘던 것을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뿌리대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게 도의 생각입니다. 마치 오래됐으니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도의 입장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 여론조사한 설문지를 보면 통합시 명칭이 뭔지, 청사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내용 없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통상 여론조사 기법을 보면 단순히 시장을 뽑거나 의원을 뽑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지만 이들이 가진 여러 정책들을 놓고 뽑거나 어떤 사안을 놓고 찬반을 결정할 땐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설문 내용상 질문이 이처럼 구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합치면 청사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없었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하고, 청사는 어디로 가는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을 때와 쓰레기 소각장, 터미널, 청사, 의회 청사, 의원 배분 등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

연히 합치냐 아니냐 묻는 것과, 정책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묻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투표에 참여할 것이며 적합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나 해당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만으론 너무 큰 문제라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 대한적십자사 창립 104주년 기념 연차대회

---

일시 2009년 11월 10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신 분들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 드립니다. 적십자사에서 주시는 상은 벼락치기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봉사를 통해 그야말로 정확한 계산과 하나하나 따져서 애쓰신 만큼 드리는 정직한 상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땀 흘리시고, 애 많이 쓰신 노고에 유종하 총재님이 직접 참가해 주시고, 시상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 드립니다.

문병대 회장님은 적십자 발전을 위해 세계 각 시군마다 적십자를 많이 밀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어느 시가 덜 밀어 드리는지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은 중간에 비는 곳이 있는데 적십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31개 시군, 특히 이곳에서 가장 먼 연천에서도 다 오셨습니다.

연천이 인구도 제일 적고,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인과 민간인 숫자가 같습니다. 연천의 모든 조직 중 적십자가 제일 잘돼 있습니다. 연천은 정말 어려운데도 적십자 조직이 촘촘히 돼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중설 의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적십자가 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특히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2만 6천여 명에게 304억 원의 무한돌봄 사업비를 줬습니다. 몸이 안 좋고, 의료보험 안 되고 하는 분들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분들 한 분도 없게 100% 밀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도 100% 무한돌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선전, 홍보를 해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원 여러분께서 그런 분들 찾으셔서 동사무소 모시고 가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찾아서 안내해 주시면 100% 도와 드립니다.

올해도 400억 이상 예산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십자의 훌륭한 봉사활동과 헌신적 노력으로 무한돌봄 사업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경기도에 많습니다. 아직까지 8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800명밖에 못 만났습니다. 이러면 100년 걸립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총재님,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적십자의 뜻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 개소식

일시 2009년 11월 12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인고객센터가 늦은 감이 있지만 훌륭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정형근 국민건강보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평소에도 조국현 본부장님께서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부분 등에도 늘 뜻을 가지고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고객센터가 수원에서 개소하게 된 것은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 출신의 김진표·정미경 국회의원께서 강력히 노력 하셔서 된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진중설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시는 이존하 노인회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에 대해 저희가 해 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가 넓습니다. 도저히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전화로, 영상으로, 멀리 다니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나가는 최첨단, 현대식의 서비스를 위해 애써 주신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데 아플 때마다 한국에 옵니다. 한국 의료시설 등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첨단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이 컸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 공공기관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이 다 실패했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 능력을 개척하면서 국민 건강에 애써 주시는 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에서 길을 개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오늘 개소식을 1,200만 도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

##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

---

일시 2009년 11월 17일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캐서린 (세계유기농운동연맹 · IFOAM) 회장님, 부회장님이신 앙드레 류 부회장님과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 소장님 등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한국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이 회의를 주관해 주신 한국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국가적인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김성운 고문님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신 훌륭하신 고문님들을 모시게 돼 기쁩니다. 관계되는 각 단체의 여러 대표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이 대회를 유치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유치했습니다. 유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IFOAM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과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늘 성공을 위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난 이후에 국내 농업이 우선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산업화, 공업화, 수출 등의 부분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농업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농업에 어떤 비전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탁월한 리더십, 조직력을 가지고 애를 쓰셨지만 환경 자체는 꼭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가, 지자체의 관심도 적었고, 많은 분들이 과연 농업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대회 유치 이후에 우리 농업도 그야말로 세계적 안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인류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인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요소입니다.

유기농이야말로 대한민국 농업을 선진 농업으로 발전시킬 희망입니다.

다. 더 많은 단체가 생기고,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회유치가 한국 농업의 발전, 대한민국 전체 국정운영의 방향을 크게 더 바로 잡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농업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어떤 식으로 인간의 건강,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데 매우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중국, 일본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한중일의 협력 속에서 한국 유기농대회가 더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면서 아시아 유기농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한중일의 진정한 민간 우호 협력이 될 것입니다. 더 가깝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계기가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농업은 국경을 넘어 통합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 주고, 자연, 이웃과 하나 되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탁월한 분야입니다. 유기농은 그러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안뉴타운 토지구상 국제포럼

일시 2009년 11월 18일

안양 만안(구), 안양의 뿌리와 역사 속에 훌륭한 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키고 오랜 세월 생활하신 여러분이 멋진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모인 좋은 자리입니다. 관악산·수리산 등이 수려한 데다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안양입니다. 역사가 있으면서도 제일 산이 좋은 도시입니다.

경인교대 총장님도 오셨지만 좋은 학교도 자리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동안(구)에 비해, 시청도 다 옮겨가고 좀 낡고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타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동안에 비해 만안이 더 역사가 있으면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는가의 답을 뉴타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우린 불편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내실 수 있습니다. 안양처럼 역사가 깊고 좋은 환경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뉴타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시민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만안 뉴타운을 돕기 위해 윤중경 MP 전문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일본에서도 전문가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이면서도 역사와 뿌리가 있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느냐입니다. 꿈을 담아내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 외국의 그림을 전문가들이 그려 내더라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사실 주민들이 주인들이십니다.

'뉴타운 쉽게 알아보기' 책을 여기서 오늘 저는 처음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 책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매우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뉴타운을 만들기 바랍니다. 주민들 눈높이가 높고 주변 아름다운 환경을 잘 살려 나가기 위해선 뉴타운 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 잘 협력하길 바랍니다.

꿈에 가장 가까운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수준 높게 만들어 나가기 바라며 경기도에서도 최선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09년 11월 19일

한중일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서로 비교해 보고 경험과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저는 매우 적절하고, 시점으로 보나 세 나라 사이의 오랜 역사적 공통성으로 볼 때 매우 뜻깊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회라 봅니다.

이런 좋은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개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지식과 지성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적절한 목소리를 적기에 내느냐, 이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공부도 안 한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도지사니까, 道 폐

지를 반대하겠지, 도지사니까 권한이 주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지' 합니다.

비전, 식견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학계에서 적절한 시점에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학자는 학자대로 시대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심포지엄을 국제적으로 개최해 주신 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본에서 감바야시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와 자매관계에 있는 요녕성 요녕대학의 장동명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시러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중·일보다 지방자치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앙집권화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분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습니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권은 국민, 주민을 위한 것뿐 아니라 권력자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뒤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험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바야시 선생님과 장동명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교수님들이 훌륭한 발표,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려하는 점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출신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며 지자체장들은 기대가 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이 나와 있는데, 도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시대착오적 이야기입니다. 광역행정단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마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저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지역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즐기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도는 고려 성종 시대에 처음 생겼습니다.<sup>5)</sup> 조선으로 바뀌고,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남북이 분단이 돼도 북한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1,100년이 된 도를 폐지하겠다고 법이 3개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노력,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지, 권력자가 나누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저도 도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 식견 없음을 시대적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5) 995년(성종 14) 지방관제 개편에서 10도제(道制)가 처음 실시됨. 당의 10도제를 모방해 제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고려 성종의 10도제는 우리나라 도제의 시초가 되었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화의 노력에 지방의 목소리가 주민의 행복,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시대적, 세계적 추세는 지방분권화, 지방의 자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입니다.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며,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G푸드쇼 2009 개막식

일시 2009년 11월 19일

우리 G푸드쇼(G Food Show)가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G푸드쇼는 우리 농업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글로벌 농업을 선포하는 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에서 여러 농업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IFOAM의 캐서린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유기농대회에서 오신 간부들에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유기농대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기도 팔당에서 열립니다.<sup>6)</sup>

우리 농업이 이제 노인들만 하는 인기 없는 산업이 아니라, 바로

6) 2011년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김문수 도지사가 2007년 6월 독일에 있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본부를 방문, 유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08년 6월에는 대규모 유치단을 구성해 16차 대회가 열리는 이탈리아 모데냐에 파견함. 대만, 필리핀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한국이 191표를 얻어 차기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함.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희망이 있는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제 지역의 농업, 로컬의 농업일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농업이 되길 바랍니다.

농업이 이제 농사만 짓는 농업이 아니라 판매, 수출하고 적극적으로 문화, 수출,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농업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농업이 더 이상 절망, 투쟁의 농업이 아니라 희망, 판매, 수출로 나아가는 농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경기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농업 관련된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동남아에서 우리 농산품을 수입해 주시는 수입상연합회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산품을 구매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민들의 노력이 우리 언론에 의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도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석 용인시장님, 이기수 여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진중설 의장님과 농림위원장님 등 여러 도의원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세계와 함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롭고, 희망적인 농업으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일시 2009년 11월 20일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연설 기회를 주신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일본 가나가와현 마쓰자와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정책 선거를 통한 정치 발전을 모색하는 매니페스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3번, 도지사 선거 1번 등 모두 네 차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중에서도 2006년 경기도지사 에 출마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새로운 선거 문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의 네 번째 민선 도지사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3년 5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3년

5개월 일하면서,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는 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분권과 자치의 기반 위에서 지역이 자기 책임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선,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 관련 사업, 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해야 합니다. 이런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되어야만 획일화된 베드타운 도시가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자율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행정구역을 통합·폐지 등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시군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 국회에도 도 폐지 법안이 3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행정체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체제가 있고, 도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천 개혁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 앉아 계파 이익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현재의 공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후보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우수한 사람이 큰 제약 없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중앙만을 바라보고 중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 시민단체들도 중앙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 지방을 위한 현장 시민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되어야 지방언론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권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이 되어야 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지방자치단체일 뿐, 경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중첩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어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비롯한 규제 철폐와 '똥 뚫린 경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도지사로서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5개월 동안 1,20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비록 수정법 폐지는 못했지만 규제 철폐와 교통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경기도 공장용지에 대한 총량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군 당국과 협조하여 국방력의 약화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당부분 해제했고, 팔당 상수원을 지키면서도 분당의 69배 넓이에 해당하는 상수원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의 재산 가치를 늘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래 27년만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경기도는 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경기도의 노력으로 전격 시행된 경기-서울 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최근 인천시까지 확대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통합 개선하였습니다.

통합요금제는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인한 유류비 절감과 대기가스 감소 등으로 경제와 환경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지난 선거의 공약은 아니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하 40m 이하에서 평균시속 100km로 수도권의 동서남북을 한 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GTX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GTX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GTX의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되어야만 공사비용이 25% 절감되고 요금 구조가 단일화되며, 신호 체계와 교통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지역 간 갈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서민들과 취약 계층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여 현행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2008년 11월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개발, 추진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독립의료원과 보건소·대학병원을 연계해서 무한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무한돌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와 같은 따뜻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의 기능을 함께 통합한 것으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8년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2009년 현재 32개 학교 47개 교실에서 95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를 모델로 2009년 7월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선거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측정대상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꼭 긴급히 필요하다는 비전과 판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앞으로는 선거 공약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환경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니페스토 차원의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치 문화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한 차원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뽑아 주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선거 때 약속한 여러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현장 바로 알기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것도 매니페스토의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저는 택시기사들의 애로도 몸소 느끼고, 도민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10차례 걸쳐 택시운전기사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택시를 운전해서 번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면서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신 손님들도 살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선거 때 제가 했던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장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급했습니다. 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과 희망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위기에 둔감한 행정,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는 모두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방한해 주신 일본 가나가와 현 마쓰자와 지사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님,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 교수님, 천루웨이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 강석희 美 어바인 시장 명예 경기도민 수여식

---

일시 2009년 11월 20일

우리 강석희 시장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道를 방문하시고 우리 명예도민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 어바인(Irvine) 시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바인 시는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입니다. 그런 어바인 시가 이렇게 경기도를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석희 시장님과 대표단의 방문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더욱 양 지역의 협력과 교류가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민 1세로 미국에 가서서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자리 잡았으며, 우리 한국인의 강인한 저력을 미국 무대에서 보여 준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강 시장님께서 미국에서 더욱 훌륭한 시장이 되시고, 대한민국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바인 시가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됐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이 있길 기대합니다.

## 웅진어린이마을 착공식

일시 2009년 11월 21일

축하드립니다.

방금 윤석금 회장님 말씀 들으셨죠? 회장님과 웅진어린이마을이 이천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청 공무원 상대로 강의도 하시고, 경기도 지도자 모임인 기우회에서도 말씀을 들으러 모셨습니다.

윤석금 회장님은 한마디로 말해 꿈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맨주먹으로 이천보다 더 시골에서 태어나 시작을 하셔서,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마다 더 크게 발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꿈을 잃지 않고 어린이,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꿈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념사가, 이천시민들께서 들

으시면 그냥 축사일지 몰라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념사입니다.

웅진어린이마을을 하신다고 하실 때,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도자센터 등 道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道에서 하는 것은 이 어린이마을처럼 1,000억 투자를 한 것이 없습니다. 투자 금액 자체가 공무원이 하는 것과 단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셨겠지만 회장님은 세계 어디를 다니시면서도 꿈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이곳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믿는 분만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다들 믿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맨손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를 이룩하셨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남들이 바라는 교육·환경·어린이·문화 등으로 이룩하셨습니다.

이미 웅진그룹이 이룩한 이러한 꿈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 과장이 아니라 실제 가능합니다. 제가 디즈니랜드 등을 가봤습니다. 그 자체가 문화, 이야기 등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 생태, 과학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관을 만들면 돈은 더 많이 쓰는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내용을 채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꿈을 주고 하느냐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장님과 최봉수 사장님 등 웅진에서 오신 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웅진그룹이 있는 한 죽기 살기로 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걸치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감동하고, 자기를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주민들께서 더욱 좋아하시고 발전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웅진그룹이 어린이마을을 만드는 것이 이것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웅진그룹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박수 드립니다.

조병돈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속을 많이 태우셨습니다. 군부대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이천의 어린이마을, 경기도의 어린이마을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체험, 교육 학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기고려인삼 공동브랜드 선포식

일시 2009년 11월 21일

저는 도지사가 되면서 인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기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 헛갈리는 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경기도 인삼은 고려인삼, 개성인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인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삼처럼 많이 재배되면서 훌륭한, 재배와 가공 면에서 앞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삼 종주국으로 여러 가지로 잘 재배해서 잘 가공하고, 브랜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이번 경기고려인삼 공동브랜드 선포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기농협 부분부장님도 오셨습니다. 통합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인삼 재배는 모두 농협으로 인삼조합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개성인삼농협조합

장님 오셨는데 올라오세요. 김포파주조합장님, 경기동부조합장님, 안성농협조합장님 다 올라오세요. 이 네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이해 때문에 통합이 잘 안됐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재배되는 인삼은 통합브랜드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경기도 인삼이 육년근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 토양, 재배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발달이 안 돼서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과학기술적 뒷받침과 각 대학에서 뒷받침을 확실히 해서 여러 가지로 믿고 찾을 수 있는 경기고려인삼, 천하제일의 경기고려인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삼 재배에는 농약을 너무 쳐선 안 됩니다. 토양에도 여러 비료 성분 등이 잘못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농약, 비료, 재배 과정, 제조 과정, 가공 과정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비싼 인삼의 가치에 걸맞은, 믿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이면서 사포닌이 충분히 함유되는 인삼을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뒷받침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 고려인삼이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 믿고 안심하게, 비싸지만 제대로 된 인삼을 드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경기고려인삼을 훌륭한 인삼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 G코리아 대회

---

일시 2009년 11월 23일

녹색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 녹색은 좋은 환경이지만 낙후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녹색과 성장이라는 것이 결합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많이 남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더럽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맵고 짠 양념이 많아 더 환경을 해치기 쉽습니다. 결국 음식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녹색의 일환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손에서부터 녹색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철도가 녹색입니다. 연료를 많이 때우고 배기가스가 나오는 자동차와는 다른 녹색이 바로 철도입니다.

여성분들은 가정에서의 절약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절약을 가르치고 세계 환경을 바꾸는 것이 바로 여성분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녹색성장과 실천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녹색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너무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이천시장님 사모님도 자전거를 타시다 다치셔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녹색실천이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녹색을 가져오는데, 예로 인터넷 문자메시지가 발달해 세계 어디든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이 녹색의 발달로 연결되고 IT강국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녹색 강국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적게 쓰면서도 제대로 발전,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생활과 기술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까지 바꿔 나가자는 운동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절약 식탁이 사찰음식입니다. 이는 다소 배고프더라도 비만이 사라지고 꼭 먹을 음식만 깨끗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 역시 녹색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문화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가장 녹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각 단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녹색실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 세계에서는 가장 녹색 강국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고 주목받습니다. 과거 같으면 '배불리 많이 먹었다'였는데 이젠 건강식 자연식,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단, 자연친화적 식단이 세

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생활문화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적어도 인류 역사상 매우 뚜렷한 변화입니다. 이는 지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경기 여성 회원님들이 모여 그린월드를 주도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녹색실천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경기도가 세계 일등의 녹색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DMZ미래연합 창립총회

일시 2009년 11월 24일

DMZ미래연합은 과거연합이 아니라 미래연합입니다.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분단된 도로, DMZ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개성, 장단, 연천 지역이 경기도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금 북쪽으로 가 있습니다. 황해북도입니다. 또 경기도에는 이산가족이 가장 많이 살고,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삽니다. DMZ에 대해 특별히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춘호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어령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DMZ에 대해 많은 분들이 심도 깊은 연구를 하셨다는 것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DMZ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볼 것이 없습니다. 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임진강은 DMZ 밑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4중 철조망이 있고, DMZ는 6중 철조망이 있습니다.

총 10중 철조망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출입이 안 되니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어느 정도까지 보존하고, 이 가치가 생태·문화·군사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가 발표됐고, 예술 작품, 사진, DMZ 다큐영화제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에 대해 군 당국, 환경 당국, 예술인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DMZ 땅 소유자들의 생각, 남북의 생각, UN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래연합을 만들어 함께 논의를 하고,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물 방류를 해서 6명이 연천군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해마다 북에서 DMZ를 거쳐 많은 시체들이 떠내려 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꺼내서 북에 보내거나, 가매장을 합니다. DMZ는 강을 따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람, 자연 등은 이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나뉘진 DMZ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DMZ는 육지에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강-임진강이 만나는 교하, 서해가 만나는 지역은 중립 지역입니다. DMZ와 다른 UN, 남북이 같이 관리합니다. 또 강이 끝나는 지점은 NLL입니다. 다른 용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DMZ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강원도 DMZ의 성격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수도의 방어를 위해 미군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합니다. 육해공, 해병의 7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 DMZ는 최전방 지역이면서 수도에 근접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더 위험하고, 긴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인간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 DMZ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위험하다고 해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 전쟁과 분단의 상처이면서 미래를 위해 많은 생명이 예비하고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습니다.

국군 발굴을 보면 DMZ만큼 각국의 문화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UN군, 중공군, 소련군 등의 유해와 철모 등이 다 있습니다. 지뢰도 많고, 지뢰에 다친 야생동물도 많습니다. DMZ의 다양성, 역사성, 더 먼 미래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강원도, 각 언론, 국제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래연합과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훼손해선 안 됩니다. 남북의 화해 아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추진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활발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춘호 대표께서 EBS 사장이 되셨는데 DMZ 다큐 등을 많이 제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

일시 2009년 11월 24일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가져 주신 베르너 캠페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님, 공동주최를 해 주신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님, 평소에 늘 우리와 북한의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명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한 EU 대사님이신 브라이언 맥도널드 대사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남북 겸임대사를 하시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 주실 주한 이태리 대사님과 주한 호주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핵에 대한 관심보다

커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탈북해서 중국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납북자는 어떻게 살고, 국군 포로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산가족은 어떤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북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많은 낭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낭설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깜깜무소식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국민 숫자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북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의 실태를 나쁘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몰라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단편적입니다. 지역, 계층, 관심층에 따라 아주 단편적 이야기가 떠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나누고,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오늘의 이 국제회의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자주,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책무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북한과 많은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헌법상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바로 주민등록, 호적도 만들어 드리고, 집도 드립니다. 정착금, 생활비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적 책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북한의 사람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자체도 마땅히 헌법적 책무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관계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특히 각국에서 오신 대사님, 전문가들의 훌륭한 사랑과 전문적 지식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다시 한 번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경기도-가톨릭대 GRRC<sup>7)</sup> 생체의약선도분자연구센터 개소식

---

일시 2009년 11월 25일

저는 사실 생체의약선도분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전문가 분들이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의과대학 8개를 운영하고, 부천 성가병원 등을 비롯해 여의도·강남 등의 성모병원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영리를 위주로 한다가보다 인간 생명 존엄을 위주로 인술을 베풀어 주시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감사드립니다.

생명공학·생체의약 분야에선 윤리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 존엄과 의술의 중간 위치에서 가톨릭대의 좋은 역할이 기대 됩니다.

---

7) 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경기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지원의) 특징은 연구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더욱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집중적이고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도민에게 가까이 계시는 많은 병원과 임상 경험을 통합해, 오늘 참석하신 여러 기업과 도, 부천시, 각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체의약 결과는 아무리 빨라야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들이 또 우리 가톨릭대학 아닌가 합니다.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 주시는 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회

일시 2009년 11월 26일

경기도는 특별합니다. 우선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DMZ가 지나가는, 개성 개풍, 장단, 연천이 북에 가 있는 분단된 道로서 미군의 90%가 주둔하고, 대한민국 병력의 70%가 집중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민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성지가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1,1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연찬회는 자주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엔 하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의 첫 생활을 시작하고, 많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선 북한이탈주민들 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부 의정부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 대한 모든 것을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북 실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쉼터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대안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주위에서 매우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이후 탈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견디고 다시 탈남을 해서 유럽 등으로 옮겨 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기업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채용해 줘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적응 못하고, 말이 서투르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에서도 지난번 연천 지역 임진강이 수몰돼 6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은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물은 북에서 남으로 그대로 흐르는데, 독방의 문제로 수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道는 각종 방제사업을 하는데, 이외에도 많은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道에서 말라리아 공동예방사업을 하는데 김포, 고양 등 북부는 사실 헌혈도 잘 안 받아 주는 실정입니다.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이에 道가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해서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자유로를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개풍군이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이곳에 道에선 9헥타르, 약 27,000평 규모의 양묘장을 만들어 나무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감이 없어 나무를 다 잘

라다 쓰겠지만, 그래도 도와야 합니다. 또한 벼농사, 유소년 축구 등에서 많은 공동사업을 벌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평화통일 지도자들 모시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우리 자문회의가 확고한 신념으로 더 자주 만남을 가져, 풍성한 교육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기우회

일시 2009년 11월 27일

최근에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행안부 국장으로 재직하던 한석규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안성의 골프장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경기도 기획실장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경기도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단체 중 16위였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부패하면 즉시 죽는다는 부패즉사의 신념으로 청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을 직접 파견 받아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상주시켜 공직 전반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도 들으며 엄격히 이 부분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강력히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에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고, 저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유능한 한 책임자가 이렇게 구속된 데 대해 사실 면목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는가 좋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나오지 않고,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공직자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안성골프장 수사 과정에서 비리척결 수사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장도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나왔는데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누구라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과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의 청렴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과 노력이 계속돼야만 합니다. 공직이 깨끗하지 않고선 후진국을 면할 수 없고 우리 경제, 사회, 문화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 취임 이후에 경기도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산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청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매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공직자라도 부패즉사의 엄정한 사정의 칼날이 계속 우리 공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제가 분석해 보면 골프장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공직자들에게 뇌물, 회유, 향응 제공 등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의혹이 있으신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즉시 고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목표를 세계 제일의 청렴도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송구스럽습니다.

최근에 성남 청사와 관련해 성남 청사가 호화 청사가 아니냐고 하는데, 도민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처지인데 함께 나누고, 공직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호화 청사 개청식까지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상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역시 청사를 호화롭게 지어야 하냐는 점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전임지사님,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라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도, 청사 이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 정서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사 신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꺼리시고, 부담을 느끼시고, 분노하시면, 어떤 공직자의 행동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민을 섬기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설사 그것이 무리한 요

구라고 해도 국민, 도민, 시민을 섬기고 몸을 낮추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도청 청사도 용인, 성남 청사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공직자의 노력이 뒷받침됐는데 앞으로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자기희생, 청렴한 공직 수행을 통해, 경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강살리기 희망선포식

일시 2009년 11월 27일

제가 취임하던 해 여름에도 이곳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강이 넘고 다리가 잠긴다는 우려로 여러분들 밤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저도 당시 새벽 이곳에 와서 이기수 (여주)군수님과 애를 태웠습니다.

항상 홍수 때면 항상 불안했던 곳이 바로 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문화유적, 나루터 같은 곳만 백 곳이 넘습니다. 또한 광주 백자, 분원리의 도자기는 강원도로부터 땀과 흙을 싣고 와 만들어 다시 마포로 내려가던 당대 가장 값비싼 도자기 생산지로, 이를 서울 조정으로 공급하던 중심 역시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또한 남양주 조안리에는 다산 선생 유적지가 있고, 두물머리 세미원·석창원도 (생태공원을)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역사가 흐르는 한강입니다. 한강살리기를 계기로 고유한

문화를 살리고 역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임진강에 수몰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한강 하구도 물길을 열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강이 남북의 분단으로 막혀 있지만 앞으로는 한강이 열려 중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 봅니다.

이번 희망선포식이 남북 간 대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더 깨끗한 상수원 댐을 만들어 홍수도 막고,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과 도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주군민 여러분, 앞으로 여주군이 여주시로도 승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민 여러분 우렁찬 목소리처럼 한강 살리기를 통해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 노인자살예방 '경기도-시민단체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1일

아주대 이영문 교수님께서 여기 함께 오셨습니다. 취임 이후 이 자리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대 교수님이자 의사이시고, 경기도보건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영문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말씀을 하시다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세상에 저런 의사가 어디 있나 생각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서 감정이 북받쳐 우십니다.

일부에서는 환자에게 말씀을 하다 저렇게 우시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런 훌륭한 의사가 대한민국에 계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환자를 걱정하다 보니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영문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 드려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한마디 도움 요청이 없습니다. 환자와 일체화되는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이영문 교수님처럼 마

음으로 하나 되어 환자와 함께 울고 웃는 의사가 이 시대 진정한 의사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자살률 통계를 봤습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불행히도 1등입니다. 그중에 또 경기도 자살률이 1등입니다. 노인자살률은 전국에서 5위입니다. 서울이나 인천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곳 자살률이 최고냐 하면, 연천 등 경기 북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기댈 곳이 없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면서 각계 전문가 분들과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제가 경기 북부 자살률을 이야기하면 동네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숨기려고만 하십니다. 숨겨선 안 됩니다. 해당 시장 군수님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뭐가요. 결국 사람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도 우리를 낳아 주시고 오랜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의 징후를 보인다는지 하는 각종 통계라도 내서 알려려고 합니다. 오늘 수많은 시민단체 여러분 오셨고 특별히 이영문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8,200여 노인분들과 상담을 했고, 이중 80여 분 정도는 살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사, 소방, 간호사, 각종 시

민단체 여러분들이 특히 농촌 지역을 찾아가 노인분들 앞에서 소위 재롱도 피우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뒤 이상이 있으시면 치료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모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만 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고, 사람이 가장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 이 가정 이 사회를 위해 식민지와 전쟁 등 각종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이 나라를 만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천수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국내 주요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

일시 2009년 12월 3일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큰 곳에서 하다가 오늘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평택항의 바닷바람,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택항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국토해양부 차관님이 조금 전에 왔다가 국회 예산심의, 법사위 일정 때문에 가셨습니다. 신형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나이가 젊고, 어려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강의 부서인 국토해양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박수 한 번 드립시다.

오늘 특별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택항을 국제항구로 만들어

주신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개통해 주시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감사합니다.

평택항 자체가 아직 걸음마입니다. 며칠 전 제가 평택항에 가서 제조업 하는 곳을 가 보니, 큰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비해 도로도 좁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항으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항 마린센터 오픈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일 좋은 시설이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평택항, 황해, 중국 대륙,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평택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는 해양국가로 무궁한 바다, 세계, 대륙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적 추세와 흐름에 대비할 때 해운, 항만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국민적 관심, 성원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적극적인 뒷받침 아래 우리 해운 하는 분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확실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도지사가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항만에 관해서 지자체의 힘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설명을 드리고, 호소하고, 작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권한이 중앙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관계자들께서 특별히 평택항에 대해 잘 봐 달

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적어도 차별은 받지 않게 배려해 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평택항은 아시다시피 해군2함대 사령부가 130만 평을, 항구의 제일 좋은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서해안, 남북관계 등에 대해 모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북아 모든 미군이 평택에 주둔하기로 해, 지금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단순히 평택항이 대한민국의 평택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기지 내에 초중고교 18개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1년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처럼 장기 주둔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학교도 가장 좋은 미국 공립학교가 들어옵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양국 간 민간 교류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은 중국과 가장 가깝습니다. 중, 미, 한국이 만나는, G2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생활하는 국제적 도시로 미래가 창창합니다.

평택은 땅도 서울만큼 크지만, 전국에서 평야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모두 쓸 수 있는 가용면적입니다. 배후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평택입니다. 또 충남과 황해경제구역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진, 아산항과 함께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배우면서 평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관계자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 국가경쟁력' 세미나

---

일시 2009년 12월 7일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상수 인천시장님이 오시니 많이 오십니다. 같이 해야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인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을 보면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고 써 놨는데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경쟁력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의 경쟁력입니다.

만약 서울이 없다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누구입니까. 이런 면에서 마땅히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인천은 관문이고,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을 받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

나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세종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때입니까.

우리 주변에 북경, 상해, 동경 등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한 번 갈 때마다 눈부십니다.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스피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만만디'고 중국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5,000년 만에 중국을 능가하는 역사에서 우리가 허송세월해서 베이징, 상하이를 이기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까. 스피디한 공룡이 우리를 앞서서 나갈 때 우리가 수도권, 지방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우리나라 대표도시입니다. 상해, 동경 등과의 경쟁 안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살아남지 못할 때 인재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 해외동포, 우리 겨레 모두가 걱정한다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이 자리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EU가 27개국이 합쳤는데 분산 정책을 많이 하던 프랑스 사르코지

가 그랑 파리<sup>8)</sup>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 확보, 서울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기정화 문제, 또 주택 문제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충청, 강원은 물론 전 지방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명당입니다. 이탈리아가 명당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훨씬 더 명당입니다.

그중 가장 명당인 수도권이 이런 입지적 유리함을 활용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인천, 경기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안상수 시장님 자주 만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 그랑 파리(Le Grand Paris) 프로젝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좁고 낮고 지저분한' 파리의 이미지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도시 재개발 계획. 파리를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만들고 영불해협까지 확대해 광역도시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파리권역을 프랑스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 국제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경기도 투자설명회

---

일시 2009년 12월 10일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믿고 투자 결정을 해 주신 네스캡, 메탈피트코리아, 차이나텔 대표님 등 감사드립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올렸던 나라입니다. 또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 나갈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외투기업들, 외투기업협의회 임직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겪었을 것입니다. 3M 같은 경우 노사관계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압니다. 법령 등 문제가 있어 선뜻 경기도에 말씀 못하시는 점 있겠지만, 저희에게 언제든지 말씀만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적어도 한국 내,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발 벗고 도와 드릴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하시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저희에게 꼭 말씀 주시면 돕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김창준 의원님 내외분, 이효선 광명시장님, 시의회 도의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활발하게 2010년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두웠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경기도와 함께 힘차게 발전해 나가는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뜨거운 열망을 갖고 참석해 주신 외투기업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 전통시장 상품권통합업무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10일

최극렬 회장님 비롯해 여러 회장님들, 그리고 심동섭 경기중소기업청장님, 여러 시장 부시장님 모두 뭉쳐 상품권 합쳐 보자고 모이셨습니다.

가평에선 안 오셨는데 함께하시다가 자칫 남부 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하시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과 주변 소규모 가게 등도 합쳐 편리한 상품권의 통합이 기대됩니다. 이는 가치 있고 매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장님이 주머니에서 상품권을 꺼내 쓰시는 것을 봤는데, 매우 인기도 좋고 그냥 보기에도 차별화되는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지금까지보다 채래시장 전체에 피를 더 뜨겁게 돌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알파의 속도로 빠르게 돈이 돌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돈이 화끈하게 돌고 정신없을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늘어갈수록 시장 상인들은 양심적으로 좋은 제품을 잘 팔아야 합니다. 서비스와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봅니다.

처음엔 안 들어오던 가게들이 나중엔 서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산동성 자매결연 체결식

일시 2009년 12월 11일

처음엔 장다밍 성장님께서 중국 산동성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시어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만나셨고 작년엔 중국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열렬히 성장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 최충주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현 신정승 주중대사님께서 바로 최충주 대사님 자리에서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좌승희 원장님이 계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한중 해저터널을 성공적으로 잘 연구해, 지금은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산동성을 해저터널로 연결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중 모두에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나 배를 타지 말고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과입니다.

산동성과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는 공자님 이후에 적어도 2,000년 이상 큰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다밍 성장님 비롯해 산동성과 경기도가 우호관계를 체결하게 돼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동성과 경기도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뿐 아니라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도가 중심이 돼 중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북부기우회

일시 2009년 12월 11일

저 개인적으로나 의원님들, 단체장님들 임기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6개월 정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뭘 했는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별로 된 것도 없고, 정말 세월이 아주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은 제가 늘 다녀 보면 가장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서 대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박은 바로 DMZ가 허물어지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로또 이상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대체로 매우

유효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장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해도 커다란 변화는 없겠지만, 상당 수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도 즉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별로 없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관계 조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 북부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DMZ를 따라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북쪽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포천에서 대포실험을 하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만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기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인구가) 1,160만, 서울보다 110만이나 많은데 (경기도가) 통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다양하고 좋은데, 특히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지역이 경기 북부입니다.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통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 국회의원이건 간에 고맙다는 소리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안 줘도 말로라도 고맙다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누가 희생하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정말 북부 지역에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 애써 주시는 북부 지역의 도민 여러분, 시장·군수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한마디도 보도가 없지만, 세종시보다 몇천만 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국가를 위해 애국적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 북부의 도민 여러분입니다.

둘째로, 팔당 물도 매일 마시면서 고맙다는 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평,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이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 북부의 DMZ,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 상수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희생과 봉사를,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북부 지역 외에 어느 지역이 그러합니까. 세종시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인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번에 LG패션이 양주에 들어오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려운 악조건이지만, 정부에서 한 점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섬유·염색·가구 부분을 세계 최고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공해 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세계인들의 아름다움을 사로잡고, 선사하는 훌륭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또 다른 LG패션보다 큰 업체와 교섭중입니다. 북부 지역이 크게 각광받는 새로운 섬유·패션의 세계 중심 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에 시장·군수님도 애를 많이 써 주십니다. 총 예산이 435억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는데 80% 밖에 못 썼습니다. 20%가 남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무한돌봄 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81억이 남았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경기 북부 지역, 특히 일반 상공인 대출, 포장마차,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생기고 난 후에, 지난 13여 년간 재단이 보증해 대출한 총액보다 2009년 한 해 동안 대출한 돈이 더 많습니다. 담보 없이 엄청난 대출을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홍보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증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신용대출기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겨울에 춥고 어려울 때지만, 작지만 따뜻한 무한돌봄 사업, 신용보증제도, 대출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동안 매우 부족한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을 잘 살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경기 북부 지도자 여러분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희생에 대해 전 국민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아 더 훌륭한 꿈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버랜드 관광단지조성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11일

에버랜드 발전을 위해서 1조 5천억 정도 투자해 거의 2만 명 가까이 차후 고용하게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협약을 체결해 주심에,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해외에 다니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어제도 수원에서 LOI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큰 금액이었지만, 관광은 그보다 더 큰 고용효과라는 것을 갖고 있어 더욱 값집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이처럼 좋은 산업이 없습니다.

에버랜드는 30년 이상을 많은 노력을 해 세계 10위까지 올랐습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면 그 순위가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최고 테마파크로서, 크게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서정석 용인시장님, 용인시민, 박병주 부시장님과 에버랜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

# 경기도미술관 어린이벽화 1주년 기념 리뉴얼 개막식

---

일시 2009년 12월 12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미술관장 아주머니가 하신 것입니다. 예쁘죠? 박수 많이 보내 드립니다.

이 그림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렸고, 강익중 선생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이 아저씨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그리는 화가 아저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아저씨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린 그림이 이 앞의 그림입니다. 총 5만 점입니다. 어린이 5만여 명과 같이 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 밑 제주도에서부터 제일 꼭대기 휴전선까지 전국 어린이 5만 명과 그린 그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화가입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백래 도의원 아저씨도 왔습니다. 안산시 부시장 아저씨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와 이 작품 만든 아저씨들에게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주-동두천 환경개선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15일

동두천, 양주 두 도시가 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사가 된 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취임 이후에 돈도 조금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양주, 동두천은 세계적인 섬유·염색 단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이지만 앞으로 섬유·염색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 문제와 산업을 양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섬유·염색을 하면 물이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섬유·염색이 물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처리시설을 하면 됩니다. 산업단지를 안 하고 무허가로 해 와서 그러는데 이젠 제대로 갖춰서 하고, 지원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나라 수질개선 능력이 세계 제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 부분인데, 축산 부분에 대해선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약취 문제는 쉽지 않지만, 나머지 물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당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냄새 문제는 정 안 되면 닫게 해야 합니다. 처리 못하면 문 닫아야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냄새 문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환경관리기사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 문제, 굴뚝으로 나가는 먼지는 어떤 경우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공기를 타고 나가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미생물을 뿌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등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와서 처리하는데 안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됩니다.

처리를 한다면 완벽히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이 자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우리가 냄새 덮어쓰고 물 더럽게 하면서 처리해 준다면, 가격을 제대로 받고, 냄새 안 나게 하고, 물 안 더럽히게 해야 합니다.

염색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염

색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색은 바로 양주, 동두천, 포천 지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패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이익금, 국가, 도, 시의 지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대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냄새 부분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건물을 몇 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처리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장님 같은 경우 상류 지역이라 부담이 조금 되시겠지만 저는 양주도 결국 북한산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 신천의 물을 깨끗이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협력하시고, 발 벗고 나서는데 특별히 박수 한 번 드립니다.

양주시장님께서 결단 내려 주신 데 대해 시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편이 있지만 양주를 정말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밀어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양주시장님, 동두천 시장님, 김성수 국회의원님, 여러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道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삼성 미소금융 1호식 개점식

일시 2009년 12월 15일

이렇게 개점하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신 것 덕분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엉뚱한 데 몇천억 내는 것보다, 여기에 300억 내고 10년간 앞으로 3,000억을 내는데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고, 대한민국보다 명성이 높은 그야말로 글로벌, 글로벌 베스트 기업인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시작해서 뻗어 나갔습니다. 여기(수원)에서 첫 번째로 성공의 결실을 가지고 어려운 전통·재래시장, 많은 서민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단순히 돈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성공의 노하우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희망의 손길로 잡아 주시

고 이끌어 주시는데, 금융의 속성상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은 정확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소금융도 금융이라 상당한 회계 상의 정확성과 신용의 안정성을 위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단 자체가 정확성뿐만 아니라 뜨겁고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요즘 특별히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정책을 합니다. 올해도 이 위기 속에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성공한 것이 포장마차 등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시장에 가서 포장마차,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 200~500만원 대출을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융의 정확성과 인간, 그중 가장 구석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많은 서민들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을 주신 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삼성 미소금융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금융의 신화, 대한민국 정책이 양극화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을 돕고 글로벌 기업이 가장 전통적이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서민들의 손을 잡고 나가는 위대한 새로운 신화가, 바로 오늘 삼성 미소금융 개소식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기

적과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도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물 안전성 향상 국제심포지엄

일시 2009년 12월 16일

국제회의에 멀리서 참석해 주신 라파엘 세계이 박사님, 일본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가도히라 무츠요 교수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호, 유한상, 우희중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보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지도 않은 미국 쇠고기 때문에 전 국가가 뒤집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그 사실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가 매우 놀랐고, 아직까지도 놀라고 있습니다. 누가 먹고 배탈이 나는 등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뜨겁고, 민감하고, 지속적이고, 뽑은 지 석 달도 안 되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청와대 앞에서 계속 끌어내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 등에 축산 전문가가 많다고 해서 전 세계 전문가를 모셔서 경기도는 광우병에 어떤 위험도 없는 완전 청정지역을 만들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책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이 할 일 중 중요한 것이 많지만, 먹는 것과 그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건강에 좋고, 오래 살 수 있는 좋은 먹을거리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는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쁜 것은 아예 소비자 손에 안 들어가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모르지만 검증이 되는 이 분야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입법 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진흥본부, 수의사회 등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황우석 박사님께서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검증, 인증, 유통, 소비의 과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서는 이금자 여성단체 회장님이 오셨는데, 꼼꼼히 챙겨 보고 소비자  
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보시고 문제점을 미리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관련 단체에서 다 왔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경기도 축산물에 대해 안심하고  
학교 급식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것입니다.

적어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가 붙으면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멀리 해외에서 오셔서 일본 광우병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가도히라 교수님, 일본은 가장 깨끗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 이상으로 더 수준 높은 축산국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실 것입니다. 또 유럽 광우병에 대해 말씀 주실 프랑스 라파  
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확장 개소식

일시 2009년 12월 16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동안 잘 자라서 성장한 우리 이미지스테크놀로지 김정철 사장님께서, 성공 기원금 5억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도와 드렸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경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을 보니 김정철 사장님, 이미지스테크놀로지가 1년 10개월 있었는데 올해 매출이 180억입니다.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5억 내놓아도 남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박수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신 김정철 사장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 성과가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성과를 내셔서 본인이 번 돈 중 5억을 내놓고도 이익이 남고, 지금 채용을 40명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한 건만 만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철 사장님이 받은 경기도 지원금이 3,000만원입니다. 한 17배 정도 새끼를 쳐서 갚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더 키워야 합니다. 51개로 키워 주신 홍기화 대표님과 심동섭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청장님이 4억여 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박수 보내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김정철 사장님과 입주기업 여러분의 놀라운 창업 정신, 창조적인 발명가로서의 탁월하신 역량과 사업 능력, 성공 신화가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경기도 곳곳에서 누구든지 꿈, 기술, 맘 흘릴 정신이 있는 분들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심동섭 청장님과 손잡고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입주기업, 창업자 여러분, 벤처 정신을 가지고 뛰는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정책연구원 개원식

일시 2009년 12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좋은 이민정책연구원을 경기도 고양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주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운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강현석 고양시장님, 고양출신의 진중설 도의회의장님과 도의원, 시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먼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페루슈 (국제이주기구·IOM)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찰스 한스 원장님,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콘스탄틴 러시아 대사님 등 여러 대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외교관 여러분들의 참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 경기도 고양에서 개원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글로벌 인스피레이션(Global Inspiration)'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민정책연구원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116만 명, 경기도에도 32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을 해 보니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민정책은 노동, 가족, 교육, 문화 정책, 치안, 기업 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숫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확한 연구가 아직 없고, 행정도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개원하게 돼,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한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매우 큼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근로자, 결혼 이주자, 투자자, 유학생, 북으로부터 온 북한이탈주민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NGO, 여러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서 연구원이 세계 최초이면서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21일

오늘 날씨도 차고, 매서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에서 한 행사 중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은 처음입니다. 농협 최원병 중앙회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재혁 도의회 부의장님, 클린팜당 정상목 대표님, 김준호 농협경기본부장님, 클린팜당에 참여하는 원산농협조합장 등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출범식입니다. 팜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sup>9)</sup>가 출범하게 돼, 특히 농민들도 기쁘지만, 소비자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9) 경기도는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에는 팜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에 3년간 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

우리 국민들만큼 농식품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없습니다. 작년 쇠고기 파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몰라도 촛불시위는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농축산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팔당클린 농식품을 비롯해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식품으로 보장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불안하고,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이겨 내기 위해 오늘 같은 우리들의 네트워크 연합체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 등 관공서, 생산자, 소비유통을 맡고 있는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유통업체도 힘을 합쳐, 생산·유통·보증할 수 있는 관공서 등이 힘을 합친다면 믿음이 세 배가 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세 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도 과일 생산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심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복한 식생활 발전을 위해 조금 전에 도의회에서 학교 급식도 초중고 4인 가족,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은 무조건 무료 급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학교 급식 역사상 경기도의회가 오늘 통과시킨 예산안이 가장 획기적입니다. 740억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하기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획기적입니다. 통과시켜 주신 경기도의회에 박수 보내 드립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에 우리 축산품, 그중에서도 G마크, 가장 깨끗하고 경기도지사가 도장 찍어 주는 것 외에는 공급을 안 합니다. 비싸더라도 예산을 내고, 생산자도 부담하고, 시군이 부담하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고급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통과가 그야말로 학교 급식의 질, 믿음, 신뢰성을 높이면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농협, 클린팜당, 각 유통업체와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농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식탁을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우리 국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동설한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협약이 가치 있고, 미래를 위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농·축·수산업에 중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무한돌봄경기 우리도 함께

일시 2009년 12월 21일

연말에 매우 바쁘신데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무한돌봄 예산이 올해 356억을 집행했는데 아직 8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올해 다 쓰지 못했습니다. 2만 8천 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성남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어떤 학생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막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말씀처럼, 200개 이상의 복지제도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빈 곳에 누

가 사랑을 전달하느냐가 오늘 행사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전달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행정의 책임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행정이 현실을 잘 모르고, 책상에서 한 행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오늘 각계에서 지도자 여러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무한돌봄에 학계, 각 종교계에서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농협중앙회에서도 돼지고기, 쌀 등을 내며 참여해주셨습니다. 성빈센트병원 등 병원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변호사회에서도 무료 변론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무한돌봄의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깊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분들에게 희망,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제때, 늦지 않게 잡아 줄 수 있느냐에 우리 복지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경기도에도 많고, 돈 내실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석구석 이웃을 살피는 살핌, 이웃에게 적절한 시간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배려와 접근성 등,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고의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그만그만한 복지 체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고, 사회 각 계각층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 최고의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큰 모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물결이 끊임없이 확산돼 경기도 곳곳에, 제때에 나눔, 돌봄, 행사가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청소년 대토론회

---

일시 2009년 12월 22일

들어오면서부터 노란색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일남 교수님, 최재복 청소년진흥센터장님, 경기도 청소년 여러분과 차세대 위원 여러분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와 주심을 환영합니다. 이곳(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 교육받는 곳입니다.

오늘 토론주 제를 보니 '학교 안의 CCTV'가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절반 정도군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내 주시는 세금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여러분을 지켜 주는 CCTV인가, 여러분들 감시하는 CCTV인가라는 질문도 토론 내용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호해 드리고자 설치하는 CCTV

인데 한편으론 감시 기능(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을 땐 CCTV가 싫으면서도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기도 한, 다소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만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으스스한 골목 같은 곳은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CCTV의 필요, 불필요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런 토론장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많은 토론을 해야 좋은 생각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친구들 생각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건강하게 커 가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기분이 좋아서 연단에서 내려오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 소수력개발 업무제약 협약식

일시 2009년 12월 22일

왕숙천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저는 왕숙천을 자주 지나다 하는데, 가까운 하천에서 발전소가 생긴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력원자력발전소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50억의 거금을 투자하셔서 우리 생활 주위에 수력발전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시장님께서 구리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고구려의 기상, 구리시에 다시 한 번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생기지 않겠나 합니다. 수력발전소가 팔당의 경우 크고,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보안 시설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가까운 곳에 생활하면서, 매일 산책하면서 발전소를 본다는 것은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를 생활 속에서 보고, 배우는 좋은 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물도 앞으로 더 깨끗해질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이 돼서 전기 값

도 더 다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력원자력 사장님께서 팔당댐을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팔당댐 위의 공도교를 통행 허용해 주셔서, 주말이면 많은 주민들이 팔당댐 위 공도교를 지나며 댐도 보고, 시간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덜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경기도민들이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안 해 주시면 차가 너무 막히고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일이 많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춘희 한국도시재생연구원장님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초대 원장도 하였고, 경기도를 구석구석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난번 저한테 경기도-중국 산둥시 위해시까지 한중 해저터널을 제안해 주셔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70km가 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노춘희 원장님과 공동으로 연구해 보니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다, 지금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측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산둥성장은 지난번에 와서 만났는데 자기들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노춘희 원장님은 이번 소수력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무궁

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저보다 20년 어린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시고, 풍부한 학습을 가지시고 많은 훌륭한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박수 드립니다.

우리 구리시장님께서 이끄는 구리시가 이번에 소수력 발전을 통해 그야말로 작은 수력발전소지만 더 큰 고구려의 기상이 아차산을 비롯해 한강, 왕숙천으로 크게 넘치는 그러한 구리시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구리시와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 도자테마파크 '세라믹 유토피아' 출범식

일시 2009년 12월 23일

이천과 여주·광주, 세 곳에서 동시에 도자비엔날레를 열던 것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곳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말씀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진 콩 한 쪽 갖고 세 조각으로 나누다 보니 동네 행사가 돼 왔습니다. 나눠 가지니 기분은 좋은데 사실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은 남이섬 사장님으로 유명하십니다. 남이섬을 성공시킨 분인데, 거길 제가 갔더니 도자기로 잘 꾸며 놓고, 조그마한 호텔도 있던데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강우현 이사장님의 솜씨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곳에도 솜씨가 잘 나타났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우현 이사장님 잘하셨다 하더라도 도자재단 직원분들은 좋다고 보셨습니까. '리버스 프로젝트<sup>10)</sup>'라 하여 확 뒤집는데, 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무려 100일 동안 노력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로 노조 만들어서 반대할 텐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밀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쓰는 14조 도 예산인데, 문제는 엉뚱한 데 안 쓰고 얼마나 실속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자재단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몇백억 정도는 밀어 드리되 확실하게 해내셔야 합니다. 사이 좋게 나눠 먹는 식은 이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광주·여주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한번 이천에서 잘해 보자는 결론입니다.

비교하면 중국 도자는 매우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생활도자입니다. 우리 도자도 중국·일본과 협력과 경쟁을 함께해 세계적인 도자 문화 국가로서 명성을 떨치는 데 도자재단이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몸부림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 한국도자재단의 '창조개벽 프로젝트'. 'Reverse(뒤집기)'를 통해 'Rebirth(재탄생)' 한다는 목표로, 도자공예 분야의 획기적 지원을 위한 '도자 뉴딜산업'과 이천·여주 도자관광 클러스터를 만드는 '도자테마파크 조성사업', 세계적인 도자문화 축제 도약을 위한 '도자 비엔날레 내실화'를 핵심으로 함.

---

## 경기도 체육상

---

일시 2009년 12월 23일

우리 한국인이 어느 한계까지 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세계신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장미란 선수와 아버님, 장호철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오셨는데, 가족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지성 선수도 본인은 못 왔지만 아버님 오셨고, 이강석 선수 가족분들도 오셨습니다. 오산 출신의 최나연 선수 아버님도 오셨고, 오지영 선수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연아 선수는 대회 때문에 못 왔는데, 이분들께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나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미란 선수의 세계신기록 수립 순간의 사진을 호수공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뿌듯해할 장소에 걸어 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아들딸들은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아 한국을 세계에 빛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사진으로 보여 드린다든지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떤 누구보다 애국자가 바로 이분들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가슴 뿌듯하고, 사막 속에서도 장미란·김연아를 생각하면서 그 기력으로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다시 한 번 신기록을 세운다는 위대한 기백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우회

일시 2009년 12월 24일

인요한 박사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내 고향은 경기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서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을 회고해 보면, 오늘이 특히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짧은 33살의 청년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분이 죽었으면 그뿐이지, 왜 2,00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희생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사랑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내던지고, 가장 참혹하게 내던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구석구석이 많습니다. 지하 셋방, 파괴된 가정에서 삶이 언제 끝날지, 언제 모든 것이 해결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의 지도자들께서 1년 동안 무한돌봄, 무한 사랑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실천을 해도, 여전히 한 해를 돌아본다면 부족합니다. 사랑의 실천 등이 부족함을 깨닫는 연말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 무한한 사랑, 무한한 돌봄을 우리 이웃들에게, 특히 이 자리의 지도자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성탄이 되고, 연말의 엄동설한이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그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쌍용차는 사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노사는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이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협력, 화합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핵미사일 등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결국 어떤 핵, 미사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을 보다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해 온 일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가 바로 서기 위해 경기도에 올해 3개의 경찰서가 생겼습니다. 동두천에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 못하는 분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안보,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 가장 희생한 곳에 범죄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구석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고쳐 나가는데, 우리 사회의 평화, 질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더 좋은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세계의 공통된 어려움 속에서 특히 경기도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실천해 주신 경기도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이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 지도자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기도 지도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경기농업 CEO 전진대회

일시 2009년 12월 29일

경기도 농업을 이끌고 계시는 CEO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다들 농촌에서 실패했다, 죽겠다, 망했다 할 때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서 성공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발전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 홍콩 등은 발전이 안 됐지만 그것은 국가라고 하기보단 도시입니다. 선진국 중 농업 발전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등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죽을 지경입니다. 북한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우리는 생산이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품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부르다, 많다가 아니라 예쁘다, 건강하다, 오래 산다, 잘산다, 웰빙 등으로 갑니다. 또 모든 면에서 얼마나 건강에 좋고, 위생에 좋은지를 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남북이 반대로 됐습니다. 식량을 얻지 않고는 못하는 나라와,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가 됐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다 남습니다. 반은 먹고, 반은 버립니다. 농민들이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국 유일의 농업 CEO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선택받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엘리트라 합니다. 단순히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 가장 정예, 핵심, 지도자입니다.

농업, 농민 중 가장 엘리트들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승리, 농업 성공, 가족 화합 성공의 가장 표본을 보여 주신 여러분입니다. 그 점에서 김종필 회장님과 부회장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민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 사실 다른 농민단체보다 이 자리의 농업 CEO 여러분은 특별하게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 등이 오셨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장미도 품종을 새로 만들어서 유럽, 아르헨티나 등에 로열티 받으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인장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바로 과학 영농, 수출 영농, 여러 측면에서 건강 영농, 웰빙 영농입니다. 여러분 농장을 개방하셔서 아이들, 도시민들에게도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여러분이 다 보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 자체가 도시민들,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실천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농업 CEO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는 우리 농업이 잘될 수 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부안에서 죽기 살기로 원자력 반대를 했습니다. 경주가 그것을 가져가서 대박을 냈습니다. 불 줄 모르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밀어내고, 불 줄 아는 사람들에게겐 호박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다 놀라고 있는데 농업을 성공 못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원자력 한 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농업은 6,000년 됐습니다. 우리 농업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농사꾼들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키웁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씨 없

는 수박부터 시작해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 농업에서, 생각을 넘어서 기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악조건 속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경제가 보통 5.5~6%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일 좋을 것입니다. 내년은 정말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기업도 잘되고, 투자도 늘고, 수출도 늘고, 판매도 잘될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는 친환경, 고급, 인증 농산품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노력이 내년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더 큰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누에섬 풍력발전소 개소식

일시 2009년 12월 30일

안산 누에섬 일대 바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전기가 될 줄 우리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안산 바닷바람이 전기가 만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로 해상에 풍력 발전 시설을 갖췄습니다. 누에섬도 아름답고, 바다가 갈라져 모세길이 되는 것도 신비하지만, 여기다 멋진 풍력 발전기라는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안산은 정말 축복받은 곳입니다. 전국 최초 해상 풍력발전소가 안산에 세워진 것은, 하늘이 내린 오묘한 조화, 바로 바람의 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거기다 조력발전소가 이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녹색 안산이 될 것입니다.

이 시설엔 국비 60%가 투입돼 국가에 감사드리고, 안산시와 경기도도 함께 예산을 투자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선도했으면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이 많아 좋은 날, 바람이 많이 불수록 좋은 전기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안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시장 군수 정책회의

일시 2009년 12월 30일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솔직히 돈이 너무 없어, 시장 군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 못해 드려 죄송스럽고 스스로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으실 텐데 충분하게 재정적 지원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엔 선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시장 군수님 뜻을 펼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 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임기는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시 도지사로서 충분하게 뒷받침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은 모든 기관이 예측할 때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5% 내지 6%까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난제가 많은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자력 수출 400억 달러 규모를 해내셨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높은 기술력으로 잘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것이 많지 않은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일자리도 늘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것도 잘되시리라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하시는 시정 등에도 도움을 더 드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민들 의식에서 공직이 긴장하지 않는다고 비춰진다면, 방만한 점이 나타난다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임기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道가 하는 일은 시군이 일 잘하시도록 뒷받침하고 서비스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시장 군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최대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북경, 동경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마련하나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시속 347km 고속철도가 광저우에서 우한까지 연결됐습니다. 세계 최고속 철도인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는 세계 최첨단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눈치 본다고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하면 수도권 더 과밀되고, 자꾸 혜택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이천 하이닉스도 다 됐는데도 눈치 보느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 때문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고, 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장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최장·최고속 철도에다 성장 속도 또한 초고속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 간다면 얼마 되지 않아 우리와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밀리게 되면 과연 우리 일자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서울은 사실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경쟁력 발전의 여지도 있고, 할 것도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안산 누에섬 풍력발전소에 갔었는데, 서해안만 해도 무궁무진한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항 중심으로 보트·요트 사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레저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년에 지나지 않는데 아시아 최고속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각종 걸림돌에 막혀 있습니다.

4대강, 한강 살리기도 정부에서 그 예산으로 지역의 당신들이 직접 해 봐라 한다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여전히 어려운 최전방 지역, 팔당댐, 서해안 낙후 지역에 대해 못하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엔 뜻하는 일 모두 이뤄지길 바라며, 경기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는 발전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지사와 행정인턴 간담회

일시 2009년 12월 3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칩시다. 그동안 재미있으셨습니까, 유익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니실 때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 다니셨습니까? 3개월에서 7~8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느끼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일한다고 하면 조금 알아줍니까. 알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경기도에서 일한 것이 평생 좋은 경험이 되고, 이중에는 다시 경기도에 취업하거나, 더 좋은 곳에 취업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실마리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가는 오직 여러분의 생각, 꿈, 노력, 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경기도와

함께하시며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최선, 정성을 다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퍼블릭 서비스, 공공봉사입니다. 퍼블릭 서번트로서 서비스를 하신 것입니다.

공과 사가 무엇이나. 공은 바로 사가 할 수 없는 공통된 것, 사회적 질서, 규율, 가치 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직, 공인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공은 사와 다릅니다. 공이 여러분 보실 때 느슨한 것도 같지만 공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 규율, 법치 등을 유지하는 큰 뼈대입니다. 공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기업체가 부도가 나도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시면 대우건설이 또 주인이 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너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 국가가 무너지면 망국이 됩니다. 심할 경우 식민지의 경우가 됩니다. 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기여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며 애국심, 애향심, 애민심이 높아지고 애국, 애향, 애민의 정신과 실천을 몸소 겪은 여러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09년 송년사

일시 2009년 12월 31일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만삼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己丑年)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크나큰 애항심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사봉공의 자세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난관을 헤치며 숨 가쁘게 달려왔  
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 쌍용차 사태,  
신종플루 등 난관과 충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의 고통과 불  
안도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분발하여 경기도를 빛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식민지와 분단, 6·25 전쟁의 참화를 이겨 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저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 속에서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이합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경기도에도 어려움과 난관이 많았지만, 천이백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007년 7월 경기도가 시행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완성되어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녹색 교통혁명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무궁한 가능성과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道에 교육국을 설치하여 대학을 유치하고, 지식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한편, 평균 수명 80살 시대 인생 3모작을 가꾸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늘 공부하는 경기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듭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 규제, 군사규제, 그린벨트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민의 재산 가치를 늘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

치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노사정 문화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내, 우리 경기도가 최우수 노사 상생·협력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와 경찰서를 설치한 것은 안전한 삶을 위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좌절한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대표 복지사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출신의 자랑스러운 김연아·장미란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리 국민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가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데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쟁력인 우리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고려 성종 14년인 995년에 7개의 기현(畿縣)으로 처음 시작되어,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라는 명칭으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2010년은 지난 천년 동안 한반도를 이끌어 왔던 경기도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도약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끌어 온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재도약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쟁력입니다. 삼성과 LG, 현대기아차와 같은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근거지이자 첨단 지식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풍요로운 웰빙 경기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배우고 익혀서 날로 새로워지는 교육 경기도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작은 나라 안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의 기반위에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서 세계로 웅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진 일류 통일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 1등, 존경받는 명품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로 도약하는 경기도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니다. 올 한 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고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2010년 신년사

---

일시 2010년 1월 1일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4만 3천 경기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0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명품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느냐 여부를 결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  
(庚戌國恥)가 있는 지 100년, 6·25 동란 60주년, 4·19 50주년,  
5·18 민주화 운동 30주년 등 되새겨야 할 역사와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2010년은 또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고려 성종 14년인 995년에 7개의 기현(畿縣)이 설치된 이래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라는 명칭으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천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끌어 왔던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천년의 꿈을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의 도(道)와 같은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이웃 중국에는 성(省), 일본의 현(縣), 미국에도 주(州, state)와 같은 광역단체가 있고 자치 선진국인 독일은 물론, 프랑스 등 인구 3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에는 모두 우리의 도와 같은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중국의 북경과 상해, 일본의 동경 등과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쟁을 하는 주역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웰빙 경기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배우고 익혀서 날로 새로워지는 교육 경기도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삼성과 LG, 현대기아차와 같은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근거지이자 첨

단 지식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 안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서 세계로 응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이백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007년 7월 경기도가 시행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완성되어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녹색 교통혁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무궁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에 교육국을 설치하여 대학을 유치하고, 지식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한편 평균 수명 80살 시대 인생 3모작을 가꾸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늘 공부하는 경기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듭시다. 지난해에도 기업 규제, 군사규제, 물 규제, 그린벨트 등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민의 재산 가치를 늘리고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사람 중심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와 경찰서를 설치한 것은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좌절한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대표 복지사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만이 살 길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여 新성장동력을 기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확대 정책입니다.

수도권을 옥죄는 기업 규제, 군사 규제, 물 규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서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민의 재산 가치를 늘려야 합니다.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이 잘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대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민주화와 선진화가 가능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기반 위에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특색에 맞게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氣를 살리고, 부품 소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린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 산업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궈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야말로 진정한 녹색교통이자, 수도권에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높일 혁명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사통팔달, 뚝 뚫린 수도권을 녹색·다핵·첨단 공간으로 재편하여 북경, 동경을 능가하는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OECD 국가 중 일은 가장 많이 하지만, 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덴마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과 대학교육 지원, 직업교육 등은 학교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국을 만든 것은, 선진국형 복지의 핵심인 교육을 위해 道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점점 벌어져 왔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통합과 협력의 사회기풍을 다지기 위해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등 사회복지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무한돌봄센터를 시군으로 확대 발전시켜,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어려운 분

들이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자들과 연결하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도민과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청렴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패는 죽음이요, 청렴은 곧 생명이라는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영생(清廉永生)'의 각오로 일합시다.

공직자의 깨어 있는 정신, 공인 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공직자가 됩시다. 무한봉사의 마음으로 도민을 섬깁시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 경제위기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새해 새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0년의 새 아침에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천년 중심, 경기도는 위대합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힘이면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큰 꿈을 갖고 경인년 새해, 힘차게 뚝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일시 2010년 1월 4일

오늘 눈이 매우 많이 내렸습니다. 새해엔 이 쏟아지는 눈처럼 하늘에서 많은 복이 끝없이 쏟아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업에는 사업이 잘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서민들 가정에는 더 많은 행복이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모든 기관장님들 모두 모이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운이 더욱 융성하고 한 단계 일류 선진국가로 올라섰으면 합니다.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것이 두 번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우리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또한 절망에 힘겨운 서민들에게 많은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쌍용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국내에서도 맡을 사람이 없는, 또한 깊은 갈등을 겪은 뒤 민주노총도 탈퇴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후 쌍용차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기도에 극단적인 노사관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어떤 기업도 그러한 분위기에선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가 화합하고, 여야가 화합하고, 민간이 화합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이번에 삼성 이진희 회장님이 사면됐습니다. 재벌이라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을 두고 마치 청산해야 할 악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래선 안 됩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고, 국내 최고 기업 삼성·LG 등 모두 경기도에서 사랑해 주고, 중소기업도 사랑해 경기도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도와주고, 상부상조해 글로벌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 그리고 서민과 부자가 함께 손잡고 칭찬하고, 서로 손잡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반 대기업 정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규제의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물류총량제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를 만들고 기업을 하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를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학을 짓지 못하게 하고, 기업을 하지 말라 하고, 관광단지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물론 DMZ가 지나가는 최전방 지역은 국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군사 규제는 좋습니다. 팔당 물 규제 역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사적 필요성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그리고 물을 더럽히지 않는 하이닉스까지 아직도 안 풀어 줍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몇 번을 약속하셨음에도 안 해 주십니다.

지방이 반발해 못 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심도 철도 GTX 역시 최첨단 녹색교통이며 민간이 전액 투자하는 필요 사업인데도 정부에선 못 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경, 동경과 경쟁해 이겨낼 수 있는 대표선수는 오직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열심히 뛰고 있는 7천만의 명예를 대표해,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의 대표선수로서 북경과 동경을 능가하기 위해 뛰어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지도자분들의 노력으로 5억 평 이상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35년 만에 규제가 가장 많이 풀렸습

니다. 수원도 105만 평 풀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첩첩산중입니다. 비행장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4년간의 지원액 보다 많은 14조를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도 1조 7천억으로 대단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를 위해 350억 이상 지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천년 역사 만에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잘사는 이 시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어떻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한국인은 일을 열심히 하는 면에서 세계 최고이고, 머리 좋은 것 역시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진학률 89%입니다. 수출도 4백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화합하고, 근거 없는 발목 잡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전 수출도 하셨지만, 그뿐 아니라 철도 사업 역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북한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해빙이 있을 것이고, 긴장을 넘어서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일류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데 우리 경기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사가 화합하고, 여야가 화합하고, 지역이 화합하는 등 모든 총력을 기울여 오천년 역사에 새로운 국운을 이뤄 내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2010년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5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그야말로 대설이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후 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상공회의소 변봉덕 회장님 등 기업인 여러분도 눈 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을 왕창 맞는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회 고흥길 위원장님, 신영수·김진표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과 도의원님들, 성남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성남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판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성남의 산업이 큰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IT 중심, 첨단지식 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

는, 세계적 선도를 할 수 있고, 지식 기반형 첨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최선두에 성남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이미 성남은 가장 부자동네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훌륭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남한산성'을 이대엽 시장님께서 20억 이상이라는 거금을 들여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사람들도 다 보러 오는 수준 높은 뮤지컬, 예술 활동이 성남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고도 제한 문제도 반드시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비행장이 오기 전부터 성남은 산동네 등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하러 결혼 가정을 찾아가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성남이 이렇게 잘나가는 최고의 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결단을 내리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공군 우정규 장군님도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수 있도록 박수 드립니다. 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남은 국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한산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는 조국 수호의 성지입니다. 병자호란 등 어떤 오랑캐의 침략에도 함락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한 성남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끌어올리는 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열정적으로 뛰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올해는 일자리가 이번에 내린 눈처럼 더 많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7일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 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설, 폭설입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설(瑞雪)이 많이 내리듯 대한민국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배님,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해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올해 세수가 매우 안 좋아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도 세수의 70%가 부동산 거래세인데, 작년에 거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회장님 말씀을 들어 2월 달의 추가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3개

가 있습니다. 도가 생긴지 천년이 넘었는데 폐지 법안이 3개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과연 어디로 갑니까. 제가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도, 성, 현, 주 등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할 것인지, 문을 닫자는 것인지.

도 폐지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신중양집권화의 경향이라고 봅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도민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이 세종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남 인력시장을 돌고 왔습니다. 제가 경기도는 안 보이고 세종시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하며 국기(國紀)를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 가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기업이 지방 가면 세금 깎아 주고, 땅값을 5분의 1에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육해공·해병대의 70%가 주둔하고, 미군의 90%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 안보의 희생지입니다. 팔당 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규제해서 북경, 동경과 대결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대표선수를 꼭꼭 묶어 놓고, 국제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김연아, 박지성, 장미란 다 경기도 출신입니다. 아무리 생활 체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박지성, 김연아, 장미란 묶어 놓고 어떻게 세계 경쟁을 하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의 경기도 어르신들 너무 점잖으셔서 목소리 안 냅니다. 다른 동네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도 뜨거운 맛을 보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수도권 시민들이 일용하는 식수를 제공하고, 화장장 등 다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소각장 등 다 하고, 정신병동까지 하고, 고아원·양로원·서울랜드 등도 다 합니다.

성남비행장은 성남에 있는데도 명칭이 서울비행장이고, 성남톨게이트는 서울톨게이트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존재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이러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대학진학률이 89%입니다. 미국보다 20%가 높습니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해서 대통령께서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올해 가평고에서 수능 1등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군포 수리고 출신인데 맨땅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도민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운영도 잘해 주고 계십니다. 도가 후진 양성을 위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운 상승을 하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노사 갈등이

우려됩니다. 여야 간 극단적 대결, 한나라당도 보면 친이·친박의 게  
파가 화합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남북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브콜을 많이 보냅니  
다. 정부의 일관적 태도에 의해 북한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소식이 올 것입니다. 원자력 수출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  
에서 세계에 수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운 상승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6·25 60주년, 식민지, 분단,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 땀, 눈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기술, 인적자원 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화합하면 좋  
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남북통일의 대표선수가 경기도입니다. 그  
자리의 대표적 코치, 감독들이 이 자리의 선배님들입니다. 7,000만  
겨레가 하나로 단결해서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통일로 가는 선두에  
경기도가 역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 새해 벽두에 내리는 서설처럼 우리 국운이 그야말로 건국, 해  
방 65년이 되는 올해, 모든 면에서 크게 융성 발전하는 한 해가 되  
길 기원하면서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왕성한 지도를 해 주시길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8일

하남은 한강을 끼고, 남한산성이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신라의 기백이 있고, 백제가 이곳에서 발원을 했고, 대한민국 문화의 발상지이고, 오랜 역사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 하남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남이 86%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한 도시를 86%나 묶어 놓는 이런 무식한 행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시가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김황식 시장님과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제가 취임 이후 그린벨트 235평, 상수원규제지역 236만 평을 풀어 총 481만 평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245만 평입니다.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쓰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땅 없다는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다 묶어 놓고 그린도 없는 그린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규제를 풀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왜 반발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경기도엔 최전방 DMZ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캠프 콜번(Colbern)이 이곳 하남에 있었고 대한민국 미군 주둔의 90%,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70%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없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취수장이 여기 하남에 있지 않나요? 경기, 서울, 인천시민들이 팔당 물 안 먹으면 어디서 나는 물 먹을 것입니까.

이렇게 희생, 봉사, 수십 년 고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 들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바르게 정의로운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남 김황식 시장님과 하남시민,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께 함께 힘을 합쳐 역사가 유구하고 미래가 창창한 하남의 미래를 위해 새 희망과 단결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 인사를 드립니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희망근로, 청년인턴은 결국 정부의 세금을 받아다 그저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인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

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IT,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훌륭한 생산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기업인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인들이 좀 하려면 대기업은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하이닉스의 경우 물을 더럽히지도 않는데 지방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기도 기업인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전 세계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힘차게 뺏아서 세계 최고 기술과 기업 경영 능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히 밀어 드리는 서비스 행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은 기업인이 잘 뛰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 기업인 여러분 반드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새해 다 함께 화합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8일

올해는 국운이 상승할 것을 의미하는 초유의 대설이 쏟아졌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아랍 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했고, 철도나 건설 등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에 맹위를 더욱 떨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쏟아지는 눈처럼 기업인 여러분 모두들에게 돈다발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올해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대통령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드셔야 할 것은 희망근로, 인턴, 공무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인들 일하시기 좋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저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떨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기업인이 뛰기에 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팔당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만드시느라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제 취임 이후 광주에 7,130만 평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광주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6,685만 평, 농지 380만 평, 그린벨트 규제 61만 평, 군사시설규제 4만 평 등 총 7,130만 평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을 더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적 자원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머리도 제일 좋고 노력도 제일이고 대학진학률도 89%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대통령께서 잡아가겠다고 하십니다.

경기도엔 삼성, LG, 현대기아차, 하이닉스 등 셀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광주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서울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수도권 시민을 위해 맑은 물을 만드시느라 희생 봉사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인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훌륭한 기업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 여러분들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8일

기업인 여러분, 올해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흰 눈, 대설, 폭설일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만큼 많은 돈과 복이 여러분 기업과 가정에 많이 떨어지고, 올해 내내 복이 많이 떨어지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융성하고 있습니다. 국운이 대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좋은 해에 기업인 여러분께서 더 힘내도록 저희들이 많이 돕겠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도의회 진종설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김문원 의정부시장님, 임충빈 양주시장님, 오세창 동두천시장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북부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 많이 주시러 경기중소기업청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드립시다.

아시는 것처럼 양주에 LG패션을 유치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전 세계 니트, 염색 부분에서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고, 주문받으면 일주일 만에 납품합니다. 또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가장 집중돼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장님은 기업뿐이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십니다.

제가 포천에 구제역이 터져서 갔다 왔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경기 북부 지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부대, 훈련장이 있습니다.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절반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미군부대의 90%, 육해공, 해병대의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연천은 98%가 군사시설입니다. 동두천은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부대입니다.

동두천은 경찰서도 없었습니다. 동두천 하면 범죄가 있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부대로 내놓고 있는데 미군부대가 언제 이전할지, 지금 미군들은 다 이라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안 만들어 주면 되겠나 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진짜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거짓말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건물이지만 (경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 생긴 후 범죄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보도도 안 됩니다. 누가 나와서 사람 죽이고, 불나야지 보도가 됩니다. KBS 시청료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총국이

없습니다. 전국에 19개 총국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야 보도가 됩니다. 서울은 동상 하나 세워도 보도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을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 100%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도에서도 해 줍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소가 죽으면 100% 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군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에서 무엇을 해 줍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수도권이라고 묶어 놨지 않습니까. 과연 최전방 접경 지역 DMZ가 수도권입니까. 강원도 DMZ는 수도권이 아닌데, 경기도 DMZ는 수도권입니다. 미군부대가 수도권입니까. 군부대가 수도권입니까.

이것 좀 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는가, 말이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헬기를 타고 경기 북부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의 나환자촌에서 염색하는 분들을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쫓기고, 쫓기고 해서 나환자촌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나환자라고 같이 안 삽니다.

(이분들의) 전과가 120건 이상입니다. 그곳에서 공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무허가 공장 짓고, 폐수 왜 버리냐고 해서 그렇습니다. 120번 이상 벌금 내고, 교도소 가고, 딱지 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 전 세계에서 나환자촌에서 무허가로 공장을 하는 이들이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물도 산업용으로 못 쓰고, 전기도 못 쓰고, 도로도 못 씁니다.

무엇보다, 계속 와서 단속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동대문에서 전화 한 통 오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일주일 만에 납품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이분들은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명절도 없다고 합니다. 대구처럼 많은 지원을 받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는 곳은 작은 주문 안 받습니다. 이분들은 한 장이고, 열 장이고 받아서 합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이룩했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국록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세계 최고의 염색단지를 이룩한 신화를 공직자가 칭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정부에서 돌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칙상으로 다 안 되게 해 놔줍니다. 마침 장관님이 와 보시고, 도지사 당신 말이 맞다고 다 풀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희망근로, 인턴입니다.

어떻게 몰도 깨끗하게 하면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업을 도와 드리는 일에 저희를 비롯해 시장님, 군수님들이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소외돼 왔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경기도에서 분도를 하자, 빠져나오면 규제를 안 받지 않겠냐며 나누자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도 합치고 해야 하는데 나눠서 되겠습니까.

온갖 악조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경기 북부 기업인들에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을 돕는 희망찬 2010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눈송이처럼 크게 불어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1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흰 눈이 서설로, 대설로, 폭설로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만큼 많은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모든 분들에게 많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업하시는 여러분은 하시는 사업마다 눈송이보다 많은 행운과 돈다발이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가 국운 융성과 함께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이범익 회장님, 기업인 여러분 정말 올해 국운 융성과 함께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소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우리 안성시에서는 단 한 건의 노사분규 없이 노사가 대화합하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노조위원장님들의 리더십으로

안성이 그야말로 노사관계가 가장 원만한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현안이 되고 있던 세종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근본, 기강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선거 약속이나 국회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든지, 헌법을 고쳐야만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 부처 일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도 분할을 해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수도 분할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는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가 결정돼 토지수용 등이 됐는데, 땅과 예산을 충남과 그 관계되는 해당 지자체에 위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결정해서) 토지·예산을 활용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의 방법을 통한 세종시 발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기업 하나 하는 것까지도 이리 가라고 지시하고 강제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원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지방이 반발해서 우리 지방 것을 뺏어 가느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약속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수용된 토지와 책정 예산을 지방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과 세종시 발전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도 상생하고 서로 잘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DMZ가 지나갑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90% 이상, 대한민국 육해공, 해병대의 70% 이상이 주둔하는 매우 중요한 국방의 요지로, 국가의 방어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전 도 면적의 2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또 군용비행장이 17개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경기도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정부에서 최전방 접경 지역도 수도권이라고 묵지 말고 낙후 지역으로, 충성하는 지역으로 마땅한 관심, 배려를 기울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매일 마시는 일용할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댐 지역이 있습니다. 37년 이상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안성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천안과 다른 충청 지역에 비해 안성이 많이 낙후하고, 소외된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평택은 미군기지가 다 옮겨 가고,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성은 충청도 지역과 평택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잘 압니다. 안성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안성에 있던 규제를 5,180만 평 완화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400만 평을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770만 평을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도 잘 못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도 겹겹이 수도권 규제가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을 입어서 한 벌 벗어도 안에 여러 겹의 옷이 더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를 정부에서 풀어 줬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 못 느낍니다.

아무쪼록 안성 이범익 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서 이 약조건 속에서도 산업을 일으키고, 노력 화합해서 수출, 일자리 창출에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안성시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들 기업하기 좋은 조건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각 중앙부처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기업인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힘차게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 기상을 발휘하실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은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대한민국 국운이 세계로 뻗어 나가 빠른 시간 내에 선진 통일 일류국가로 나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남양주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1월 13일

남양주 센터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앞서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니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단순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복지와 사랑과 나눔입니다. 철학이 있고,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멀리 미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찮은 몸과 마음이 봉사를 통해 얼마나 고귀해지는지 잘 말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를 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양주는 이미 복지가 공무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하는 나눔입니다. 민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매우 체계적이고 서로 협력해서 벽을 넘고, 칸막이를 넘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말씀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시대에는 나눔, 소통, 사랑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갑니다. 가전, IT 분야만이 아니라 가장 머리가 좋고, 대학진학률도 가장 높습니다. 거의 90%가 진학합니다. 일도 가장 열심히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통을 받는 형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재작년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35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어려운 분이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지,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무원은 칸막이가 많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칸막이를 헐고,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과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매니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복지 체계를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와 같이, 또 전체를 연결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에 16개 시군에 합니다. 앞으로 31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합치면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발전해 세계 최고, 1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핸드폰, 자동차, 냉장고, 조선 수출하는 것보다 더 앞선 복지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남양주, 경기도,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발전시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시는 케어센터 여러분과 시장님,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룩하신 것들도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도와 함께 발전시키도록 합시다. 다 함께 힘찬 출발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G-20 성공개최 다짐대회

---

일시 2010년 1월 13일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기적을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가 새마을을 주목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능하게 만들고, 기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단순히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제일 잘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신 분들이 이 자리의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해 보자는 생각으로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이 이 자리의 여러분 새마을입니다!

남들이 말만 할 때, 그것도 안 된다는 말만 할 때, 여러분은 된다고 말,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뭉치셔서 어느 곳을 가도 모든 대회에서 앞자리에 앉으시지 않고, 뜨거운 여름에는 화로를 끌어안고 부채를 부치시고, 가장 추운 날은 바로 빗자루를 들고 집집마다 눈을 치우시는,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며)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땀 흘리는 근면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세계인이 여러분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스스로를 낮추시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는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항상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인정하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실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의 새마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웃과 손잡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협동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G-20, 전 세계 가장 앞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성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식민지를 겪고, 분단이 되고, 중국·러시아·일본과 이웃하는 강대국 안에서 어떻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는지 새마을을 보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새마을이라는 것을 G-20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준공식

일시 2010년 1월 14일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면 박수 한 번 칩시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지역에 햇볕이 드는 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환경부 이만의 장관에게 감사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설이 잘 안 될 줄 아셨죠? 이제 여러분 조사받으러 불러 다니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좋습니다.

우리 국민, 도민, 시민들이 불러 다니고, 벌금 맞고 하는 것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선량하고 착한 여러분이 기분 좋게 포천, 경기도, 대한민국에 사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회장님들 몇 번 불러 가셨는지 세 보세요. 백 열아홉 차례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모든 기자분들이 진짜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다, 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십니다.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범법자가 되지 않고, 선량하고 착한 시민·국민·도민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 앞에서 걸어 들어왔는데 기침이 나고 합니다. 서울서 기침하다가 포천에 오면 오히려 맑은 공기로 기침이 안 나게 해야 합니다. 공기, 물이 좋아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죠?

여러분 하시는데 공기 좀 더럽게 하면 어떠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물입니다. 공기, 물은 여러분의 재산,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시, 국가가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동네 사시는 여러분, 공장 운영하는 여러분, 근로자 주민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을이 산도 예쁘고, 물도 좋습니다. 깨끗한 공기, 물, 공장, 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포천을 같이 만드실 수 있죠?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염색, 섬유, 천을 만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멋쟁이들, 뉴욕의 멋쟁이들, 대통령 부인들이 옷감, 속옷, 넥타이 등을 다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죠?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 깨끗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견학 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드실 수 있죠?

같이 손잡고 해 봅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일시 2010년 1월 18일

사회복지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큰 눈이 많이 내렸는데 큰 눈처럼 여러분 가정과 많은 외로운 분들에게 좋은 희망과 선물이 많이 내렸으면 합니다.

김원영 회장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제일 앞서서 복지는 말할 필요 없고, 세계 제일의 복지시스템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뿐 아니라 모두가 무한돌봄 등 많은 복지를 통합하고 또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새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복지가 자칫 공무원, 관 예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농협, 축산협회 등 민과 관이 협력해 왔습니다. 복지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주변 배경까지

감안해 통합 행정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와 취업 교육 등이 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 자원봉사 모두가 힘을 합쳐 모두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사람이 행복하고 어려운 이들이 잘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인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있지 못해 왔지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인사 보냅니다.

모든 면에서 새해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협약선포식

일시 2010년 1월 19일

MOU를 체결한 뒤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세계적 경제위기로 1년 지체됐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해 주신 황인준 부회장님 오셨는데 젊은 분이 꿈을 갖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롯데에서 신동빈 부회장님 오셨는데 참여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그룹 신동빈 부회장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제가 LA, 올랜드, 오사카, 싱가포르 등 모든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다녀 봤습니다. 운영 중인 3개를 합쳐도 우리 것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에 획기적 발전에 도움 주시는 윌리엄스 토마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유니버설스튜디오 성공을 위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찾아뵙고 차관님 장관님과 말씀 많이 나눴습

니다.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롯데가 맡아서 하면 실적도 있고 성공하고 있기에 잘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 주인이 수자원공사로 돼 있습니다. 땅 문제 잘 협조해 주십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도엽, 정창섭 차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땅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을 전부 사서 테마파크로 할 경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공이 지원 안 해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언론에서도 많은 이해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를 하는데 정부에서 안 도와줘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철도 놔 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시화 매립지는 국토해양부 땅,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화성시나 저역시 권한이 없습니다. 철도도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역시 국토부입니다.

지방에선 다만 소기업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연결하는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김성희, 박보환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결국 힘을 써 주셔야 할 분은 역시 권도엽 국토부 차관님이십니다. 대통령 앞에서 잘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국토부가 마음먹으면 땅, 항만, 교통 등 모두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1년 늦게 시작해 올해 내로 준공합니다. 결국 속도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4배 느립니다. 싱가포르 보다 2배 느립니다. '

만만디 코리아여선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속도가 안 나선 안 됩니다. 속도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게 적어도 중국의 절반만큼은 유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권도엽 차관님 등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미래의 문제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일자리, 관광, 위상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 신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 경인일자리센터 간담회

---

일시 2010년 1월 20일

우리가 이번에 하자는 센터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던 센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칸막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민간-공무원 상호간, 또는 내부적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예산 등을 고민하는 통합적인 일자리 센터가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보고서 위주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만 많고 실행은 없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중심으로 하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이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가장 필

요한 게 무엇인지, 정보가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종합적으로 듣는 쪽으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보니 우리 경기도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자리 현장은) 통상의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직원이) 별정직이든 임시직이든 이런 일자리 회의 자리에서 우대받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가 1만 페이지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를 들어 과출부 소개소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필요한 알선료를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라든지 이런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따로 있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의 어느 집에 누가 일자리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일자리 해 주고 그에 대해 돈을 버니, 민간 사업인들은 일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제도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실제 도움이 되고 실제로 도움 되는 일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절대 서류 위주로 하지 맙시다. 실제 일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쌍용차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보와 기회를 주는 일자리센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

##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신년인사회

---

일시 2010년 1월 20일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높에 빠져 있습니다. 벌써 선진국이 됐어야 했는데, 올해는 중진국의  
높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도 아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 장충체육관 등 주요 건물들을  
많이 지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뒤처져 필리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오십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가운  
데 좋은 머리와 성실함으로 가장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70%  
대학진학률보다 높은 90%의 대학진학률입니다. 머리도 좋고 성실성  
도 최고인 한국인입니다. 김연아 선수부터 삼성·LG, 다 일등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정신과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노력으로도 도와 드리려는 게 선진국입니다. 어디 노력 없이 누가 도와주는 일 아닌가, 공짜 없나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국가가 날 위해서 왜 무언가를 안 해 주나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처럼 국가로부터 도움 많이 받은 국민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나 북에 대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국가나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한다든지 해선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노사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돈 많이 받는 기업들 순서대로 파업 많이 하는 이런 문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나서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운동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이 국가에 대해 감사한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끌어 갈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 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전 국민적으로 모든 구석구석에 정신적으로 스스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道에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일시 2010년 1월 20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미경 의원님께서 훌륭한 공청회를 개청하게 되신 데 1,1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경기도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 경우 중에 이렇게 입추의 여지도 없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 법사위원장님이신 유선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님, 강성천·조문환·임동규·차명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얼마나 센 줄 몰랐는데, 그만두고 나니 알았습니다. 국회에서만 잘해 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강력한 힘으로 국민들의 여러 어려운 점을 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 그동안 수원 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한 바 있고, 정미경·원유철 국회의원님 등 여러분들께서 발휘해서 계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발표문에 경기도 실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보니 모두 공감하시고, 설치에 대해 이론이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고등법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도 인천의 분교밖에 없습니다. 국립대학도 없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경기도가 전국의 16%의 상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데 대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법원장님을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는 데 같은 생각이신데, 오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과의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같은 생활권이지만 경기도는 최대자치단체로 서울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 때문에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생각은 의정

부는 서울에서 말아야 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는 의정부에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고등법원 설치 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재안전담배소송으로 갔는데, 지금 건물이 매우 좁고 불편합니다. 이미 옮기기로 결정돼 있고, 옮기는 곳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고등법원 설치를 하면 어차피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건 자체가 꼭 맞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명칭과 위치, 여러 검토가 법원 당국에 의해 되겠지만,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사건도 가장 많은데 서울에서 받으라, 다른 지역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민도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가운데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의 유선호 위원장님, 심재철 · 원유철 국회의원님 모두가 애를 써 주시고, 국회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150만 경기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자리의 국회의원님들께 큰 절로 청해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좀 봐주십시오.

##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일시 2010년 1월 21일

김태룡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목표가 최근에 희미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등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의 목표, 세종시냐 아니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국내 대립 외에 어떤 글로벌한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늘 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산업, 교육, 도시 계획, 문화, 예술 등에 대해 목표에 걸맞은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주체 세력이 누구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끌고 나갈 것입니까.

정당,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 목표, 전략, 구체적 실현을 책임질 주체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속도가 4배 이상 빠릅니다. 중국이 최근 1,000km가 넘는 철도를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4배 이상 빠르게 국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도 북경의 70%입니다. 경기도는 하북성, 산둥성, 광둥성, 요녕성과 자매입니다. 성 하나가 보통 4천만~1억 명입니다. 성 하나가 남북을 합친 것보다 큼니다.

이 거대한 중국이 우리보다 몇 배의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세종시로 수도 옮긴다, 안 옮긴다.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이 다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사실 경기도 문제가 지방과의 문제가 아니라 북경, 상해, 동경과의 문제라 봅니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바쁜 시간에, 늘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지방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도 북경의 70%입니다. 충남, 충북, 강원

일부를 합쳐도 북정보다 크지 않습니다. 북경시 하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거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 무엇이며, 젊은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 줄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행정학회가 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성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통일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싫어할까 싫어서 논의를 못합니다. 통일을 노래하면서 구체적 실천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글로벌 하면서 실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너무나 안 되고, 오직 모든 힘이 세종시냐 아니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여기에 모든 시간, 언론의 지면, 지식인들의 관심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좋은 논의를 해 주실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행복키움통장 공동지원협약

일시 2010년 1월 25일

올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행복키움통장 전달과 금융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다 모아도 720만 원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셨으면 좋겠죠?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60만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하면 좋으시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좋겠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72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72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실 때 우리 경기도, 정부, 친구,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249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 모르시죠? 저도 다 모릅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찾아 먹을 것도 많지만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센터로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어떤 혜택을, 남편이 골치를 썩인다는 경우, 아이들이 그렇다 등, 거기에 맞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사무소를 가면 노동부 가 보라 하고, 노동부 가면 여성부 가 보라고 하는 등 너무 많이 업무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군데서 여러분을 도울 센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든 오셔서 물으시면 아이, 노인, 몸이 아프신 분, 장애인 등 전부 하나씩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면 좋으시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통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국가, 도, 시, 또 오늘 애를 써 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여러분 필요하신 것 꼭 도와 드릴 것입니다. 무한돌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어디보다 가장 앞서 나가는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 일자리가 없으신 분, 집이 없으신 분 등 이런 분들은 100% 도와 드려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한돌봄 사업을 했는데

약 385억을 써서, 2만 8천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아서 못 썼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어떤 경우든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곳곳이 일어서는 한 반드시 우리가 친구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복지의 기본은, 여러분이 한 장소에 가서 원스톱 서비스로 249개의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249개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다만, 절망하는 분들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돕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이 수원, 의정부, 포천 등 6개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립병원 수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화성에 공부방 시설에 다녀왔는데 열심히들 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연천이 아주 멍니다. 또 군사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은 더 도와 드립니다. 수원, 성남은 상대적으로 잘 삽니다. 도시마다 어려운 곳은 더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실 것이죠? 오늘 이 자리의 통장은 바로 희망을 키워 나가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외롭지 않다, 희망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경기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식'

일시 2010년 1월 26일

일 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해 특별자금 2천억을 융자하는 이 자리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기쁩니다. 김태영 농협중앙회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농협이 농민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상당 자금을 특별 융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얼마나 생기겠는가는 미지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3D업종이나 제조업에는 일을 잘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구리 공정을 택할 경우 6천 개 일자리가 생기는데도 정부에서 (공장 증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대통령부터 정부에서 다들 알고 계신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옥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규제가 없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규제에 과감한 해제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기도 시군별로 일자리가 얼마이고, 실직자가 얼마인지 통계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만들고자 했으나 통계청에서 못 만들게 합니다. 이유는 자칫 국가가 만드는 통계와 달라 국가통계의 신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시군 통계를 못하게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계 작성을 억제하는 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쳐 각 시군별로 일자리 통계를 내야 합니다. 통계도 없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없이 말로만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정책은 그만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책임과 거리가 먼 농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해 특별융자를 하겠다고 나서 주셨습니다. 김태영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농민 여러분께 박수 한 번 드립니다.

## 'IT 희망나눔 PC돌봄이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일시 2010년 1월 27일

오늘 이렇게 PC돌봄이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도를 방문해 주신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님, 저와 17대 국회 동창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세대로 촉망을 많이 받던 분입니다. 진짜 PC, 디지털, IT를 현장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경기도에 특별한 사랑의 발걸음을 하셨는데 박수 보내 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의 김동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님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안철수연구소의 보안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독보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보여주시는 대표님께 박수 보내 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마스코트 '118 빼꼼'에게도 박수 보내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시각·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서울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경기도로 몰려옵니다.

복지시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 힘에 부칩니다. 요즘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많이 올수록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PC돌봄이를 통해 힘에 부치는, 잘하기 힘든 영역을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돌봄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복지시설과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 더 진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1월 27일

오늘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이곳(시흥시)은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그 한가운데 경기공업대학이 있고, 그 중소기업관에서 서부지소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작습니다. 여기가 작은 사무실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화수 국회의원님, 진중설 도의회의장님 등 여러 도의원님들, 심동섭 경기중소기업청장님, 김윤식 시흥시장님, 경기공업대학 총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서부지역 기업인 회장님 등 여러 기업인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중기센터가 하는 일이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두꺼운

데 간단히 핸드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일 많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수백 가지를 하고 있고, 액수도 많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9988<sup>11)</sup>'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업인들은 어려울 때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지소가 바로 그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기 오면 다 됩니다. 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한 군데서 끝내 줍니다. 이것이 핵심적 서비스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조금 눈치가 빠르고, 소위 요즘 말로 빠른 분들은 챙기고, 안 빠른 분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아닙니까. 얼마나 밀착해서 가까이서 한 번에 끝내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십니다. 지경부, 국토부, 여성, 청년, 노인, 따로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원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경기중기센터는 한 번에 끝내 줍니다. 시흥, 부천, 안산, 광명 이 지역에서는 여기 오시면 경기도 관련된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 중소기업이 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의 보고라는 뜻에서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나온 표현임.

자금·기술·인력, 기타 수출·판매 등 어느 부분이든, 기업인들이 기업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부부 갈등조차도 여기 와서 하시면 한 번에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8,500가지가 조금 넘습니다. 중앙의 모든 사무가 지방에 오면 만납니다. 지방이 힘이 없지만 다 여기 와서 만납니다. 기업인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어려움, 쓰레기, 정채 문제 등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 주시면 해결은 못해도 적어도 답변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로도 서안산IC,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기업인들에게 수백 번을 듣고,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올 때마다 보면 길이 부족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등 많이 하지만, 여전히 막힐 때의 병목을 못 풀고 있습니다.

서부지소가 작지만, 피하지 않고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다르다, 이야기하니 반응이 있네, 빠르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잘하실 수 있게 박수 보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큰 기관은 아니지만 윈스톱 서비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서비스 MOU 체결식

일시 2010년 1월 28일

무료 법률서비스를 위해 의정부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님 등, 좋은 법률서비스 활동을 해 주시기로 해 감사드립니다.

법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법이 너무 멀고, 잘 모르시는 도민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서비스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에도 많은 도움 주시는데, 모두 협력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기도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 및 시설 설치에도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노력이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일자리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2월 1일

오늘 개소하는 경기일자리센터의 핵심은 원스톱입니다. 한군데서 토털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일터로 가서 일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한방에 끝장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는 민간 1,000여 개, 기관 200여 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이곳에 한 방에 모아 구직자 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똑같은 일자리센터를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고자 합니다.

도내를 둘러보면 시군, 노동부, 중기청, 복지, 노인, 여성, 대학, 장애인 등 분야별로 여러 일자리센터가 많은데 이를 모두 통합해 끝장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 60~70%를 만들고 있는데 이처럼 저력을 갖춘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뭔가 다르게 실질적인 일자리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곳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임태희 장관님은 성남 분당 출신이고, 그야말로 경기도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금의환향하신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숙원 사업이, 바로 경기도에 왜 경인(노동)청을 안 만들어 주는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인노동청이 인천시청 앞에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노총과 이화수 국회의원님 등 탄원서를 함께 올렸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임 장관님 오셨는데, 경기도에도 노동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경기도에 왜 노동청이 없는지 그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드립니다.

## 고양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2월 3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강현석 고양시장님 말씀대로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249개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무엇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없는 분들 많습니다. 노숙인이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쟁이가 협박을 해서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망가고, 가족은 흩어진 사람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제도를 넘겨 보고, 규정을 넘기면 해당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도, 칸막이를 넘어 사람을 봅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규정을 넘어서 예산을 1원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칸막이를 없애 보자, 그리고 사람이 곧 매일매일 죽을 지경인데 심사하다 때를 놓쳐서 자살까지 합니다. 빠르게 해 보자. 현장에서 접하는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접하는 순간 즉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무원들이 책임지게 하자.

사후에 잘못되면 고치더라도 일단, 어려운 사람을 시급하게 칸막이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 어려운 사람을 절망에서 일으키자.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도 핑계 맙시다. 경기도 돈 많습니다. 돈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국가적으로 이 위기가 왔는데 대응이 늦었습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긴급히 시작했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마음이 많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분 너무 많고, 돈도 많다고 봤습니다.

음식점만 가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돈만 해도 남북이 다 먹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 다 구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조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칠 책임이 있고, 고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민간에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많고, 보직 변경이 잦아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50~60년, 평생을 바치는 천사들이 민간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마음 고귀하고, 노하우 더 많고, 시스템도 오직 이웃을 위한 이타적, 헌신적 섬김의 삶을 일평생, 대를 이어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돈도 가지고 제도도 가졌지만, (민간에게는) 민간의 고귀한 정신과 삶,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민관이 합치자,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나눠 보자는 것이 무한돌봄입니다.

사람이 제도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민간에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몸을 낮춰서 그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가정,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정이 먼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질 때 노약자, 장애인이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들과 끈끈한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세계에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 넘어설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복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홍보대사를 맡아 주신 박해미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어려운 가정, 위기에 처한 가정에 다시 손을 내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도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정신, 실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V, 철강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따뜻한 복지제도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 봅시다. 특히 저는 고양시가 가장 안정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정말 고양이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앞장서 나가는 세계 제일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람이, 사람으로 존엄하게 섬겨지는, 또 사람을 섬기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훌륭한 분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연찬회

일시 2010년 2월 4일

이영문 교수님께 박수 보내 드립니다. 제가 정신보건 사업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영문 교수님 때문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이, 어른, 노인, 사람들의 정신 문제에 대해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성을 바쳐 의사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영문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영문 교수님의 광팬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아주 삭막해져서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문 교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까도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경기도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을 검사를 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획기적 발상입니다. 1학년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1학년만 하면 안 되죠, 다 해야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료를 주셔서 읽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식별할 수 있고,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이 자리의 여러분뿐입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사선생님,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아이, 어른, 모든 분들을 볼 것입니까.

통계를 보니 OECD 국가 중 2008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3위입니다. 경기도 자살률 1위가 연천군입니다. 오늘 연천군에서 오셨습니까. 멀어서 오시지도 못합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이 농약 잡숫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제가 교수님께 상의를 드리니,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 한 분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모든 사랑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시스템 탓, 조건 탓하지 말고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분들이, 진정한 인도적 삶을 살겠다는 분들이 (실천을) 하시면 사랑 바이러스가 전염됩니다. 실천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제가 일정 바쁘고, 큰 모임 많지만 이영문 교수님이 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기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공

짜로 밥 준다고 하면 제일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입니다. 밥 못 먹는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무한돌봄부터 시작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정신보건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정신보건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가 가장 좋은 것이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연속극보다 더 많이 봅니다. 애써 주시는 이영문 교수님, 오늘 오신 여러 교수님들, 보건소장님, 의사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진실 등 죽어서 기사를 보면 우울증,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헌신적으로 오지에서 남이 알든 말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1시장-1대학 '민들레 쉼터' 창업개소식

일시 2010년 2월 4일

민들레 쉼터 김 사장님 잘생겼죠? 아직 학생이시자 이젠 사업가이십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오늘이 입춘대길인데,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돈 많이 버실 거죠?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대박이 터지고, 부자가 나왔다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안양시장에서 봉사하고, 친절한테 돈은 못 번다고 알려지면 안 됩니다.

창업 전략을 들어 봅시다. 친절을 최우선으로 중앙시장을 운영하면 민들레 시장에 대한 좋은 인식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들레 쉼터 팀은 차별

화가 됐습니다. 차별화가 전국 모든 전통 재래시장으로 퍼져야 합니다.

중앙시장에 가게를 여는데 도지사, 시장, 총장 등이 다 왔습니다. 오늘 언론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창업 자금이 2,000만 원인데, 오늘 언론광고홍보비는 20억의 효과일 것입니다. 20억 이상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업 멤버들 모두 다 나와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다 안양대학교 학생인데 젊은이들이 시장의 어떤 상품들 보다 생기 있고 멋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안양 중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고, 상인분들에게 자문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이곳) 우동 맛이 세계 제일이라 합니다.

오늘 보니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가게가 대박이 터져서 우리 학생들이 돈도 많이 벌 것입니다. 봉급도 잘 줘야 합니다. '알바' 하는 이상으로 더 줘야 합니다. 친구니까 대충 공짜로 해선 안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대박 나고, 잘하도록 박수 한 번 더 보내 줍시다.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일시 2010년 2월 4일

오늘 이렇게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발표해 주시는 국토연구원의 박사님, 사회를 맡아 주신, 제가 평소에 늘 많이 배우고 있는 최막중 교수님, 토론에 애써 주신 박영철·박재홍·한범수 교수님, 신윤관 푸른경기21 사무처장님, 화성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해안 발전계획안은 인천시, 충남, 전북, 경기도가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서해안, 황해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곳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황해 시대가 눈앞에서 크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요녕성, 산둥성, 하북성, 광둥성이 자매관계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몇 달에 한 번 가든지 정말 괄목상대하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보지 않으면 놀랄 정도로 엄

칭나게 빠른 속도로 저 광활한 곳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산동성 인구가 9,500만입니다. 남북 합친 것보다 큼니다. 광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중국과 마주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동해·서해·남해, 수도권·비수도권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직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처지가 어떤지, 특히 서해안, 황해를 쳐다볼수록 갑갑합니다.

서해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NLL을 사이에 두고 북의 포사격만 요란합니다. 북도 깜깜한 미몽에 싸여 있고, 국내는 세종시 이야기만 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철도 건설 속도는 우리의 4배입니다. 1,000km 철도를 순식간에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철도 기술력이 더 있음에도 중국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도시, 과학기술, 우주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 장막을 걷고 우리 앞에 너무나 거대하고, 스피디한 모습으로 뚜렷하게 모습을 나타내는 이때, 대한민국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나는 점에서 오늘 종합계획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막연한 일반인들의 우려, 인식을 보다 더 과학적·체계적으로 전문 연구자들께서 좋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대륙을 향한, 바다를 향한, 통일  
을 향한 꿈, 중국과도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소망이 과  
학과 만나 올바른 대한민국의 통일, 발전, 응비의 에너지가 되길 바  
랍니다.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일시 2010년 2월 5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경기도 첫 방문이어서 모시느라  
좀 늦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경인 메갈로폴리스' 구상에  
공감과 환영을 표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광역인프라 기획단을 구성  
하자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중심에 계시는 시장님  
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하는 데 대해 적극적 동의를 표합니다. 모든  
도민들이 대대적 찬성을 보냅니다.

광역 수도권 규제 혁파단을 만들자는 내용도 항상 목마르게 기다리  
던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3개 시도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함  
께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님은 외국 출장 중이시지만 인천시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봅니다. 평소에 인천시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왔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인 메갈로폴리스를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환영을 합니다. 오시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일시 2010년 2월 11일

제가 도지사 출마를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 경기도민중 60%가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경부고속도로 2층, 새로운 외곽순환도로 등을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2층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그동안 더 막혀서 임기 내내 옥먹다가 집에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결론은 철도였습니다. 이한준 사장님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특보로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의 이태식·오영태 회장님께서 연구하신 결과 GTX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보상비 걱정 없고, 민원 소송 걱정 없고, 빠르게 값싸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터널학회에서도 도와줬는데,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3개 학회의 도움으로 용역을 끝내고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GTX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용역이 끝났는데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지방에서 수도권만 해 주냐고 싫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부터 GTX로 다섯 번 이상 찾아뵙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 녹색교통,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전거만 탔습니다. 어떻게 녹색이 자전거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합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메가시티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자전거 타는 기사만 도배를 했습니다. 철도는 보도가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 제가 자전거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철도입니다.

철도는 원자력 시장보다 3배가 큼니다. 우리나라 철도연구소가 세계 5위권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써야 합니다. 철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녹색은 철도고 메가시티의 주 교통수단은 철도입니다. 세계적 상식이자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1,068km 철도를 개설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자주 갑니다. 경기도 자매도시가 하북성·산둥성·요녕성이고, 천진이 우호도시입니다. 중국에 자주 가 보면, 우리나라의 4배

의 속도로 철도를 깔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공사를 합니다. 우리보다 4배가 빠릅니다. 발전 속도가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 막히니 지방으로 정부부처를 옮기자 등의 시대착오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시베리아, 유럽으로 철도를 깔아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옮기려는 생각만 합니다.

이 나라에 지성이 있다면, 이 나라가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국가라는 점에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철도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학회에서 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차세대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실 원희룡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목표가 무엇인지, 일본·러시아·중국과 이웃하고 있는데 경쟁 안 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를 안 알릴 것인지, 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동네 조기축구만 양성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표선수 발목 묶고, 조기축구 많이 해서 월드컵 때 누가 나갑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철도교통학회 세미나에 대해 다시 한번 지방의 동네 살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성, 목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 이 세미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땀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 도성문화 재발견과 산업화 토론회

일시 2010년 2월 16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 엄청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시행되면 정말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3년 9개월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내용이 발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고, 핵폭탄급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 화성, 호로고루성, 아차산성 등 경기도엔 수많은 산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고 용건릉, 회암사 등 아주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복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화성에 가서 정조와 악수를 할 수도 있고, 동시통역이 자동으로 되고,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서 명료

하게 위성에서 화성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되는지가 가장 문제일 것입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 발표 내용 중 일부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 해도 굉장히 놀랄 정도가 될 것입니다.

## 경기도-서강대 GERB<sup>12)</sup> 캠퍼스 양해각서 체결식

일시 2010년 2월 17일

유시찬 이사장님께서 경기도가 좋은 결단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서강대가 탁월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 태어나고 이렇게 서강대의 쟁쟁한 지도자 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좋은 체결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석우 시장님, 도의원님 모두 오셨습니다. 남양주시 전체가 서강대를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강대의 학교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 궁금해 했는데, 서강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젠 서강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한강대가 되는 것입니다.

12) Global Education, Research, Business

한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이 있었고, 중국 등 세계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습니다.

팔당댐과 남한강·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자 한강에서도 가장 식수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남양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다산 선생님 생가가 있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대한민국 당시의 학문을 크게 쇄신하기 위해 실학을 여러 면에서 탐구하고 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조선 후기 최대 학자임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적인 학자가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곳에 서강대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학문을 쇄신해 전 세계와 인류에 큰 업적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서강대가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엔 종합국립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있는데 경기도엔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대학도 없습니다. 웬만한 곳엔 시립대학도 있는데 왜 경기도엔 독립대, 시립대가 하나도 없을까요.

경기도 학생의 50%가 다른 데로 유학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종합대라 해도 포천대진대와 고양의 항공대, 이렇게 들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무려 10개 도시에 4년제 대학이 없습니다.

서강대가 남양주로 온다면 경기도의 독립대학이자 남양주의 시립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원·시의원님들 이렇게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주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릉숲도 있지만 아름다운 천마산과 한강 등 물도 깨끗하고 좋은 식수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또한 6,800만 평이 있습니다. 엄청난 좋은 땅에다 모두 평지인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서강대가 마음껏 활용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활짝 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좁다고들 하는데 경기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 홍콩의 10배인 엄청난 땅입니다. 경기도 인구밀도는 서울의 6%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 경기도에 오셔서 웅비하는 훌륭한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전 경기도민들이 훌륭하신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서강대 지도자들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일시 2010년 2월 19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택시기사를 일요일마다 하는데, 용인 남사면 보건진료소 보조하시는 분이 타셨습니다. 그분이 조금 있다가 관뒤야 할 형편인데 계약이 짧은 것 같습니다.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 본인도 만족하고, 보람도 느끼는데 소장님들 보실 때 필요하십니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므로, 봉급이 많다기보다, 사람들 건강을 위해 본인이 봉사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보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참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TV 프로그램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어려운 분을 도와 드리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살 부분, 건강관리 부분도 혜택을 받는 분은 많이 받지만 어려운 지역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구체적인 개인 상담을 받거나 하는 등의 혜택이 적을 것입니다.

이 구석구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정보, 판단,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을 제가 스카우트했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점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교육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견해를 듣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군수님이 하시고 계신데, 제가 도움이 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꿈,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의료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생생하게 1인 3, 4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가는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개강

일시 2010년 2월 19일

어르신들께서 내 집 마련,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십니다. 집이 재산목록 1호입니다.

저도 재산이라곤 조그만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집이 재산이고, 꿈이고, 모두인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 문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꿈도 많습니다.

집 문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점이 집 문제를 가지고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오래 살아서 낡은 곳, 재개발, 재건축 등 (집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건설 회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을 보

고 매우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전부터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게 20개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떤 분은 서민들 내쫓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다수가 찬성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세금 걷어서 해선 안 됩니다.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안 합니다. 이것을 강제로,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남의 집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빨리 안 하나', 왈가왈부하는데 대체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누가 바람을 잡으면 휩쓸려 가다가, 다른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골탕 먹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와 시의 공무원들, 도의 공무원들, 시의원, 도의원 등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이익이 있고 불편한 점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대화하고 공부하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오산시 뉴타운을 시민들에게 꼭 맞고, 마음에 드는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 용인일자리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2월 22일

일자리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다 답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지금까지 여성은 여성센터, 노인은 노인회관, 청소년은 대학·고교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센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따로, 외국인도 외국인 따로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시면 대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누구라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가 보십시오.'가 아니라 이곳에서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 받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119에 (전화를) 걸면 전국에서 어디라도 쫓아옵니다. 불이 안 나도, 몸이 아파도, 119에 걸면 응급실로 모셔 드립니다. 우리는 모르겠다고 안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엄마가 없어서 울고 있어도

119에서 받아서 갑니다.

통합서비스입니다. 통합을 해서 국민이 원하시면, 용인시민이 원하시면 일자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받아 드립니다.

둘째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 아이는 가출, 부모는 몸이 편찮으신데 남편은 때리고, 부모는 치매고, 아이는 가출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센터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어머니를 취업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알코올 중독, 구타를 치료하고 아이는 다시 돌봐서 공부를 하든 안정되게 하고, 치매 걸리신 분들은 요양센터로 모시는 통합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20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각종 일을 모두 통합해서, 어떤 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쉬어서 컴퓨터를 모르겠다고 하면 가르치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시키고, 위장병 있으면 치료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자리센터는 노동부에 가면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때린다고 하면 '여성부, 경찰서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일자리센터는) 그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는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섭니다. '세계 최고 용인'이라고 써 놨는데, 어떤 이들은 무슨 용인이 세계 최고냐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웃는 분 계시는데 됩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모태범, 이상화 아시죠? 안 된다고 해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먹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은 세계 최고를 해 보겠다고 하고, 만약 서울은 안 해 보겠다고 하면 해 보겠다는 사람이 일등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계 최고로 잡고 단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세계 최고를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용인시민들께서 서정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를 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일자리센터,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다짐하고, 여러 가지로 처음 해 보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해서 일자리를 구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우리 일이 아니다. 다른 곳, 여성부, 도청, 노동부 가 보십시오.'가 아니라 전부 연결하고, 직접 안내해서 원하시는 일을 얻으실 때까지 무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이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삼성전자 제3연구소건립 양해각서

일시 2010년 2월 22일

경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용서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크고 좋은 연구소를 세우는 데 보다 많은 시민, 도민,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삼성연구소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연구원들이 세계의 보배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안 겪고, 이곳에서 연구하다 필요하면 잠도 자고, 아이들도 키우고,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완전히 통합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고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R&D 도시로 첨단 연구원들이 연구 생활, 자녀 육아 및 교육을 마음 놓고 하면서도 미래를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교신도시도 만들고 있는데, 연구원들에게 보다 적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녹지율도 41%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학교도 가장 좋은 초·중·고교를 유치하고 대학도 열심히 지원해 도시를 만들 때라야만, 수원과 경기도가 연구에 적합하고 첨단 지식인들의 연구에 적합한 도시라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현실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삼성로 공사를 시작만 하고 임기가 다 돼 가는데도 말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대로 끝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잘되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출발해 세계 1등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명성을 떨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경기도 공무원들 모두가 삼성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노력해 주신 삼성 최지성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전 도민과 국민이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일시 2010년 2월 23일

요즘 밴쿠버 올림픽 때문에 우리 모두 기분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하고 계시죠?

모태범 선수가 특히 포천에 있고, 이정수 선수는 용인 단국대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메달을 잘 딸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핸드폰 가전 철강 모두 너무 잘 만든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손재주가 너무 좋고, 주어진 일에 가장 열심인 성실성 등 평가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체육도 최고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입니다. 저는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위를 끌어올리는 데 이렇게 스포츠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뿌듯합니다. 스포츠가 그야말로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동계체전 9연패, 하계체전도 8연패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대표선수라는 부분을 확인했고 (선수들에게)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도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 드라마 '로드 넘버원' 제작지원 MOU

일시 2010년 2월 24일

이장수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로드 넘버원'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습니다. 조재현 영상위원장님, 주연 배우 소지섭·김하늘 씨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께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을 연기해 주십시오. 오늘 김연아 선수 보셨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모태범, 이상화 선수 등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오니 참전용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이렇게 잘된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만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다룬 작품입니다. 정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분단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일시 2010년 2월 24일

특히 국고를 10억이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이 지역의 이사철·임해규·원혜영·차명진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께서 애쓰시고, 道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도 힘을 합쳐 부천을 영상미디어 도시로 발전시키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대한민국 하나이자 세계 최고인 것을 개원했습니다. 국가적 기관을 만화·영상과 관련돼 (개원)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경기도에 하나뿐인 디지털 콘텐츠진흥원도 부천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 최초로 영상문화센터를 개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MBC 드라마인 20부작 '로드 넘버원'이 6·25에 맞춰 방영됩니다. 조금 전에 (협약 체결식에) 다녀왔습니다.

부천은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 명당입니다. 국철 1호선, 7호선, 경인국도, 경인고속도로, 김포공항, 영종도 인천대공항, 인천항구, 소사에서 원시로 가는 서해선 철도, 소사에서 대곡으로 가는 경의선 철도와 연결되는, 그야말로 도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을 이용하는 항구 등 모든 부분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높은 부천이 그동안 특히 중국과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의 13억 인구, 인천공항 옆에 있으면서 서울과도 가까워서 인천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부천은 특별히 노른자 중의 노른자입니다. 어떤 산업을 해도 잘되겠지만, 땅이 여지가 없습니다. 땅은 좁지만 영상미디어 산업 부분에서도 미래의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장 등은 땅이 좁아 대기업이 들어오기 힘들고, 농업하기 어려운 점 있지만, 영상은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3D 영화) '아바타' 등이 나옵니다. 전부 그래픽으로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상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화, 영상, 필름, 로케이션 부분을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 다른 문화산업처럼 유적이 있고 땅이 넓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컴퓨터 앞에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가장 적합한 도시가 부천입니다.

오늘 미디어센터 개관은 국가적 사업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들이 일치단결해 유치함으로써, 새로

운 미래 산업으로 영상미디어 산업이 각광받는 추세에 부천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부천이 대한민국 최고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아 최고의 영상미디어 중심도시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주목받는 곳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희망리본 프로젝트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대회'

---

일시 2010년 2월 25일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특별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신 전재희 장관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행정고시 합격 1호이십니다. 노동부에 계시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광명시장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금 국회의원 겸 장관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이 사업은 이정근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 81억 원이 드는데, 80%를 장관님이 지원하셨습니다. 도지사는 20%만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치고 국가에서 80% 도와주는 것은 이 사업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제희 장관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지방 눈치 보지 않으시고, 경기도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는 점을 광명에서 구석구석 체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면서 쓰레기를 뒤지고, 가치를 발견하고 땀을 흘리신 이정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할머니들이 휴지 주우러 다니는 작은 리어카를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폐지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제작 중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도움을 주시는 신창기 공동모금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경제인들이 어려운 분들 위해 일자리도 만들고 무한돌봄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을 많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여러 가지 복지 설계를 많이 해 주신 복지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sup>13)</sup>'는 한마디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기술이 없는 분들은 훈련교육 시키면서, 가족

13) 1:1 맞춤형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009년 시작되어, 2012년 기준 도내 4,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했으며 그중 2,854명이 일자리를 찾아 자활자립의 경로를 걸었음.

중 어려운 분들 돕는 것입니다.

나뉘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일자리를 가진 다음에 애프터서비스, 사후관리를 해 주면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때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안 맞으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등 끝없는 사랑으로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지역과 동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장관님께서 지방행정을 누구보다 잘 체험하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아셔서 어머니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보살피면서 모두 다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 전국의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도움을 준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경기도 공무원들 꼭 찾아 주시고, 시군 공무원들도 어려울 때 같이 불러 주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불러 주십시오. 시군, 도, 장관님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부기우회

---

일시 2010년 2월 25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기록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 뒤에 우리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의 역사를 1,000년 이상 기록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김연아처럼 잘할 수 있었겠는가, 이승훈처럼, 10,000m에서 다른 선수들을 한 바퀴 이상을 따돌렸습니다. 그냥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체력이, 내공이, 저력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품질이 개량된 것처럼 전 세계 최고 DNA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늘 어릴 때 '오늘 죽 세 끼를 먹고, 밥을 먹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밥 한 톨 남기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고, 우람하고, 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 전 세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는 이정수, 모태범, 이상화 선수 등이 역사를 전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중국도 못했고,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코리안들이 캐나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DNA 자체가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60주년입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우리의 오늘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의 이 위대한 역사, 불과 60년 만에 우리가 이룩해 낸 놀랄 만한 변화, 이것을 누가 했는가. 바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는 못 먹고, 못 배웠고, 꿈도 꾸지 못했지만 당대에 모든 것을 이룩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연천의 선사유적지는 30만 년의 역사입니다. 그 긴 역사 중에서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축의 박수를 보냅니다.

엄홍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 16개 봉을 전부 등정 하셨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일을 다 해낸 사람이 코리안입니다. 엄홍길 선생님이 의정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입니다. 박수 보내 드립니다.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에 방앗간을 수출하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농업기술을 수출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출할 것이 많지만 농업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코리아인들이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어떤 일이라도 마음먹고 단결해서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저력,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우리가 못한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그들과 우리가 함께 쓰는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 다가 정당히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위대한 역사를 쓰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위대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가장 초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바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의정부역 앞에서 365일 24시간 도민을 돕고 있는데, 언제라도 어려운 사람들께서 휴일, 명절, 일요일 등 언제라도 찾아오면 공공, 변호사, 세무사 등이 서비스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에서 따로 하던 것이, 경기도에 와서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지도자들께서 시군별로 훌륭한 제도를 앞장서서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과 기업인 여러분들, 일 자리 만들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북부 지역은 이렇게 썩질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북부 지도자들이 50년 뒤를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다 금메달을 땀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금메달 땀냐, 피겨를 했냐, 빙상에서 (성공)했냐' 하고 생각지 않고 준비한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이,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운 성과를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경기 북부 지역이 모든 면에서 한반도 중심,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 대한민국의 변영과 변창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 DMZ, 철조망이 있지만 반드시 전 세계의 중심이 이곳이 될 것입니다.

---

## 기우회

---

일시 2010년 2월 26일

요즘 밴쿠버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기분 좋으시죠? 금메달을 딴 모태범, 이상화, 이정수, 이승훈 선수가 5개의 금메달을 땀습니다. 큰 박수 보냅시다. 오늘은 또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아마 금메달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되도록 응원 박수 보냅시다.

지금 메달 순위를 보니 1등이 독일, 2등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순입니다. 6등이 한국이고, 20등이 일본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해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특히 동계올림픽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늘 철이 없다고 하고 약해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이들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안 해 보고 해서 나중에 일자리나 구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한 것을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저도 좀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걱정했는데 잘해 내고, 우리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세계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올해가 특히 6·25 전쟁 60주년입니다. 요즘 저한테 이메일 기록 등이 많이 오는데, 당시 인천상륙작전 사진 등이 옵니다. 바로 6·25 때 찍은 사진이 많이 와서 쪽 보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합니다. 옷·밥·집도 없고, 사람도 생긴 것이 한국 사람이 지, 아프리카 사람보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 만에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똑같이 식민지에서 같이 해방되고, 그 당시 북한이 더 잘살았는데, 공업 시설 등이 집중돼 있고 땅도 더 넓었는데, 하나는 지옥이 되고 하나는 세계 최고가 됐는가 싶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께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온 국민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과정에서, 저도 젊을 때 거꾸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무슨 자동차를 하고, 고속도로를 하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을 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독재정권의 속임수로 보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현대차가 1등이고, 삼성·LG가 1등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파주에서 택시를 몰았는데, 손님의 대부분이 LG 기숙사에서 시내로 물건 사러 나오는 직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 나라를 누가, 북한과 다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누가 세웠습니까.

북한은 해방되고, 바로 공산주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뒤를 따라 공산화의 길을 갔습니다. 온 인민을 평등하게 하고, 지주의 것을 빼앗아 소작인에게 나눠 준다고 해서 토지 국유화하고, 세금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없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독재했다, 재벌 봐준다, 매일 촛불시위 등 했는데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일본이 하나도 못 탄 메달을 5개나 따고, 일본 20등할 때 우리는 6등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누가 이렇게 갈라놓고, (남과 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저는 요즘 김연아, 모태범, 이승훈 등 젊은이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 줍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에 대해 김연아의 경우,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모성으로 키웠습니다. 요즘 체육회 보면 일요일이 아니면 공식대회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연아가 과연 나왔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명품을 길러 내기 위해, 스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집중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빙상에 대해 삼성화제가 10년 이상, 120억

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다 인기 없다고 하던 종목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된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돌아설 때 피와 땀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엄청난 메달을 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멀리 보고, 단결해서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오늘 같은 날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 김연아,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등을 전부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엄청난 금메달을 땀습니다. 옛날 신라의 금관 등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역사보다 찬란한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분단 속에, 전쟁 속에, 북이 핵을 만들고, 서해안에 포탄이 날아오는 이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잘하는데도 계속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확실히 진입해서, 더 이상 서러운 역사가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도 못한, 우리보다 앞선 3대 슈퍼 강국 중국·일본·러시아 등수가 우리보다 아래입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등수가 아래입니다. 삼성, LG, 현대 아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보며 DNA가 달라졌다 느낍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요즘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10cm 이상 키가 작습니다. 북에서 온 아이들과 남에서 큰 아이들이 같은 민족인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지 놀랄 만큼 다릅니다.

통일을 통해 하나로 나가야 합니다. 북에선 미제의 앞잡이로 붙어 버터 얻어먹고, 민족이 있는가 했는데,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식민지였지만 뛰어넘고, 중국 속국이었지만 능가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써 오고 있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세종대왕상만 광화문에 세울 것이 아니라 5,000년 만에 최대 역사를 이룩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상도 세워야 합니다. 전국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상만 세울 게 아니라 김연아, 장미란, 이승훈, 이정수, 모태범, 이상화 등 위대한 지금 우리 코리안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부 나쁘다고 하고, 존경하는 사람 말하라고 하면 다 외국인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써 가시는 경기도 지도자 분들, 이 훌륭한 역사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떻게 한 단계 더 뛰어 지금은 6등이지만 앞으로 1등으로 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삼성은 지금 1위입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1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는 점에서 화해, 단결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 세계 일류 통일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는 역할이 자리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 동네 빙상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연금·포상도 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격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메달을 딴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 제2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일시 2010년 2월 26일

조금 전에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것 보셨죠? 박수 크게 보냅니다. 우리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까? 아침에 6위였는데 지금 5위입니다. 일본이 20위입니다. 금메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김연아가 피겨에서 1등 한 것이 아마 아시아 최초일 것입니다. 이승훈 10,000m 우승, 모테범·이상화·이정수 등 상상할 수 없는 메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가능성입니다.

김연아도 보면서 느낀 것은 저 어린애가, 경기도 군포 수리고 나오고 도청에도 자주 왔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어린아이인데……. 국민정도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애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줬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세계가 인간이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다들 감동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해서 아이들을 어리게만 봤는데, 이 아이들이 나이 든 많은 어른들보다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엄청난 역사를 써 낸 이 어린아이들, 10대~20대 초반의 아이들이 5,000년 역사를 새로 쓰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인지, 서양 신화·동화에 나오는 아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된다고 합니다. 방금 전 의회에서 안 된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주 신세계 첼시도 녹지등급 때문에 안 됩니다. 웅진에서 한 이천의 어린이체험관도 산림등급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청난 조직, 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연아 엄마 아빠, 연아같이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까. 다들 역사상 한 번도 안 해 본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해 봤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 봤습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자

신에게도 물어보고 이 자리에서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분들 모여서서 회의하지만 정말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되겠나 생각하시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회의하면 다들 모여서 화려한 계획이 수백 가지 나오는데 과연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다들 해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과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초의 새로운 역사를 써 보자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연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해 본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자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자리를 꼭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온 몸을 던지는 공직자가 되면 세계가 감동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요즘 노래가 됐습니다. 애국가보다 더 자주 부릅니다. 그야말로 제일 많이 외치는 구호인데 정말 되도록 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손을 잡고 이끌어 주면 우리가 못하는 많은 것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

## 서동탄역 개통식

---

일지 2010년 2월 27일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 우승을 했을 때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연아가 태극기를 달고 당당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역사상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줬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경기도 화성 유엔아이센터에서 땀 흘렸는데, 김연아 선수에게 여러분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내 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쓴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천년 (역사 동안)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도 살았습니다. 물론 위대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신라·백제·고려, 좋은 역사도 많았습니다. 당나라·수나라도 물리친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화려한 역사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고, 서동탄역이 개통해 얼마나 더 좋으십니까.

이 좋은 동탄역에 360억 시비를 100% 들였습니다. 눈을 씻고 봤는데 국비도 없지만 도비도 없어 죄송스럽습니다.

동탄-서울 간 GTX가 확정됐습니다. 강남-고양, 의정부-군포, 청량리-인천으로 사통팔달 연결되어 서울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동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헬기를 타고 보면 이 일대가 모두 평지로 무궁무진한 땅이 있습니다. 서해 유니버설스튜디오, 세계요트대회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 동탄입니다.

서울보다 1.4배 넓은 화성은 바다와 섬도 있는 곳입니다. 중국 등 대륙으로, 바다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 제91주년 3·1절 기념식

일시 2010년 3월 1일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91주년 3·1절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대한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날입니다. 기미년 그날, 우리 선열들은 맨주먹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섰습니다. 거리에서, 장터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도, 신분의 귀천도, 사상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지 않았으며 자주독립의 의지가 충천함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선열들의 우렁찬 함성과 심장 뛰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식민지 조선을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든 주역이십니다. 조국을 위해 꽃다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제단에 바치고 긴 세월 슬픔 속에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열들께서 기틀을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빛나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선열들의 기상을 물려받은 우리의 '쾌속 세대'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새봄의 기운이 감도는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승전보를 전하게 되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애국선열들은 전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치열하게 3·1운동을 했습니다. 기미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에서 17만 명이 참가해서 모두 283회의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4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안성시 원곡, 양성에서는 2천여 명 전 주민이 참여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안성의 3·1운동은 전국에서 가장 맹렬한 항쟁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의 거센 항쟁의 물결을 막기 위해, 일제는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 학살하는 화성 제암리와 수춘리 만행을 자

행했습니다. 일제는 화성 제암리에서 23명의 양민을 학살했고, 33가구 중 31가구를 불태웠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의병 항쟁과 3·1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경기도 곳곳이 3·1운동의 성지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91주년 3·1절을 맞는 올해,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이 된 지 100년, 6·25 전쟁 발발 60년, 4·19 혁명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새겨야 할 역사와 교훈이 참 많은 해입니다.

1910년 망국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1950년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1960년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 제단에 젊은 피를 뿌렸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민족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 혁명과 같은 격동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소용돌이에도 꺾이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망국의 설움을 딛고 일어서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와 난관이 있을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나약해 보이기만 하던 젊은 세대들은 각종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성취는 3·1운동의 선열들이 물려주신 기상과 투

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3·1운동을 이어받아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 자주 독립과 인류 평화의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90년 전 우리의 선열들은 결코 편협한 민족주의나, 배타적 국수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멀고 먼 아시아', 극동으로 불렸던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20%를 생산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식민지와 전쟁,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경제대국에 오른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가까이는 100년 전, 멀리는 수백 년 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원수와 은인이었던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이제 서로 의지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국토, 적은 인구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살

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중국과 협력하고 실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3·1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이끌어 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단된 남북을 잇고, 만주 벌판을 지나 러시아와 유럽 대륙,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중국의 북경과 상해, 일본의 동경 등과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입니다.

경기도는 고려 성종 14년인 995년에 7개의 기현이 설치된 이래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라는 명칭으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천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끌어 왔던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천년의 꿈을 설계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웰빙 경기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배우고 익혀서 날로 새로워지는, 교육 경기도를 만듭시다.

삼성과 LG, 현대기아차와 같은 글로벌 한국 기업들의 근거지이자 첨단 지식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작은 나라 안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서 세계로 웅비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각종 규제를 풀어서 세계 대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몰려오는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3·1 정신은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3·1운동의 정신으로 뭉쳐 광복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100년 전 나라를 잃고 비통에 빠져 있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전쟁의 참화와 가난의 고통에 몸서리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3·1 독립운동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한데 뭉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만듭시다.

3·1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갑니다.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되찾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에 우뚝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 안성 3·1절 기념식

일시 2010년 3월 1일

다 같이 태극기를 보고, 만세 부릅시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안성시 만세! 경기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안성 3·1운동의 성지, 민족의 성지, 3·1운동 전시관이 있는 안성에서 3·1절을 맞아 매우 기쁩니다. 정말 우리 안성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 온 곳인지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스물네 분, 고초를 겪으신 2,000여 안성시민 여러분, 그 유족들과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애쓰신 선열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되는 지 100년이고, 해방된 지 65년 만에

밴쿠버에서 대한민국 김연아, 이정수,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6개를 땀습니다. 아시아 1등입니다. 일본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땀습니다.

대한 젊은이들이 3·1 정신으로 밴쿠버에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높이 휘날렸습니다. 젊은 태극전사들에게 태극기를 흔습시다.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일제에서 독립된 지 65년밖에 안 되지만 밴쿠버에서, 아시아 최강자로 자처하는 일본이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1등입니다. 일본은 20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우리 젊은이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 포스코, 현대 등 일본을 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엔 일본 전기제품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제품들이 1등입니다. 모든 세계인이 좋아합니다.

손기정 선수께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참가해 우승할 때) 일장기를 달고 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말살해서 폐간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도 못하고 수모를 당했던 그때가 불과 74년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당당히 태극기를 휘날리며 일본, 중국을 능가하고 전 세계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만세를 부르던 선열들의 뜨거운 기상,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3·1 정신을 발전시켜나갑시다.

북한은 똑같은 날 해방되었지만 공산국가가 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태극기 깃발 아래 세계 제일의 일류 통일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써 주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국자들과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일시 2010년 3월 2일

분류를 세분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들도 노인 시설처럼, 아이들 특성상 분류를 먼저 해서 보호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중병에 걸려 매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따로 모셔 특별히 돌봅니다. 치매인 노인 분들은 그분들끼리 분류해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해 드립니다. 아주 정상적인 노인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분류해 모시는 게 시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는 그런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도 아동·청소년에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문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의 분들은 이런 제안을 정부에 해 보긴 했습니까?

이것이 모두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시군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시청·군청 찾아가 봐야 빈 책상과 똑같은 공무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뿐입니다. 직접 시설을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들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디서 나쁜 행동을 하곤 하는지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 모여드는 아동센터 '쉼터'의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모두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동센터를 가 봤는데, 소득이 괜찮은 가정의 어린이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 어린이들에게도 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아동센터로 보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닌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에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아동센터의 시설 보수와 지속적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항상 깨끗하게 닦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쉼터' 같은 곳은 지금 현장 담당자 말씀대로 야간 근무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 현실적인 통계도 필요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통계를 먼저 내 줘야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경기도가 내 줘야 나머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현장을 모르고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아동·청소년 담당 과에서도 최대한 현장을 돌고 통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디지털케이블쇼 및 시네폴리스 입주협약식

일시 2010년 3월 3일

각 사의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경구 김포시장님과 김포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부지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싸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려서 우리 케이블 방송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더 높이고, 훌륭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게, 저희들은 보다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신속히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공직자들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강경구 김포시장님과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서명하시는 협약서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더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

일시 2010년 3월 4일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님과 고흥길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옆에 파스퇴르연구소는 경기도에서 건물을 짓고, 부지를 제공해서 울프 네바스 소장님과 연구진들이 국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공공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보시는 건물보다 1.5배 큰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R&D를 위해 기반을 제공해 드리자고 했습니다.

판교테크노벨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남는 부분을 R&D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오늘 기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2008년 5월에 빌 게이츠와 함께 협약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게임센터를 투자유치 합의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미국 어바인 시를 방문해서 그곳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곳의 회사도 들어올 것입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이곳에서 R&D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는 20여 개의 게임 업체, 2,000명의 게임 인력이 양성될 것이고, 그 외에도 게임솔루션을 맡는 300개의 인큐베이션 사업이 이 빌딩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판교 신도시 전체가 280여 만 평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20만 평의 (면적만) 테크노벨리를 합니다. 원래 저희들의 뜻은 절반 이상을 (R&D 단지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불과 7%만 R&D 단지가 됐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주택 중심인데 잘못됐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 중 가장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R&D센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남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이 연구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 판교에 더 많은 R&D센터, IT·BT 등 지식기반연구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집만 짓는 방식은 그만둬야 합니다.

이 R&D센터가 공간이 좁지만 저희들로서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오직 지식기반 연구 사업이라고 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확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남의 남은 땅, 과천 등 수도권 외곽의 마지막 금싸라기 같은 땅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 과학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 등 여러 선수들 보셨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과학단지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이 판교, 경기도로 와서 세계 인류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정책이 과학기술과 연구 인력, 지식기반의 세계적인 두뇌가 몰려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독일 예놉틱사 투자협약 체결식

일시 2010년 3월 5일

오늘 이렇게 마이클 멀틴 예놉틱(Jenoptik) 그룹 회장님이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놉틱 그룹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같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뵈머 예놉틱 코리아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임병훈 한국 텔스타-홈멜 사장님 등 귀한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방문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레이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기업인 예놉틱 그룹이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여러 부분에서 기술적 향상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고, 특히 고용도 많이 해 주시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많은 산업이 있는데, 특히 독일기업들이 매우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넵틱 그룹이 오셔서, 한국과 독일 사이의 관계가 개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이클 멀틴 회장님은 전에도 오셨는데, 대한민국에 회장님 대학교 동창들이 많습니다. 많이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결속력이 좋습니다. 저도 모임에 한 번 참석했는데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사 초청간담회

일시 2010년 3월 5일

새해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기문 회장님과 중앙회 부회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 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의 여러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시기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중앙회장님 오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방문한 여러분에게 큰 박수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제가 해결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청와대에서 일자리 회의를 아침부터 해서 점심을 먹고 끝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의 첫마디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TV에서도 열심히 엮드려 일하는 사람은 눈치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놀고 잘사는 사람,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주로 눈치가 빠르고, 정보를 빨리 얻어서 일 안 하고 한꺼번에 왕창 버는 일을 찾는 세태가 많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가 됩니다.

셋째로,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일자리라고 보여 주는 것이, 멋있게 서류 옆에 끼고 선남선녀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델을 보여 줍니다. 이런 대학생들에게 졸업하고 양주, 포천 염색공장에서 엮드려서 일하라고 하면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업고교를 나와도 며칠 있다 나와서 그만 다니라 합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장학금, 병역 특례, 취업 보장 등 해 주는데 다들 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기업하시는 분들 확실히 봐 드려야 합니다.

저도 오늘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답변을 보니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 화끈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화끈한 맛이 없습니다. 하나 마나 한 소리,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소리가 전부입니다. 신발 신고 발등 긁는 격입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 발표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대를 해 줘야 합니다. 3D 업종 등 남들이 안 하려는 곳에 일자

리가 수두룩합니다. 사람을 못 구합니다. 일하게 하려면 봉급을 많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오히려 봉급 적게 받아도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50만 원만 받아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좋으면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하는데 청약 1순위를 제조업, 중소기업, 3D 업종 몇 년 이상 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줘야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일하면 집 나오는구나' 하고 일합니다. 그 돈을 사장이 다 줄 수 없습니다.

기왕에 주는 공공·보금자리 주택은 다른 누구보다 중소기업, 제조업, 3D 업종, 장기근속자 우대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마이스터 고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부모들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인기 공립학교도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기업하는 사람 우대정책으로, 정책을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만 우대가 아니라 금융, 수출, 교육, 보육, 주택, 복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택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세계로 뿔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원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판로 안내 등을 해 드리고,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실 때 해외에서 돕는 제도도 발전시켜서,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돈 벌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계로 높이, 멀리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 공직자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8일

재주 있는 사람만 받아 가는 복지 혜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께 모든 복지를 통합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무한돌봄센터)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이런 우울증도 우리 이웃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찾아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자기 재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돼야 돕게 (기존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빚이 생겨 주민등록도 버리고 도망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빚쟁이에게 도망치기 위해 주민등록도 할 수 없이 고시방을 전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사람이라면 누

구든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기존 복지 혜택의 종류가 무려 229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생기는)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만든 무한돌봄 복지가 작년 제작년에 폭발적 인기였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3만 1천 가구에 400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월 5일까지 2,144가구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알고 찾아낼 것이냐.

공무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복지사들이 현장을 잘 알고 판단해 3일 내로 즉시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잠자리가 없으면 당일 바로 지원합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통·반장, 복지사 분들입니다. 도지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현장의 통반장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모르거나 우리말을 모른다면 한국말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을 붙여 드립니다. 아프면 치료비를 바로 도와 드립니다.

치료비가 너무 비싼 경우 지금까지의 복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은 다 나올 때까지 한계 없이 도와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들겠다고 걱정했는데, 작년에도 30억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내 도와 드려도 돈이 남았습니다.

노숙인이 범죄로 의심됐지만 무죄 받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백 일 간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간의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붙어 도와 드렸습니다.

공무원만의 도움이 아니라 도내의 종교계, 의·약사계,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다들 무한돌봄에 참여해 이렇게 큰 도움의 손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기록만 보면서 개인적인 상황을 판단만 합니다.

이웃집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다 도와 드릴 것입니다. 성남은 재정도 실력도 제일 좋은 곳이지만 어려운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앞선 복지제도라 자신합니다.

이 복지제도는 대한민국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돈은 많이 안 쓰면서도 우리의 사랑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기계적으로 돈을 쥐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돈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사랑까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주위를 돌보는 따뜻한 사랑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성남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협약식

일시 2010년 3월 9일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 분들 오시니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경필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대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가까이에서 최고의 미를 창조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 기쁩니다.

작년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과 함께 킨텍스에서 (2009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향후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는 점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문외한으로, 여러분들 조언대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남경필 의원님은 여러분들께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뷰티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완성된 도시로서 많은 예산과 미가 갖춰진 곳입니다. 경기도는 그에 비해 17배 넓은 땅에다 더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DMZ부터 40여 개 섬까지, 2천여 개 강도 있는 넓고, 다양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도시와 강과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뷰티 전문가 분들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전국창업경진대회

---

일시 2010년 3월 10일

훌륭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고,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 이곳에서 수상된 작품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훌륭한 기술력, 창의성을 가지고 수상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찬열 국회의원님, 김용서 수원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니, 국비가 대부분 지원됐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신 이찬열 국회의원님과 국가기관에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국비 혜택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 창업에 대해 아주 국비 지원이 대단히 많은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 발전을 위해 삼성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시장님도 노력하십니다. 道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차별 없이 인재

를 양성하고 대학을 강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기르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후에 특강에서도 '기술중심 시장에서 사람중심 시장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로 대학에 모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습니다. 미국은 60%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몰려든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취업이 안 된다면 창업을 합시다. 창업을 하려니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산학협력,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들과 기업, 지자체들과 힘을 합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젊은이들이 바로 창업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자신이 단순히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미래를 밝게 해 줍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셨겠지만 김연아, 이상화, 모테범, 이정수 등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을 우리 어릴 때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신기록에 전 세계 어떤 여성, 나라도 하지 못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미 제조 부분에서는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 1등입니다. 건설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주요한 공사, 난공사는 코리안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우리들인데 대학이 (새 역사를)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성균관 612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양의 어떤 나라보다 역사가 부족합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전쟁을 조금 못해서 나라가 식민지가 된 적은 있지만 공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지식 중심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 1등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입학시험도 제일 어렵고, 취업·창업도 제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머리를 짜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힘차게 나가는 창업경진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자고, 창조자고, 역사의 개척자로 우뚝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하고, 여러분의 훌륭한 역량으로 우리 사회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더불어 나가는 위대한 새 역사를 여러분이 만든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역사의 영웅, 시대의 영웅, 미래의 개척자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기성세대를 기록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세계로, 미래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산천 수질개선대책 협약식

일시 2010년 3월 12일

오늘 이렇게 오산천 수질개선대책 협약식 개최를 하게 돼 기쁩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께서 경기도청을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오산천을 더 맑고, 좋은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님이 오셔서 한강유역청장님 등 환경부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환경부 청장님 뵈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오시니, 다 오셨습니다. 1석 3조가 아니라 1석 100조입니다. 환경부에서 오신 장관님, 국장님, 청장님께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제가 해 보니 경기도의 제1상전이 국토부, 2상전이 국방부, 3상전이 환경부입니다. 팔당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서도 오산천도 방문하셨지만, 경기 북부 지역의 신천, 염색공장, 가죽공장, 폐수, 축산폐수 등이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오산천

보다 심합니다.

여기도 제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나 하고 보니, 한센촌에 공장이 있는데 염색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가 질 못 합니다. 제가 연천군수님과 근처에 방문했다가, 들어가 보자고 하니 몽둥이 맞는다고 못 가게 해서, 제가 혼자 갔습니다. 사실 봉변은 안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센촌 마을 회장이, 포천 신평리의 경우 120번 이상 구속, 고발당했습니다. 연천 지역도 200회 이상 구속,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사각지역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방문해 주실 수 있냐고 하니 장관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차관님도 방문하셨습니다. 절망하던 그 사람들을 장관님께서 풀어 주셨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센촌 지역에서 90년대 물고기 떼죽음이 있어서 폐수 금지, 입지 금지를 시켰는데, 이 지역에 단속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성화시켜 환경 개선도 하는 등 소위 양성화 방식으로 고쳐 보자고 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을 장관님이 14년 만에 하셨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장관님이 10명은 바뀌셨을 텐데 아무도 못하셨는데, 장관님이 하셨습니다.

장관님은 탁상공론하는 분도 아니고, 개발론자도 아닙니다. 현장에 맞는 환경 정책을 실제로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집행하셔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 보시고, 바꿔 보자, 대전환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정말 명장관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탁상공론한다고 물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관님의 이런 취지가 오산천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오늘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오산천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요구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장관님 많이 도와주세요.

오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산시민들이 오산천을 너무 사랑합니다. 축제 때마다 남녀노소가 다 오는데,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사랑하는 오산천을 내버려 두면 되겠냐 하고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기흥저수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주위는 농촌공사입니다. 주인이 농촌공사인데, 경기도에 호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공사 생각이 우리 생각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 환경부, 경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기관이 달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공사도 동탄 등 경기도에 100곳 이상 사업을 합니다. 요즘 토지주택공사가 원수덩어리입니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최대 이슈가 토지주택공사 사업을 왜 계획대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고산 등이 아직 그렇습니다. 왜 약속하고 안 해 주냐고 올해 내내 그럴 것입니다. 당장 민원 처리하는데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빗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오산천 협약식에 참여하시는 데 박수 보내 드립니다.

삼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삼성이 나서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기여를 많이 해 달라고 박수 보내 드립니다. 물도 지속적 투자를 가지고 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합니다. 특히, 오산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장관님 말씀대로 환경단체 여러분이 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강이 2,572개가 있습니다. 큰 강인 한강, 임진강도 있지만 오산천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장관님과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산천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경기도 구석구석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 적극적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4대강 사업도 국토부가 많이 주도를 하는데, 저는 환경부와 경기도가 깊이 관여를 했으면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맞죠?

여야를 떠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책임입니다. 오늘 협약은 이만의 장관님, 안민석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칸막이, 여야를 넘어서서 경기도 2,570개가 넘는 하천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멋지게 합시다.

물, 하천, 호수를 깨끗이 하는 협력 모델이 (환경오염이 심한) 중국에까지 가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녹조투성이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경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역량에 부치는 점이 있습니다.

맑은 오산천 만들기를 시작으로 경기도, 대한민국, 북한의 하천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맑은 하천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글로벌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관님과 환경부 여러분께 박수 크게 드립니다.

## 꿈나무 안심학교 입학식

일시 2010년 3월 12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뻐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주 예뻐니다.

이 학교 크죠?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보다 크죠? 대학교입니다. 큰 건 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기분 좋죠?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된 어린이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총장님한테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이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인 것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좋은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 선생님 길러내는 학교인 것 아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전부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선생님 됐습니다. 이 학교는 여

러분 선생님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배웁니다. 더 좋으시죠? 아저씨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박수 크게 보냅니다.

이 뒤의 산이 관악산입니다. 좋죠? 이 학교도 좋죠?

여러분, 옆에 앉은 선생님께 '선생님 사랑합니다' 한 번 하죠.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15일

남을 돕는다는 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오는 것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란 남을 도울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당이 달라도 벽을 넘고 틀을 깨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안민석 의원님께 박수 보냅니다. 사실 오산천 정화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님이 집요하게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과 중앙은 물론 관공서와 민간 여야를 넘어 모두 힘을 합쳐 제대로 정화활동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오산천은 용인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인데, 기흥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도 이번 오산천 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오산, 화성, 평택, 모두 힘을 합쳐 오산천을 더 깨끗하게 해야 하

지 않겠습니까.

무한돌봄은, 우리나라에 249개의 복지제도가 있는데 어려운 이들이 막상 찾아가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오산시민으로 무한돌봄의 도움을 받아 소개된 한송희 학생은 의료사고의 경우입니다. 해당 병원은 폐업했으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환자를 도와 드리는 데 한정된 기간과 액수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선 이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약삭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수혜를 보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서류 평가 등이 한두 달 걸려선 안 됩니다. 멀쩡하게 장사를 하다 갑자기 망한다든가, 쫓아와서 죽인다니까 주민등록지도 없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전에 만난 나이 젊은 노숙인 한 분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를 받았는데, 그간 옥살이 기간(에 대한) 보상 제도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옥살이 하루당 6,7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에서 무료 변호사를 붙여 드려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죽 없으면 저에게 만 원만 꾸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비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살고 나와 무죄인데도 그런 제도를 모릅니다. 일정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무한돌봄을 통해) 모르는 불쌍한 분들이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오산, 경기가 힘을 합쳐 예산을 갖고 도와 드립니다. 주변의 정말 어려운 분들이 (무한돌봄을) 잘 모르니

여러분이 잘 찾아서 알려 주세요.

지난해 430억으로 3만 세대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 30억이 남았습니다. 보통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경황이 없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들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오늘 LG 이노텍 그룹장님도 오셨습니다. 1억 이상 내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오산에서 기업도 이 무한돌봄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협회 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다 같이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1억 내셨습니다. 함께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재단, 한신대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학교에도 찾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공부도 가르쳐 주고 도와 드립니다. 김혜연 가수님도 무한돌봄 알려도 주지만 노래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모든 시도에서 배우는 우리나라 가장 앞선 제도입니다.

무한돌봄은 전 세계에 없는 최고로 앞선 제도입니다. 한송희 학생은 의료사고의 경우지만, 부모님이 알코올중독이면 치료를 해 드리고, 엄마가 일하고 싶으면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빠가 술 안 드시는지 사례 관리를 계속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베풀기에는 우리 주변엔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주

부와 봉사하는 분들이 더 뜨거운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공무원들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거짓말해도 컴퓨터 한 번 두드려만 보면 다 압니다.

정말 모르고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무한돌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시가 크지 않지만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훌륭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감사드립니다.

##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17일

오늘 신청사에 들어오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 청사가 우리 법무부의 청사 중에 제일 좋다는 점입니다.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남 장관님과 법무부 고위직들이 다 오셨습니다. 수원 방문이 첫 방문인데 큰 박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라면 검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청에 가 보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전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훌륭하고, 쾌적한 청사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 훌륭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외국인이 32만 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40만 명이 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곳곳을 다녀 보면 불법체류자도 있습니다.

제가 휴일에 택시 운전을 하는데 승객 중 상당수가 외국인입니다. 제가 모실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글로벌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구정 지나고 택시를 몰면서 23팀의 승객을 모셨는데 6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우리 사회가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는데, 경기도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면적은 싱가포르의 14배입니다. 서울보다 인구도 120만 명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삽니다. 32만 명의 공식 통계를 봐도 엄청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스스로 코리안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는 벽이 조금 두꺼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꿈을 꾸고 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치안이 가장 잘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검사장님, 경찰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기도에 살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찰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화성, 동두천 등에도 생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경찰서가 생기니 연쇄살인 등이 줄어서 사건 보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잘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세계적인 위상이 올라갑니다. 경제 외적인 부가적 효과가 매우 큼니다.

그런 점에서 치안, 법치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이 사회를 안전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으면서 가장 개방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님 잘하시지만, 검찰청도 출입국관리소같이 좋은 건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민원모니터 위촉 및 교육

일시 2010년 3월 17일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17배 넓은 것 아세요? 인구는 120만 명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보다 14.6배가 넓습니다. 싱가포르 대단한 것 아시죠? 소득이 우리의 거의 두 배입니다. 그 싱가포르보다 큼니다. 홍콩보다 9배 이상 넓습니다.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넓고 인구가 1,200만이나 되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 택시기사를 하면서 경기도를 다니는데 경기도가 너무 다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한돌봄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무한돌봄을 작년 에 430억을 가지고 했는데, 30억이 남았습니다. 무한돌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냐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 80% 이상이 모릅니다.

도지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일부러 손 안 드십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오천 원 권 지폐에 누가 있죠? 율곡선생입니다. 오만 원 짜리는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율곡 선생이 어디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강릉인 줄 압니다. 파주입니다. 파주가 얼마나 홍보를 안 했으면 이렇습니다. 파주 가면 집안 묘소가 다 있습니다. 자운서원(紫雲書院)도 있습니다. 화석정(花石亭)도 있습니다. 그 밑에 율곡3리가 있습니다. 율곡리가 바로 율곡 선생 생가입니다. 왜 율곡입니까. 그곳 출신이라 호가 율곡입니다. 이율곡 선생이지, 이강릉 선생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경기도 5급이면 간부직입니다. 5급 이상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라고 해서, 제가 취임하고 '경기도 바로 알기'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역사, 문화, 경제, 지리 등에 대한 책입니다. 1년 반에 걸쳐 유명한 학자들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책 한 권씩 안 드립니까. 모니터 하시는데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경기도청에 노조가 2개인데, 시험을 친다고 하니 노조에서 건의해서 경기도 바로 알기 시험 좀 없애자고, 골치 아파서 시험을 못 보겠다고 합니다. 60점 안 되면 승진을 안 시킵니다. 승진 자격 미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모르고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 아냐고 (반문)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방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사랑을 하지, 모르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모르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극기에 경례를 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旗)와는 다릅니다. 이 국기는 김연아가 금메달 땀을 때 밴쿠버에 휘날리던 태극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6개의 금메달을 땀했습니다. 일본은 하나도 못 땀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을 뛰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서 동아일보가 폐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6개의 금메달로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제일 못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19 부정선거로 하와이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북한은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한다는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1등, 세계 5등을 했습니다. 이 태극기입니다.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 국기는 아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세웠습니다.

광화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국가를 세운 사람의 동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천황국가입니다. 우리는 천황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김정일, 김일성이 아닙니다.

자유, 풍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65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들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영감 부정선거, 박정희 쿠데타, 김영삼 IMF 등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 냈습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를 모르고, 역사에 관한 관심도 없고, 경기도 사는 사람이 오천 원, 오만 원권에 나오는 사람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지방자치는 안 됩니다. 자기 나라를 누가 세우고 잘살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핸드폰 잘 만들고, 포스코가 1등이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만들어도 자기 지리, 문화,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3,000여 명, 소방(공무원)이 5,000여 명입니다. 서울의 3분의 1입니다. 주로 수원, 의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이 아니다, 경기도는 의정부가 아니다. 경기도는 넓고,

참으로 다양하고 위대한 곳입니다.

DMZ가 지나가고, 팔당에 댐이 있고, 경기도에 강이 2,500여 개가 넘습니다. 미군부대의 90%, 육해공, 해병대의 6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방위하고,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있습니다. 작년 일 자리의 50% 이상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이순신·세종 대왕 동상(이 있고), 남대문이 타면 다들 가서 눈물 흘리는데 화성 서장대가 타면 관심도 없습니다.

방송국이 많지만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방송국 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제일 많은데 노동청도 인천에 있고, 경기도에 없습니다. 왜? 도민들이 자신들을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경기도 이것이 문제다, 고쳐 보자'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을 해 보니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모릅니다. 제가 택시 몰고 가 보니, 경기도 곳곳에 겨울 지나고서 구덩이가 있고, 도로가 파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모니터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120번입니다. 경기도 어디서든 120번입니다. 과천·광명처럼 02, 부천처럼 032 쓰는 곳은 031-120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불나면 119, 아플 때 119입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편찮으시다, 119입니다. 119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119는 시에서 하는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도에서 하는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119는 道에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가 모든 소방공무원들을 임용합니다. 99.2%가 경기도비로 운영합니다. 道에서 하는, 道 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경기도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로, 철도, 하천 등 8,500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넓은 땅에 경기도 공무원 3,000명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 주실 수 있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입, 손, 발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파이팅 한 번 합시다. 경기도 파이팅!

## 항공우주산업 발전 MOU

일시 2010년 3월 18일

국제항공전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은 사실, 어수선했습니다. 하면서 죄송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장 문제가 결국 음식입니다. 이 삭막한 곳에서 음식 먹으면서 실망했습니다. 기본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설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편 안하면서 유익하고 신나는 항공우주쇼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안전입니다. 둘째가 큰 민원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셋째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시회가 돼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에어콤플렉스, 비행학교, 활주로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대송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또 매립이 완성되지 않아서 대통령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되기 전까지 가장 적지라고 봅니다. 넓고 유망한 지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될 것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안내자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우리 행사 속에 넓히고, 사람 만나고 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파일럿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길 안내, 화장실 안내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꿈을 현실로 이끌어 주는 진정한 멘토 등이 부족합니다.

---

## 경기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협약선포식

---

일시 2010년 3월 18일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서 계신 분 많은데 의자가 없습니까?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의자를 더 준비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막막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도와주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불친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하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점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김용서 수원시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불친절하다, 너무 까다롭다 등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홍기화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한 번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우리들이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언제 물으시더라도 계속 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세 번 부르면,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답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주저 마시고 물어 주십시오.

또 중소기업 등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하 5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 거의 400~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을 도와 드릴 단체가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직하게 정직하게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물으시면, 저희들이 가장 맛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러분이 다 배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돕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 번호가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119 아시죠. 불나면 119입니다. 119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119를 운영하는 소방관 임명, 소방서 개서 등 전체 예산의 99%를 도에서 합니다. 119는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물난리 등에 다 나갑니다. 의정부에서는 119가 다리 밑에서 밥도 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돕고 싶습니다. 물론 도와 드렸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12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과천·광명처럼 02 쓰는 곳은 031-120을 누르시면 됩니다. 물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그래도 귀, 눈이 밝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안 오셔도, 언제 오셔도, 전화하셔도 저희들이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중 정말 어려운 분을 돕는 무한돌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 등 어려운 분 돕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하니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15%입니다. 아무리 TV 광고를 해도 85%는 모른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누구냐고 하면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경기도인 줄 압니다. 인천은 81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다 아실 필요도 없지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니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하는 것에 대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상담하시고, 의논하시고, 시청·군청·도청의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친절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시죠? 목소리가 영 외로우십니다. 믿으시고, 이용해 보시면 잘했구나, 정말 쓸 만한데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오늘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언제나 외롭지 않은 여러분이 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옆에서 각종 정보, 인허가 문제 등을 도우려고 합니다.

부디 외롭게 생각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도전이 아름답게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커지셨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창업하시는 모든 기업, 상공업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

---

## 노작 홍사용 문학관 개관식

---

일시 2010년 3월 18일

우리 홍사용 선생님은 우리가 어릴 때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읽으며, 자신을 눈물의 왕으로 생각했던 문학소년, 소녀들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동탄신도시에서 사셨습니다. 동탄이 가치가 있는 것은 높은 빌딩, 아파트 단지가 넓기 때문이 아니라, 고속도로·GTX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사용 선생님의 문학관, 족적, 뜻, 문학이 있어 동탄이 품격과 가치가 있는 신도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화성시장님과 시민 여러분이 애를 많이 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사용 선생님 집안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뵈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화성은 홍난파 선생부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화성처

럼 이렇게 많이 배출한 곳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훌륭한 분들을 기억하고 살리려는 후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홍사용 선생님의 문학관을 훌륭하게 만드는 등, 화성이 가장 앞장서서 선도한다고 봅니다.

훌륭한 분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명품도시이고,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훌륭한 노력에 경기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품격 있고 정신, 혼이 살아 있는 신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 서울우유 종합유가공공장 증설 MOU

일시 2010년 3월 19일

아시다시피 서울우유는 역사도 오래됐고, 저도 매일 마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우유가 영양, 유통 과정, 생산·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훌륭한 보건위생 기준을 잘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등에 가 보면 서울우유가 얼마나 사랑받고 매우 훌륭한 우유인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우유의 목장을 하시는 우유 생산 과정, 유통, 제조, 모든 소비 과정까지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높은 수준의 우유를 안심하고 마시게 하고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설을 조금 더 낮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 공장 신·증축을 하고

싫어도 법이 잘못돼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하지 말고 멀리 가라고 합니다. 멀리 가면 유통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나빠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가라고 합니다. 잘못된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회사 측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2007년 방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만 3년이 돼서 여러 규정을 고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임기 내에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게 된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답답합니다. 스피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고친다고 하다가 세월이 가고, 늘 타이밍을 놓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등에 가 보면 철도 등은 우리의 3~4배 속도입니다. 나머지도 2배 이상 빠릅니다. 덩치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속도 자체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시간이 늦습니다.

오늘 양주시장님도 오시고 저도 있지만, 도·시·군도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와 명확한 행정서비스가 있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 인프라로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선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데 공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실정에 맞지 않고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만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고치면 특혜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애

로) 말씀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쳤습니다. 오늘 못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에 말씀하시고, 애를 써 주셔서 고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우유가 더 많은 투자도 하시고, 더 훌륭한 우유를 생산하셔서 방대한 중국 시장까지 서울우유의 높은 기술, 훌륭한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길 기원합니다.

##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22일

양진철 시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성 무한돌봄센터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안성은 역시 안성맞춤입니다. 다른 곳은 무한돌봄센터만 하는데 이곳은 일자리, 자원봉사 등 4개를 통합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맞추기 위해 통합을 한 것은 안성이 처음입니다. 역시 안성맞춤입니다. 4개의 센터를 합쳐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기술이 없고, 자식은 학교도 안 나가고, 공부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는 것이 무한돌봄입니다.

우리나라에 200여 개가 넘는 복지제도가 있지만, 막상 가면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모두 돕습니다. 일자리도 많습니다.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 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드림센터에서 합니다.

무한돌봄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와서 같이 합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같이 참여합니다. 독립의료원, 의사회, 약사회에서도 다 참가합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도청에 가시면 칸막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니 옆에 가 보라고 해서, 옆에 가 보면 다른 곳 가라고 하고, 결국 계속 가 보면 나중에는 되는 것도 없고 지칩니다.

이런 부분을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이곳에서 안 되면 바로 옆 책상에서 되게, 방 하나에서 모든 것이 되게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무한돌봄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맡은 일이 8,500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오시면 시민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 부모가 헤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났다, 노인이 학대받는다, 실업자 힘들다, 장애인 어렵다 등, 주변 분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센터로 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있으실 때마다 공무원 찾아 주시죠? 관공서 오시는데, 도움이 되시는가요. 별로 소리가 없으십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은 기업체, 노인회, 여성단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하는 것이 무한돌봄입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찰대학에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농협에서도 쌀 지원 등을 해 줍니다. 모든 단체가 힘을 합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반드시 도와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민 중에 무한돌봄센터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20%만 아시고, 80%는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그만큼 넓고 큼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 절망하는 분이 계시면 무한돌봄센터로 연락 주시면 말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연락하겠습니다. 가도 안 된다 생각지 마시고 오세요.

어려운 분들 손을 잡고 센터에 오셔서 공무원, 뜻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무한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한돌보미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365·24 언제나민원실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23일

도민들을 위해 휴일, 퇴근 없이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하게 돼 기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정창섭 차관님도 오셨습니다. 역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알아주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편하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소방이나 경찰에 비해 국민들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24시간 민원실은 안산에서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이용도와 반응이 좋아 경기도에서도 하게 됐습니다. 명절이고 휴일이고 없이 1년 내내 문을 닫지 않는 민원실을 위해 노력해 주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교대, 3교대 이상의 근무조건과 그 외의 대우도 충분히 생각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봉녕사 시민문화공원 조성협력 MOU

일시 2010년 3월 23일

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봄기운이 물씬 다가온 가운데 시민문화공원 조성 협약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봉녕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자랑인 802년 전통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대 녹지율 41%의 광교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산·분당을 능가하는 최고의 자연을 배경으로, 옆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삼성전자 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최고의 명문 초·중·고교가 있거나 앞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봉녕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시민들의 정신적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정신적 쉼터이자 공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헬기를 타고 이 주변을 살펴보면, 봉녕사는 가장 훌륭한 요지에 위치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 협약에 참석해 주신 봉녕사 묘엄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무한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협약식

일시 2010년 3월 24일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과 딱딱한 조직에 의해 부드럽지 못한 점도 많고,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는 점도 많습니다.

조직, 예산이 있습니다.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석구석 살피고 시민들 생활 깊이 들어가서 접하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답답하다 등의 생각을 하시게 되고, 우리는 가더라도 규정에 의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고, 여러 벽과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헐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필요한 곳에 더 따뜻하게 권한, 예산 등이 잘 쓰여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냐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참여하셔서 고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몇 번 해도 말만 하고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주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협력 모델이라고 봅니다. 무한돌봄과 관련돼 협약을 하지만 진정한 공무원들과 민간의 협력, 자원봉사와 공공조직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고양국제고등학교 기공식

일시 2010년 3월 24일

오늘 고양국제고교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양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첫째로, 기숙학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들고 학원을 찾아다니고, 과외를 단속하거나, 뭘 하는지 말라 등이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겨루는 그 교육 조건이 가장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것보다, 가방 메고 학원 찾아다니는 것보다, 가장 좋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기숙학교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학교는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가야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세,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협동하고,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우리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 기숙학교가 필수라고 봅니다.

고양국제학교가 제가 본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 개교할 때부터 100%, 그것도 600명의 기숙학교를 만드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가장 많은 유학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돈 없는 사람들도, (학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국가로의 유학이) 안 되면 필리핀·인도·아프리카까지 보내는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 교육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우라고 한다지만, 우리의 뜨거운 교육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과감한 일대 변화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양국제고는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100%를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는 분명히 고양국제고를 원하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는 교육 당국, 시 당국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시·도·국회·정부·기업·시민 모두 다가 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을 위해 온 국민이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탑 클래스의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만 최고가 아니라, 교육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로 유학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학 오는 대한민국, 고양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꿈꾸고, 학수고대하던 고양국제고 기공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주 홍죽 산업단지 기공식

일시 2010년 3월 24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홍죽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홍죽 산업단지 기공은 경기도시공사에서 1,200억, 산업단지공단에서 600억을 내고, 양주시에서 200억을 내서 총 2,000억을 들여서 하는 큰 공사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산업단지를 만들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 기업이 어려운데 누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느냐고 하는데, 이 자리에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들어오기로 됐습니다. 좋은 산업단지가 돼서 우리 양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송추에서 오는데, 오다가 보니 도로가 구불구불합니다. 장흥

에서 오는 도로가 그렇습니다. 숙원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잘 돼서 겨울에 눈이 올 때 교통이 복잡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는 그동안 군사시설도 많고, 화약고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애써 주셔서 그린벨트가 54만 평,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2만 평이 풀렸습니다.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337만 평이 해제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340만 평이 해제됐습니다. 총 825만 평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일전에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 옆에 탄약고가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 우이령 고개 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건디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신 양주시민들께 오늘 홍축 산업단지가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합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 산업단지가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되고, 양주가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24일

경기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꿈은) 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 북부는 그야말로 녹색이면서, 낙후돼 있고, 때로는 녹색도 별로 없는 회색 낙후 지역도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우리의 꿈, 아름답고 깨끗하고 푸른 녹색과 잘 사는 경제성장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북부 지역은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규제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도로, 철도가 부족한 애로사항 속에 오직 많은 것이 여러 군사시설, 탄약고 등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점에 감사드리고, 도지사로서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때에 경기 북부 같은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안보,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다 과감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부 지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이 있는 곳이 있겠냐는 점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고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천에 가면 냄새가 나고, 한탄강에 가면 시커먼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강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염색, 니트 섬유 부분에서 세계 제일의 산업 지역이지만, 환경이 나쁜 가운데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술은 수질, 대기, 악취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센터에서 여러 좋은 기술도 개발하겠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을 공장·현장에 적용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만들고, 냄새도 나지 않고 폐기물도 가장 깨끗하게 처리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17억 중에 시군에서 7억, 대진테크노파크에서 5억, 道에서 5억을 냈습니다. 5억이 문제가 아니라 500억, 5,000억을 들이더라도 반드시 물,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북부의 산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무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께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 곳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위주로 하던

정책을 기술 지원·개발을 통해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물론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돕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폐기물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축산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 반드시 축산에서도 깨끗한 목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도, 서울에서 남는 것을 경기 북부에 가져와서 마구잡이로 더럽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와 강력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기 북부의 청정한 산천을 더욱 청정하게 만들 책임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뜻에 맞춰 대진대에서 훌륭한 기술, 학문 이런 부분들을 합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훌륭한 엔지니어, 학자, 환경 관련 산업, 기업, 언론, 시민운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깨끗하면서도 발전하는 진정한 녹색성장의 근거지로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경기북부환경지원센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정 녹색성장이 이루어지는 경기 북부 지역을 다 함께 만듭시다.

##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25일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애써 주신 서장원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천이 구제역을 잘 차단해 주셔서 연천, 가평 일부 이외에는 전국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조해 주시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생활도 어려우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도 '노아의 집' 두드리락 (공연)을 봤습니다. 열심히 애쓰시는 시설의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무한돌봄이란 것은 대통령상, 대한민국 브랜드 일등상을 작년, 제작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이름부터 무한하게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 무한이 모두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돌봄을 하는 포천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욱 끝없는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믿습니다.

무한돌봄 요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249개로 너무 가짓수가 많은데 막상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지사 분들이 듣고, 바로 도움을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한 분도 서울시에도 (무한돌봄 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이든 어디든 다 하시면 좋겠다는 답을 그래서 해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한돌봄이 가족 중에 엄마가 몸이 안 좋다거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거나 자식이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면 모두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없는 도움을 드리는 칸막이 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가짜는 현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차단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을 위해 끝까지 도와 드리는 게 무한돌봄입니다.

작년 430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30억 원이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무한돌봄 제도를 도민의 20%도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사회, 종교단체, 새마을회 등 각종 민간단체도 모두 함께 돕고 있습니다.

## 광명시 무한돌봄 해피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3월 26일

광명은 제가 총각 때도 살던 곳입니다. 제가 구로공단에 있을 때 수배가 돼서 피해도 다니고 모임도 하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광명에서 택시운전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바로 옆의 구로구를 가니 잘됩니다. 광명은 서울보다는 아직 소득 등에서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필요한 곳이 광명입니다.

광명에 KTX, 경륜장도 있지만 64%가 여전히 그린벨트입니다. 좋은 땅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에 희소식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빛이 더 비치는 광명(光明)스러운 광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에서 경전철 등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서부 지역, 특히 서해안 일대에 떠오르는 빛나는 광명시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광명을 크게 발전 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많지만, 막상 찾아가 보면 잘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갔을 때 나와 맞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광명은 앞선 행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앞선 부분이 무한돌봄센터, 해피센터가 될 것이라 봅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따뜻함·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광명이 될 것입니다.

무한돌봄은 전국 최초로, 경제 위기가 오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33, 689가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물어보면 무한돌봄을 아는 분은 20%, 모르는 분 80%입니다. 특히 아까 누워 계시는 분들일수록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일수록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은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모이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주민등록 없고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노숙인이 교도소 갔다 왔는데 차비도 할 겸, 저보고 만원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분이) 교도소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인데도 오래 살았으면 교도소 생활을 한 날짜만큼 보상받습니

다. 이 사람의 경우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돈이 나올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으신 분, 주민등록이 안 돼 의료보험 안 되는 분에게 도립병원을 소개시켜 줬는데, 오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 손을 이끌어도 도움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골치 아픈 사람이 오면 피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돌보미로 나서신 적십자,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 등 많은 분들이 돌보미로 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구석구석의 이웃,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바로 우리 시청, 동사무소, 도에서 돕겠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어려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랑으로 돌봐 드립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다 돕고, 농협 등에서도 함께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따뜻한 정성을 여러분, 무한돌보미를 통해 찾아 나서는 적극적 복지입니다. 찾아 나서서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눈이 되고, 정확한 판단으로 무한돌봄센터로 안내해 주십시오. 공무원, 돌보미, 종교단체, 회사, 대학교

등이 다 협력해서 돕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은 종합선물입니다. 또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무기한입니다. 정말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위한 분들을 돕는 광명무한돌봄센터로 발전해서, 복지부 장관만 광명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나오길 바랍니다.

단순히 김연아만 밴쿠버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가전제품만 세계 1등이 아니라, 따뜻한 복지에서도 세계 1등을 꿈꾸는 광명시, 경기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자녀 안심귀가서비스 협약식

일시 2010년 3월 30일

경기도가 최근 치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CCTV는 늘어나고, 경찰관은 증원되니 그렇습니다. 여러 봉사단체의 노력까지 합쳐져 치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UN에서 인증하는 안전도시이기도 합니다. 윤재옥 경찰청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는 안전시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이 1번이고, 다음으로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경기도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독일 린데사 MOU

일시 2010년 3월 30일

오늘 용인에 투자하는 협약식을 갖게 돼 대단히 기쁩니다. 린데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3개나 고쳤는데 지식경제부에 감사드립니다.<sup>14)</sup> 독일 린데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발달한 지방자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정부 모두가 린데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 4년을 하면서 법을 3개나 고치면서 투자 유치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기업 활동을 돕겠습니다.

14) 린데사의 투자는 500㎡ 이상 규모의 대기업 공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경기도가 법률 개정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린데사의 신규공장 투자(3천만 달러 규모)가 가능해짐.

##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일시 2010년 3월 31일

서해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쪽엔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간첩이 들어오는 군사 지역이라 그렇다는데, 이를 걷어 내기 위해 제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국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 철조망을 걷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김포 지역부터 서해 대부분이 군사의 냉전 상황이 아직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도로·공장 등의 전문가는 많은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빈 땅인데, 농어촌공사는 농사를 짓자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황해의 가장 발전된 지역이 바로 건너편 중국에 있는 베이징, 상해 등 연안권입니다. 이와 견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국의 화성 지역입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된 환황해권 육성 필요 지점이 바로 우리 서해안권입니다. 對북, 對대륙, 對중국은 물론 세계로 가는 창구이자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곳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 봐야 그냥 세종시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다섯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국론이 분열될까 우려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략, 미래 비전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 약합니다. 민간 역시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큰 미래의 비전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세종시만 있습니다. 중국과 서울, 송도, 강원 전반을 토대로 이 서해안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볼 줄 아는 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자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 이 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중앙에서도 전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서해권역은 '아시아의 골드코스트'입니다. 황금 같은 지역입니다. 서해안은 엄청난 가능성의 지역입니다. 저는 한중 터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놈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랄도 효율적이고 제대로 활용할 일을 제안하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버려 뒀선 안 됩니다.

싱가포르를 보면 순식간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고 카지노까지 한 번에 개장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센토사 개발 전체를 두고 세계 관광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천만 평 이상 비워 놓고 아무 제안도 없고 고민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소 황당한 제안이라도 지속적으로 내주시고 서로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일시 2010년 4월 1일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경구 김포시장님, 유정복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보다 더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곳 또한 김포입니다.

바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김포는 그야말로 조강포에서 다리 하나 놓으면 북한입니다. 개성과도 2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곳이 김포입니다. 영종도 공항, 서울, 인천과 가까운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 철조망이 있는 김포반도 전체에서 철조망이 걷히고, 교류가 되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바뀔까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김포시민의 날 행사에 지금 많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이 김포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희망이 많은 도시입니다.

단순히 한강신도시(가 생기고), 철조망이 걷힌다(는 것), 철도 개설을 넘어서는 엄청난 꿈, 미래, 희망이 있는 곳이 김포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5,000년 금쌀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로 역사도 오래 되고 찬란합니다. 그 이상으로 미래가 찬란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민 중에도 한 분이 천안함 실종자입니다. 또 해병대가 김포에 주둔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말할 때 김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2%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위해 가장 희생하는 곳이 김포입니다.

여러 악조건 때문에 도시가 제대로 발전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김포를 매우 안정되게 발전시키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강이라고 하는데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김포입니다. 또 바다도 김포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이 땅이 정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 말고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택시운전을 해 보니 도로가 신통치 않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대체로 어지럽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지러운 이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입니다.

이제 교통이 잘 연결되고 하는 이때,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합치셔서 한강의 기적 중의 기적, 남북통일의 최전선 기지로, 통일을 바라보는 전전기지로, 중국으로 나아가는 황해 중심권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김포는 서울 강서구, 부천, 인천에 많은 지역을 뺐습니다. 이제 더 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 검단 사람들이 장 보러 김포 장날 옵니다. 손님을 검단, 부천 오정구에도 모셔 드렸는데 전부 장 보러 김포까지 오십니다.

김포가 아직까지 중심인데 이제 더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포를 지키시고 발전시켜야만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나고 통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김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 김포를 잘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4월 1일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서상목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로 무한돌봄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가 와서, 다들 어려울 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취약한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린이들을 버리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떨어져 죽고, 아빠는 직장을 잃고 절망해서 음주를 하고, 노인이 유기되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경기도가 1년에 14조를 씁니다. 조금만 아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400억을 썼습니다. 큰돈이지만 전체 예산 14조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 반면 굉장히 많은 여파를 미쳤습니다. 전재희 장관님 와 계시지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참석하실 정도로 국가적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무한돌봄이 道에서 하는 것 중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하던 것,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 주변의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 과거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제도 없다, 당신 해당 없다' 하고 답해 왔고 민간에선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한곳에 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정이 많은 뜨거운 나라입니다. 이 뜨거운 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식민지 겪고 전쟁, 가난 등을 겪었지만 우리들이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국민입니다. 앞으로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북에서 고통받는 이들, 아시아, 세계에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제일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질,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국에 없는데 되겠냐'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돌봄 사업을 발전시켜 주신 전재희 장관님, 서상목 장관님은 지금 이사장 하시지만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습니다. 복지부 장관 하신 분이 역시 다릅니다.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갑자기 해서 절차를 다 밟지 못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흔쾌히 통과시켜 주시고 여야를 넘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전부 지지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언론이 무한돌봄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비판 안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보대사 강성범, 강유미 대사 오시고 김연아, 박지성, 최불암 선생

님 등 홍보대사가 많은데, 취지가 좋다고 하시며 모두 바로 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도 좋다고 하고, 경기도 모든 목사님도 전부 참여하셨습니다. 신부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 벽을 넘어 종교단체가 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못 오셨지만 농협에선 쌀을, 축협에서는 돼지고기를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다 함께 동참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같이 합니다. 엄청난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속의 사랑의 뜨거운 불은 무궁무진합니다. 무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샘솟는 무한 사랑이 우리 국민 가슴속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녀 보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돌봄에서는) 다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와서 돈 만 원을 쥐 달라고 합니다. 집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무료) 변호사들이 나서서 상담을 합니다. 교도소 가서 산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 2,5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법률로 도와 드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도와 드릴 것이 많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나누고 소통하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무한돌봄은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것이 있는 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생각을 했는데, 서상목 이사장님의 꿈이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크지 않더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

다고 해서 마음껏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것 다 들어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제받는 것 등, 다 밀어 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스스로 고갈돼 지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복지제도,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에 대해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고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수천억 중 조금만 절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제도 타령 하지 마시다.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사랑을 나누는 이 부분은 여야도 없고 다른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 향토예비군의 날

일시 2010년 4월 2일

저는 경기도의 실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수도방어의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수도권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육군 51사단장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DMZ가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서해안까지 모두 철조망이 있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2함대 사령부도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 3군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있고, 군비행장만 17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경기 북부는 44%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현역으로 대한민국 국방,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여만 예비군의 22%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6·25 60주년입니다. 경기도에 16개 참전국 중 15개 참전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념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고, 국가적 큰 행사와 맞맞춰 경기도 고유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6·25 60주년을 기념하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6·25를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교훈을 배우고, 준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경기도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최전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으면서 군인도 많고 군사시설도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경기도가 특별히 국방안보, 향토방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제가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도, 가족들이 슬퍼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남편 등이 근무하던 해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서 육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왜 나타났냐'부터 시작해서, 접근도 어렵지만 접근해서도 육밖에 못 먹는, 의혹과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 특히 군인 가족으로부터 좋을 때도 신뢰와 존경을 받지만 어려울 때도 신뢰,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단순히 전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울 때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군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과 국민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2함대 사령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경기도립병원이 6개고, 소방본부의 구급차, 각종 지원 물품,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군이 어려움에 있을 때 요청하시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2함대 자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늘 2함대 사령부와 저희 사이에서, 군사령부 내부를 방학 때는 학생들에게 개방을 해서 캠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했습니다. 위기 시에 더 긴밀하게 행정과 군이 협력해야만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중 9명은 평택시민입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남편도 실종되었습니다.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전체에서 12명의 가족이 천안함 실종자 가족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군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도가 가족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비군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평소 예비군 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6·25 60주년이라 예비군 여러분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6·25 60주년에, 천안함 사고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방력을 더 높이고 국민들과 일체화시키는 (노력을 해서) 어려울 때 역경을 딛고 도약했던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군과 국가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헌신하신 예비군 여러분께 1,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 식목 행사

일시 2010년 4월 6일

원사님과 사단장님께 박수 크게 한 번 더 보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제가 이곳(육군1사단)까지 허락해 달라고 하니 허락을 안 해 주셨습니다. 나무 심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개성 개풍군에 9헥타르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허락이 안 났습니다. 북과 관계가 두절 상태라 올해 묘목 행사, 식목 행사를 북까지 갈 수 없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북과 근접한 파주 민통선 안에서 묘목 행사를 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오늘 2칭 직원들만 오셨습니다. 밀(본청)의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다음에는 밀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밀에 심을 때는 윗분들 많이 내려오는 등, 나무를 통해 소통이 됐으면 합니다.

그제는 북한이탈주민 250여 명과 파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2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게 박수를 많이 쳐 줬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공무원도 많이 시켜 주고, 다른 곳은 없는데 더 많이 시켜달라고 박수 많이 쳐 줬습니다. 북한에선 공무원 동무들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배급을 나눠 주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공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오늘 (심는) 나무는 통일에 대해 염원하는 뜨거운 마음, 북의 동포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으로, 동포로 그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무를 심고, 언젠가는 햇빛은 북에 가서 햇빛은 우리 한반도, 조국의 땅을 푸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림녹화에 제일 성공한 일등 국가입니다. 북한은 가장 실패한 국가지만, 그곳에서도 경기도 공직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며 남북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합시다.

북한의 햇빛은 나무는 아시다시피 연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탄 매장량이 우리의 40배인데, 캐널 전기가 없어 나무를 베어서 합니다. 제가 북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꼬챙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 40~50리를 다닙니다. 북의 가정집 안방에도 가 봤는데 불을 땀 적이 없습니다. 부엌에는 있는데 아랫목은 불을 땀 적이 없어 하얗습니다.

우리보다 추운 북한이 나무를 베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 햇빛은 땅을 푸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 있게 해 주세요.

경기도가 내몽고에도 나무를 심습니다. 국제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게 우리들이 더 통일이 되고, 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두천 일자리센터 확장이전 개소식

일시 2010년 4월 8일

아주 좋습니다. 중앙역에 좋은 일자리센터를 열게 돼 기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일자리센터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제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장·총리·장관 등 다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동두천에서 오늘 일자리센터를 여는 것이 제일 잘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센터로 좋은 사무실을 꾸렸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동두천은 이 자리로 옮기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전철을 타고 동두천으로 많이 오고, 복선 전철이 돼서 발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역사가 매우 중요한데, 역사로 확장·이전하게 된 것은 참 잘한 일

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역사에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빌려 주지 않습니다. 와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두 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노숙인들도 몰려와서 아프다, 밥 달라고 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장님 오셨는데 명당 중의 명당, 제일 좋은 목에 하게 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기차가 녹색교통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일자리센터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동두천시장님이 작은 도서관, 무인 발급기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곳으로 다 옮기고, 시청도 옮기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수원역 백화점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에 같이 있어야 장사도 잘됩니다. 시청도 이리로 오면 (시민들이) 차 타고 가다가 옵니다. 실속 있게 하면 이 사무실이 가장 사랑받는 일자리센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역장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두천의 여러 어르신들 다 오셨습니다.

동두천은 산업단지 조성 중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조성·분양 속도가 생각만큼 되진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42%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군 이전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요한 산업을 동두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좋은 땅, 철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도로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구리~동두천 고속도로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 철도 부분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산 좋고, 여러 가지로 신천 등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일자리 많고, 어려운 분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고, 장사도 잘되는 동두천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 누구라도 오시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고 일자리 없으신 분들 일자리 바로 찾으실 수 있게, 몸 안 좋으신 분들 의료 바로 받을 수 있게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열심히 동두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두천시 발전 파이팅! 파이팅!

##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일시 2010년 4월 9일

화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2층까지 다 서 계십니다. 우리 화성이 큼니다. 서울보다 1.4배 큰 것 아시죠? 1.4배만 넓은 것이 아닙니다. 화성에 있는 시화호 등을 빼고 1.4배입니다. 화성에는 바다도 있습니다. 경기도 섬이 41개인데, 대부분 화성에 있습니다. 당진 앞에 있는 국화도 등도 다 화성입니다. 바다, 호수 빼고 서울의 1.4배입니다.

시장님께 말씀 들어 보니 화성 예산이 1조 2천억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14조인데, 화성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돈도 많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택시 운전을 해 봤는데 전국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제일 많습니다. 한 집에 3~4개씩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약합니다. 동탄은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법 때문에 도시가 난개발이 돼서, 컨테이너 박스가 많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엉망진창입니다.

김연아까지 와서 유엔아이센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매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곳도 많습니다. 넓고 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잘사는 분도 많지만,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GTX가 화성 동탄에서 시작합니다. GTX 아세요? 거의 모르시네. GTX가 세계 최첨단, 초고속, 광역 지하 철도입니다. 동탄 때문에 처음 생각했습니다. 동탄이 우리나라 신도시 중 가장 큼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GTX를 생각했습니다. 거의 3년 전부터 해서 대통령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첨단 GTX가 화성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도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화성시 출신의 무한돌보미지만 잘 모르고 계십니다. 너무 넓어서 다 못 가 보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어서 다 알 수 없는 넓고, 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장도 빠르지만, 그늘진 곳도 많습니다.

여기 오신 무한돌보미 여러분이 많이 찾아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 드리는 분들이 무한돌보미 여러분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240개가 넘습니다. 많지만, 막상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합친 것이 무한돌보미입니다.

올해는 4월 7일까지 25억을 썼습니다. 3,900여 가구를 도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의 누가 영터리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없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안양에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수원 지동시장 출신인데 나이가 40도 안 됐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저랑 길에서 점심을 같이 먹다가 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받을 돈이 있는데 주민등록 없고 이 사실도 모르고 해서, 제가 만 원 안 빌려 주고 2,500만 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립병원이 6개 있습니다.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있습니다. 도립병원에서 지금 평택의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에게 의사, 간호사가 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그동안 소방서,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교육청도 오산에 있습니다. 화성에 교육청이 아직 없습니다. 교육청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화성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크고, 돈도 많고, 땅 크고,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구석구석을 찾아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요즘 화성에 연쇄, 토막 살인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화성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경찰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아픈 아이들 치료해 주고, 어려운 아이들 돌봐 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꼼꼼히 실천해 아파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고,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지만 구석구석을 모릅니다. 실정을 모릅니다. 이 자리의 돌보미 여러분이 도와주시죠. 눈, 손이 되어 주시죠.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찾아내서 도와 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여러분이 모두 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모든 회사·병원·약국도 다 같이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도 다 같이 합니다. 또 대학생, 교수들도 다 도와줍니다.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종교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그날까지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무한돌보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H팜랜드 조성공사 기공식

일시 2010년 4월 9일

날씨가 좋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좋습니다. 좋은 봄 날씨에 안성 NH 팜랜드 기공식을 갖게 돼 기쁩니다.

농협중앙회장님이 많은 투자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입 도로도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학용 의원님, 지역구 일이라면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안성을 사랑하십니다. 농림부 예산 따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농협과 관련된 분, 축산과 관련된 분 다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산은 경기도가 잘해야 합니다. 젓소, 돼지, 닭, 개가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축산품이 거의 경기도에서 생산됩니다.

축산이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FTA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경기도는 걱정 없습니다. 학교 급식에 축산품을 우선 소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밀어 드립니다.

학교 급식만이 아니라 각 회사 급식, 군부대 급식에도 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 전 군 병력의 70%, 미군의 99%가 주둔합니다. 지금은 학교 급식에서 필요한 축산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FTA 반대 등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눈을 열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 상해에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품 전용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팔립니다. 앞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 위생·안전 측면에서 우리보다 부족합니다만, 그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 축산을 발전시킬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잘될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강화에서 구제역 양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번 포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방어를 잘해서 확산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잘될 것입니다. 우리 축산인의 실력을 믿습니다.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실력 있습니다. 움츠려 들어 방어적으로 해서 그렇지,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면 실력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농산품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에 사막이 한 평도 없지만, 선인장을 세계 시장

의 80%를 수출합니다. 충분히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팜랜드는 농축산품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재활승마장이 오픈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로 이곳이 관광, 레저, 교육, 재활, 치료, 요양, 최고급 숙박 등이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단순히 서울의 5성 호텔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안성 팜랜드에서 하루 자자' 하며 중국이나 세계의 부자들이 모두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팜랜드를 통해 농축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돈 잘 버는 고급한 손님이 찾아오는 팜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곳에 와서 동물, 자연을 공부하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정말 농업, 축산 관련된 팜랜드가 세계의 모든 고급한 손님,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팜랜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안성 지역에서 훌륭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도 최선을 다해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 중환자용 구급차 발대식 및 시연회

일시 2010년 4월 12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중환자용 구급차는 총 32억, 한 대에 2억입니다. 아주 좋은 차입니다. 원격영상장비는 물론이고 승차감도 좋고, 승차 인원도 더 많고, 쾌적합니다. 정말 위기 시에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도비가 16억이고, 국비가 16억입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데 비해 국가가 소방에 소홀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찰은 100% 국가경찰로 모집합니다. 사실 지방경찰이 필요합니다. 소방은 100% 지방에서 합니다. 소방도 제가 볼 때 40%는 국가에서, 검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절히 분

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방이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찬밥 신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처우가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강력한 소방, 여러분들 근무하시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벽에 부딪혀, 더 쾌적한 조건 속에서 국가·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 법률, 제도 변경을 통해 국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 특강 다닐 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행정이 나가야 할 이상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 낮, 휴일, 명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부르시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놀라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119 체험을 해 봤지만, 휴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고색동 너머 그린벨트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가 아무 일 없다고 돌아오라고 해서 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자식도 그렇게 부르면 신경질 낼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부르시면 갔다가, 이제 괜찮다고 하면 돌아오시는 등 무한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평 없이, 내색 없이 언제라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는 등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5~10분 내에 태세를 갖추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모든 행정의 귀감입니다. 그렇게 바뀌

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도 365일 24시간 봉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잘하는 경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19를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은 하루 이틀,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 대원들이 많은 희생을 하셔서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도 천안함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평택 2함대 사령부에도 출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이 용맹스럽게 전쟁을 잘하고, 전투를 수행한다고 해도 재난 등에선 119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군과 협조는 하지만 군이 가지 못한 전문적이고, 잘 훈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행정, 정치인도 하지 못한 서비스를 여러분이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119의 명성은 여러분이 희생, 헌신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좋은 중환자용 구급차를 통해 더 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119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없어도, 친지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119만 부르면 언제라도 누구보다 더 가깝게 달려옵니다. 119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119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산업 특별금융협약

---

일시 2010년 4월 12일

국민은행이 경기도에 여러 신성장동력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해 주신다고 5,000억을 들고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보내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하이테크 벤처 첨단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은 고사하고, 정부로부터 대기업 신설·증설·입지 자체가 안 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신성장 녹색산업의 최하 3분의 1 내지는 40%, 바이오 부분은 3분의 2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집약산업 같은 경우 경기도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이 정말 5,000억이라는 거금을 기업을 위해 지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5,000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배의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간담을 해 보면 각 중소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자금입니다. 그다음이 인력, 판로, 기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에서 부딪힙니다. 은행으로 볼 때, 워낙 큰 국민은행이라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거금입니다.

또 녹색성장 산업, 신성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금융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전통산업도 많지만 결국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은행의 지원은 단순히 은행 차원에서, 금융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때, 다시 한 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하는 데 대해 국민은행의 지도부 여러분들이 탁월한 전략적 판단,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드립니다.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서 체결식

일시 2010년 4월 12일

감사드립니다.

만שי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합의를 보게 돼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고 기대가 큰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이 북경·동경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선진국으로 이끌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통일에서도 구심점으로 서울·경기·인천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는지, 누가 끌고 갈 것인지, 서울·인천·경기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각국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남북통일의 주체와 구심력이 돼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칸막이를 넘어서, 행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단순히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DMZ와 국경을 넘어서 국민이 옹비하고 선

진 통일국가로 가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확실한 결의로써 어떤 경우라도 스피디하게 실천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오세훈·안상수 시장님,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는 지역 간 칸막이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시장님들의 중요한 결단에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

## 경기도-세마텍 MOU

---

일시 2010년 4월 14일

세마텍과 나노소자특화웹센터, 경기도가 함께 화합물반도체소자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공동연구센터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수원시장님께서 앞으로 동참하실 계획입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그야말로 삼성이 시작했고, 지금 가장 잘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삼성 수원센터가 R&D센터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민간 하이테크 컨소시엄인 세마텍이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좋은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반도체기술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국제공동연구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의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식

일시 2010년 4월 16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과거 노동운동 함께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민관, 그리고 사회적기업 경영인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기업과 재벌 기업, 전경련 기업들과는 뭐가 다를까요. 규모가 작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기왕이면 행복하게 잘살고, 그뿐 아니라 일자리를 가져야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실천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노동은 괴롭거나 먹고사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일해야만 존엄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 힘들어 하거나, 힘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일할 수 있어도 힘든 일이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경기도에서도 현대자동차와 '이지무브'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로 체결했습니다.<sup>15)</sup>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게 바로 우리 대기업도 바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 장애를 입은 분들이 일하고 더 행복할 수 있게 한쪽은 일을 주고 한쪽은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어떤 비빔밥, 융합이 있습니다. 놀고먹고 돈만 버는 게 이상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가치와 따뜻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함께 녹아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사회적 책임감,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잘 어우러진 맛있는 비빔밥이 아닌가 합니다. 경기도 시군도 전부 도와야 합니다.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가 없는 모든 시군들은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시민적 합의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허원영 경인지방노동청장님도 오셨는데 노동부에서도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관과 민이 함께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만 아니라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아 지역적 인간 관계를 맺어 통합을 해나가야 합니다. 경영 쪽에 계시는 분들, 공공의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선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시군에서도 만들고 함

15) 2010년 3월 23일 경기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보조기구 생산 사회적기업인 (주)이지무브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 설립됨.

께 사회적기업 육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고매한 이상과 철학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인건비와 창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도와 드릴 것입니다.

많이 도와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여기 사회적기업 분들이 작게, 작게 하시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못하는 통합의 철학과 역량이 여러분께 분명히 있으시니, 크게 통합하고 비빔밥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물건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으로 같은 제품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에게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하면서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이상과 꿈,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해 보겠다는 포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이 자리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매우 고상하고 값지고 창대하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일시 2010년 4월 21일

오늘 우리 2010년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남아공, 러시아,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지내시는 8일이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서로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멀리서부터 오신 선수, 임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멀리 남아공에서도 오셨습니다. 임홍세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각국의 선수·지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견기업 지원 협약식

일시 2010년 4월 22일

협약 체결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경영대는 이미 복지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해 명성을 쌓고 계십니다. 명성과 실력을 통해 아주 빠르게 성장함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올라서면서 여러 제도적 어려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 제도 등 여러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가 교육 기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 기능까지 현장에서 잘 결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기업하기 좋도록 개선되고, 경제적 기반이 잘 개선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 독일 통일 20주년 특별전 공동개최 MOU

---

일시 2010년 4월 22일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은숙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분단된 지 65년이 됐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벌써 20년이 됐다는 것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금 천안함 때문에 온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절실하게 통일을 희망하는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처음 했을 때도, 우리는 DMZ가 지나가는 경기도에서 통일을 간절히 꿈꾸는 영화제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중에 특히 픽션보다 다큐멘터리 필름을 더 현실로 희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고, 지금 DMZ가 경기도를 가로질러 나누고, 이은숙 선생님이 작품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라기보다 현실입니다.

이번에 통독 20주년 특별전이 DMZ 다큐(영화제)와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독일의 2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조금 덜 아프게 하고, 훌륭히 통일의 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숙 선생님께서 베를린 장벽에서 했던 작품들을 DMZ 앞에서 많이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래 독일을 많이 좋아합니다. 독일의 베토벤도 좋아하고, 도시·숲·정원 등 모든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독일 광산으로 일하러 갔던 광부, 간호사들을 통해 독일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과학기술, 라인 강을 비롯한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예술·문화가 이번에 우리 경기도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 경기모바일 앱센터 MOU

일시 2010년 4월 22일

오늘 이석채 회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KT가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써 보니 정말 '올레 KT'입니다. 써 보니 올레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KT가 우리 생활 자체를 매우 크게 바꿉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 나가는 KT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경기모바일 앱센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이노베이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고, 이용하는 데 급급합니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따라잡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민간의 협력과 결합한 공직자들이 앞서 나가는 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로 천재적인 우리 젊은이들이 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혁신을 하는 데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경원대, 단국대 등에서 좋은 인력과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상상하기 힘든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KT,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 단국대가 힘을 합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놀라운 대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

## 55·63 새출발 프로젝트<sup>16)</sup> MOU

---

일시 2010년 4월 23일

저는 55~63(년생)에 끼지도 못하는 51(년생)인데, 저도 여러분께 잘 보이면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왕성한 저력을 갖고 있으면서 후배들을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좋은 장래를 모색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하게 맞춤형,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높은 경험과 경륜·비전을 새롭게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특별히 오늘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세히 들어 보니, 연세 많이 드신 분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 합니다.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함께 노력

---

16) 경기도가 2010년부터 추진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은퇴설계 지원 프로그램

하게 돼 기쁩니다.

또한 은퇴자협회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에, 도정의 좋은 파트너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리라 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한국노총도 해방 직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복지를 위시하는 깃발을 들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도정에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분야별로 기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친근한 대변자로서 새로운 벤처 기업, 모범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무엇 있겠나 싶습니다.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뜻을 세우고 사회적 봉사를 해 주심이 진심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덕적 책무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어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 주시리라 봅니다.

## 여주도자축제

일시 2010년 4월 24일

여주 도자기는 전국의 17%, 경기도의 35%를 생산합니다. 남이섬 사장님이신 강우현 사장님의 정성과 노력으로 (도자축제를) 이뤘습니다. 여주 신록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를 즐기면서 도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CJ의 최고급 골프장도 인기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시설을 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남이섬을 훌륭하게 성공시킨 강우현 사장님께 제가 맡아야 할 이사장직까지 다 드렸습니다.

도자기만 갖고 도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돈만 갖고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록사, 관광, 쇼핑, 교육 시설, 쌀국수, 떡, 농산품, 건강식품이 어우러진 멋진 여주로 만들어 주세요. 관광, 교육, 농업,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

## 이천도자축제

---

일시 2010년 4월 24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이섬 사장님이신 강우현 한국도자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강우현 이사장님을 초빙하면서, 도자재단 사장님은 물론 이사장 직위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뀌어 가고 있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도자 명인께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도자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저 대신 강우현 사장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발대식

일시 2010년 4월 26일

오늘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발대식을 갖게 돼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경기도 콜택시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택시보다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에서 GTX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버스 또한 서울부터 경기·인천까지 통합할인·할증이 이뤄졌습니다. 이젠 택시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GG콜은) 누가 타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청결하다는 생각을 심어 줄 것이라 봅니다. 모쪼록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택시기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GG콜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 콜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GG콜 파이팅!

##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일시 2010년 4월 27일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매우 기쁜 날을 맞았습니다.

경안천 인공습지는 광주의 명물이자 경기도 명물로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공사에 135억이 들어갔는데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내주신 국비가 무려 75%입니다.

정진섭 국회의원님은 105억 원을 더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성·확충에 힘써 주시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도비는 12억 원이 들어갔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공사와 조성을 맡아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가와 도가 함께 노력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광주시민 여러분이 농지를 내놔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에서도 애항심으로 이번 인공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많이 풀렸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남양주시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입니다.

묶어 놓지만 말고 (규제를) 잘 풀어 더욱 깨끗하고 더 활용도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시민들이 상수원 지역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조건 묶어만 놓지 않고, 수십 년간 수도권 식수를 만들기 위해 헌신·봉사한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데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 화성 기아차 공장 방문

일시 2010년 4월 28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계속 신차를 만들어 주시고, 세계적 명차로 발돋움하는 기아차에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산업이 기아차와 연결돼 있습니다. 최대 고용을 해 주시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세계적인 발전을 하는 데 감사드리고,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기아차 공장이 경기도에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홍보맨입니다. 공장장님 하실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 건강증진병원 선포식

일시 2010년 4월 29일

조준필 병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왜 건강 증진을 위해 선포식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이면 당연히 도민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독립병원 선포식을 왜 '문화의 전당'에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둘 다 무식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건강 증진을 위해 다짐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가 창피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100명 정도가 모일 만한 강당이 독립병원에 없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모두 필요한 것이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독립병원에 대해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해 왔습니다. 유리창 청소, 거미줄 (제거)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구석구석 뛰면서 의료 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전방 지역이나 낙후 섬을 찾아 다니시면서 도립병원 여러분들이 계속 뛰고 계십니다.

일반 민간이 가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봉사해야 합니다. 정말 돈을 따지지 않고, 공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도립병원이 지금까지보다 열배의 예산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정말 도립병원 때문에 감사하다는 도민들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평택 2함대에도 가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경기도도 365·24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찾아가서 봉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도민들, 혜택 못 받는 시민들을 끝까지 찾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

민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함, 뜨거움, 겸손함, 전문성을 갖고 인술을 베풀고 발전해 나가는 도립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우리 의료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아프고 소외받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함께 뛰시다.

뜨거운 사랑, 진정한 희생, 봉사를 도민이 느끼실 때까지 합시다. 휴일 모두 문 닫고 쉬는 병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아프신 분들이 도움받는 도립병원이 됩시다.

##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막식

일시 2010년 4월 30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기국제항공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43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배의 부품으로 이뤄집니다. 성장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비행기 관련 부분에서 경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에어쇼가 없었지만, 작년에 이곳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3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올해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이제 슬픔을 딛고 대한민국을 더 큰,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꿈을 가지고, 힘쓰지 않고선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통일도

안 됩니다. 선진 일류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모험과 도전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이나,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세계 역사상 (드물게) 후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해서 세계 6대 자동차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항공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10년 내로 7대 항공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밑의 전곡항에서, 안산 탄도항에서 보트쇼, 요트대회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로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최대 보트, 요트쇼가 됐습니다.

항공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위대한 기적을 대한민국이 만들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세계로, 바다로, 하늘로, 미래로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식

일시 2010년 5월 2일

제3경인고속화도로<sup>17)</sup>가 훌륭하게 개통된 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애써 주신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식회사 사장님, 건설을 위해 공사에 애써 주신 한화건설 사장님과 건설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 회사들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건설 회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토목 건설 부분에서 세계적 명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자 고속화도로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함. 2006년 11월에 착공해 2010년 5월 3일 개통함.

특별히 공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서 원 설계보다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주신 건설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도로는 도비가 3,000억, 민자가 4,400억 등 총 7,400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道도 재정이 어렵지만 이 도로가 매우 필요하다고 봐서 3,000억의 거금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 공사를 시작해서 임기 내에 이렇게 훌륭한 도로를 완성한 것에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도로 공사,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도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백원우 국회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뚫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시흥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개통되면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도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직 산고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까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없다면, 그냥 자연 등만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를 뚫는 동안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민 여러분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는 민원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도로 연장)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많이 하면 수익이 나지 않고,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많은 미진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시흥시민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나가느냐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등 통행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단축했고, 그 3개월 동안은 통행료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민자 투자 회사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알리는 홍보 기간으로 생각해서 3개월 무료 개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도로를 놓고 돈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를 들여오고, 수익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송도, 인천공항 등을 가는 주변의 모든 고속도로, 영동, 서해안,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과 연결됩니다. 당연히 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다른 도로는) 연결 안 되는 곳 많습니다. 도에서 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면 연결 안 됩니다.

도민, 시민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더 편리하고 더 주민 친화적인, 환경 친화 이상으로 주민 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아름답고, 빠르고, 안전하고, 주민들 사랑을 받는 도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큰 박수 한 번 보내 드립니다.

## 농생명기업 발전 업무협약식

일시 2010년 5월 3일

농생명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이 협약을 하고, 좋은 간담과 여러 가지 주제를 발표하는 좋은 자리를 가지게 돼 기쁩니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농업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융합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생명 관련 기업을 하시는, 진수성 경기도농생명기업인 회장님과 600여 기업인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은 이미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농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이신 것입니다.

우리 TV, 핸드폰, 가전제품, 삼성·LG 제품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한 지 50년도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산업입니다. 그러나 1등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한 지 20년이 안 됐지만 세계 1등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조선, 철강 등의 부분에서 50년 내에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5천 년을 넘어 5만 년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 농업이 부국의 길이라고 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 하던 부분을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농업이 나가야 할 길, 또 대한민국 국가가 나가야 할 길을 잘 말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생명기업을 위해 1,000억의 특별협약자금을 지원해서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중소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생명기업도 하자고 해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업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이 돼야 합니다. 과학, 첨단 영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화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유능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 획기적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의미가 깊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농생명기업인들을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자금 지원, 금리 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도 돕겠습니다. 경기도는 해외에 많은 판로가 있습니다. 상해에도 경기도비즈니스센

터를 개소했고, LA에도 개설했습니다.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멘토를 가지고 농산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좋은 시장입니다. 일본은 물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학교 급식에 바로 우리 좋은 G마크, 도지사 인증 마크를 획득한 농축산품을 매우 고가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품은 없어서 납품을 못할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판로에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만이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군부대, 회사 급식 등 모든 소비체에 적극적으로 경기도 자체가 농림진흥재단을 통해, 또는 도지사가 직접 부탁을 해서 판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판매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부분에서도,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경기도청 의정부 청사 안에 선인장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은 경기도가 세계 선인장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양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막이 한 평도 없지만 선인장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인삼 등 다른 여러 종목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막이 없다고 해서 선인장 수출 못할 것 없습니다. 땅이 좁다 하는데 아닙니다. 넓고 좋습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과학 영농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힘을 합쳐 하고 있는 농생명기업의 기를 살리고 힘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이루고 풍성한 수확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경기도 각 기관에서도 다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농업인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오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많은 단체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내용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발표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공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200년 이상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농업진흥청, 대학, 특수작물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지방으로 옮기자고 해서 국책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데,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에 농업연구기관 등을 만들면 됩니다. 200년 동안 축적된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뿌리를 뽑아서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농업은 팽개쳐도 됩니까. 이런 점에서 농업기업인 여러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 연구기관은 정조 때부터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양, 기후 등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 털어서 아

파트를 짓자고 합니다.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과학화하고, 좋은 인재 육성을 위해 우대 정책을 해야 합니다. 궤변을 통해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그만 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농업을 과학화하고, 전통 재래농업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 가는 새로운 新성장동력으로 키워 내는 데 이 자리의 많은 분들이 결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농생명기업 여러분 파이팅!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

일시 2010년 5월 6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계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정말 기대가 큼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 과학기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는 청소년이 80%입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갖추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한 연구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이야말로 미래 우리나라를 빛낼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 외에는 과학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진흥원을) 만들어 보고, 공무원 들만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흥재단을 만들었는데,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이 17배 크고 인구가 100만 명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중앙에서 전부 통제합니다. 여러 가지 통합 작업, 진통을 거쳐 오늘 출범하게 됐습

니다.

제가 매우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전문성을 밖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야 합니다. 훌륭한 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 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흥원은 훌륭한 분들을 모이기 위한 그릇입니다.

또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초적인 것을 하시고, 우리는 이 지역의 기업과 잘 연결해 기업이 필요한 것을 돕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성을 중시하고 기업이 가려워하는 곳을 확실하게 찾아서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대학이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약한 부분입니다. 많은 산업, 인력에 비해 대학 신·증설을 못해서 (도내 대학은) 캠퍼스 형식으로 돼 있지만 약합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여러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늘 난관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다른 지방과 중복되거나 경합돼 많은 제재를 받아서, 올라가다 꺼져 버립니다.

우리 도는 광고의 경우에도 보면 삼성전자 연구원만 35,000여 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

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울에 살고 (수원으로) 출퇴근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광고신도시 한복판인데, 이 전체를 연구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집을 몇 채 지어야 하는 등 통제를 합니다. 이 주위에 과학기술 연구 중심의 연구도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입주자들도 과학기술 연구원들을 우선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입주자도 국토부에서 다 통제합니다. 이 주변 전체가 40%가 넘는 녹지를 가진 도시입니다. 연구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살며 연구에 적합한 신도시로 이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약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기본 뜻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데 집을 양적으로 많이 짓는 것보다 정말 특색 있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들이 전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학교 부분도 조금 더 연구원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연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도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과학기술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 경기도-독일 싸토리우스 스테뎀 바이오텍 MOU

---

일시 2010년 5월 6일

이렇게 멀리 새벽 일찍 도착하셔서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멀리 와 주신 데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싸토리우스사에서 경기도에 그동안 연구소를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좋은 투자를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사업, 연구를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바이오 부분에서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싸토리우스사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훌륭한 조건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대합니다.

광교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신도시 중에는 (광교신도가) 녹지가 41%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연구에 적합한 쾌적한 연구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싸토리우스 사가 경기도에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노력하겠습니다.

---

## 2010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막식

---

일시 2010년 6월 9일

대회를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영국요트협회의 팀 코벤트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회가 있기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각국 대사님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시장, 군수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님과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지역 출신의 김성희, 이화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는 지난 2년 동안 58만 명이라는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주목받는 보트쇼와 요트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회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가하셨고, 상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쇼에서도 가장 좋은 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트 산업전과 요트경기대회를 겸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회가 바로 이곳, 경기보트쇼와 요트대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대회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산업, 배 만드는 데에선 세계 1등이기 때문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골프는 박세리, 역도는 장미란 선수 등이 세계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요트는 아직 불모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요트도 세계 최정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배 만드는 산업과 스포츠로서의 요트, 이 두 부분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기도가 작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 세계에서 전곡향과 탄도향을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시원함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이 기상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 찾아보기

주제	행사	쪽수
경기고등법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449
	법률서비스 MOU 체결식	465
경기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	경기도청소녀수련원 예절관 개관식	102
	서동탄역 개통식	521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막식	661
	2010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막식	677
경기국제항공전	항공우주산업 발전 MOU	573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막식	661
경기북부 균형발전	광암~마산 간 도로 기공식	34
	북부기우회 8월중 월례회	86
	한나라당 지역경제 살리기	90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174
	LG 파주 첨단소재단지 기공식	178
	북부기우회 (2009년 10월 9일)	209
	건국대 유치 협약식	264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과학·기술	U-경기포럼 창립 기념식	44
	제1회 광교테크노밸리 열린마당	172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536
	경기도-세마텍 MOU	641
	경기모바일 앱센터 MOU	649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	672
관광	여주 특1급 호텔 건립 MOU	67
	철도관광활성화 MOU	130
	에버랜드 관광단지조성 협약식	350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협약선포식	442
	경기 도성문화 재발견과 산업화 토론회	485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교육과 인재 양성	NH팜랜드 조성공사 기공식	631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150

주제	행사	쪽수
	가톨릭대 인터내셔널허브 개관식	168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174
	기능경기대회 경기도선수단 해단식	201
	기능성 게임 G러닝 시범학교 참관	228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개소식	235
	한국HRD 연합학술대회	246
	건국대 유치 협약식	264
	웅진어린이마을 착공식	303
	경기도-서강대 GERB 캠퍼스 양해각서 체결식	487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536
	고양국제고등학교 기공식	592
교통·도로·철도	남양주 택시체험	31
	광암~마산 간 도로 기공식	34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식	663
국가 비전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452
	기우회 (2010년 2월 26일)	512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국방·안보	을지연습 상황회의	123
	2009 화랑훈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218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0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413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611
	향토예비군의 날	618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규제	철도관광활성화 MOU	130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273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284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8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양주 홍죽 산업단지 기공식	595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597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611
	동두천 일자리센터 확장이전 개소식	624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656
규제 개혁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47
	경기도 제약기업 상생협력 포럼	69
	기우회 (2009년 7월 24일)	78
	한나라당 지역경제 살리기	90
	이화원 준공식	99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8
	기우회 (2009년 9월 25일)	181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284

주제	행사	쪽수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05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0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413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7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0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식'	458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480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양주 홍죽 산업단지 기공식	595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656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기우회 (2009년 7월 24일)	78
	삼천리자전거 공장기공식	84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139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7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0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양주 홍죽 산업단지 기공식	595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656
기업지원	기우회 (2009년 7월 24일)	78
	LG 파주 첨단소재단지 기공식	178
	한국전자산업대전	222
	20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232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273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7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식'	45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462
	경기도-삼성전자 제3연구소건립 양해각서	497
	디지털케이블쇼 및 시네폴리스 입주협약식	53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541
	서울우유 종합유가공공장 증설 MOU	581
	중견기업 지원 협약식	646
	화성 기아차 공장 방문	658
	농생명기업 발전 업무협약식	667
	경기도-독일 싸토리우스 스테덤 바이오텍 MOU	675
기업SOS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273
꿈나무 안심학교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41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2010년 신년사	399
	꿈나무 안심학교 입학식	558

주제	행사	쪽수
나눔과 봉사	경기도-한국외국어대학교 자원봉사 상호협약	58
	저소득층 아동 소액보험 지원사업 협약식	147
	대한적십자사 창립 104주년 기념 연차대회	279
	경기도지사와 행정인턴 간담회	39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G-20 성공개최 다짐대회	435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490
	경기도의료원 건강증진병원 선포식	659
남북협력·북한인도적지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3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회	320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05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413
	식목 행사	621
	경기도의료원 경영혁신 노사간담회	94
노사 상생	쌍용차 평가포럼	117
	한나라당 쌍용차 방문	143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165
	경기도 쌍용차도우미 발대식	215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경기도 투자설명회	339
	기우회 (2009년 12월 24일)	381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05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152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 경기노인큰잔치	203
경기농협 원로청년회 게이트볼 대회	259	
노인자살예방 '경기도-시민단체 협약식'	329	
55·63 새출발 프로젝트 MOU	651	
녹색성장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51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	60
	삼천리자전거 공장기공식	84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139
	2009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157
	녹색성장 펀드 협약식	194
	G코리아 대회	308
	누에섬 풍력발전소 개소식	388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482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산업 특별금융협약	637
	농업·축산업·수산업	농업회관 현판식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식	125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십함양 연찬교육	134	
경기도 수출농업 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239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256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	283	
G푸드쇼 2009 개막식	292	
경기고려인삼 공동브랜드 선포식	306	

주제	행사	쪽수
	양주-동두천 환경개선 협약식	353
	축산물 안전성 향상 국제심포지엄	359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 협약식	366
	경기농업 CEO 전진대회	384
	북부기우회 (2010년 2월 25일)	508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597
	NH팜랜드 조성공사 기공식	631
	농생명기업 발전 업무협약식	667
다문화·외국인	이민정책연구원 개원식	364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564
대한민국 역사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신년인사회	447
	기우회 (2010년 2월 26일)	512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경기도 민원모니터 위촉 및 교육	567
도시계획·주택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139
	수원천복원사업 기공식	170
	제1회 광교테크노밸리 열린마당	172
	경기뉴타운 업그레이드 전략발표 세미나	176
	친환경주택 그린투모로우 개관식	268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찾아가는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개강	492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2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	672
리더십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188
무한돌봄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 경기노인큰잔치	203
	경기도 자활공동체 경영자대회 축하	248
	무한돌봄 민간참여 협약식	253
	대한적십자사 창립 104주년 기념 연차대회	279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무한돌봄경기 우리도 함께	369
	기우회 (2009년 12월 24일)	381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05
	남양주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 개소식	432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440
	경기도 행복키움통장 공동지원협약	455
	고양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468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연찬회	472
	희망리본 프로젝트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대회'	505
	북부기우회 (2010년 2월 25일)	508
	성남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45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60
	경기도 민원모니터 위촉 및 교육	567

주제	행사	쪽수	
	경기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협약선포식	575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84	
	무한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협약식	590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00	
	광명시 무한돌봄 해피센터 개소식	602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14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27	
	문화·예술	고지도 국제학술대회	145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	155	
	경기창작센터 개관식	244	
	경기도미술관 어린이벽화 1주년 기념 리뉴얼 개막식	351	
	도자테마파크 '세라믹유토피아' 출범식	377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0	
	경기 도성문화 재발견과 산업화 토론회	485	
	노작 홍사용 문학관 개관식	579	
	봉녕사 시민문화공원 조성협력 MOU	588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여주도자축제	653	
	이천도자축제	654	
	문화산업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조직위 출범식	127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식	159
한국만화영상원 개원식		179	
2009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개막식		186	
드라마 '로드넘버원' 제작지원 MOU		501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502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협약식		548	
민관 거버넌스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식	642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	672	
	보건·의료·생명공학	의료기기 IICC 창립총회	64
	경기도 제약기업 상생협력 포럼	69	
	경기도의료원 경영혁신 노사간담회	94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착공식	120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128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27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 개소식	281	
	경기도-가톨릭대 GRRC 생체의약선도분자연구센터 개소식	318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연찬회	472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490	
	경기도의료원 건강증진병원 선포식	659	
	복지	경기도 자활공동체 경영자대회 축사	248
		무한돌봄 민간참여 협약식	25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 개소식	281
		무한돌봄경기 우리도 함께	369
		2010년 신년사	399
남양주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 개소식		432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440	

주제	행사	쪽수
	경기도 행복키움통장 공동지원협약	455
	'IT 희망나눔 PC돌봄이 사업' 추진 협약 체결	460
	고양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468
	희망리본 프로젝트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대회'	505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532
	성남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45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60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584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00
	광명시 무한돌봄 해피센터 개소식	602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14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27
북한인권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315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3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회	320
	식목 행사	621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193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식	642
상수원보호구역·상수도규제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7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0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서해안 발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477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섬유·염색산업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준공식	437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597
소방	중환자용 구급차 발대식 및 시연회	634
소상공인·전통시장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협약식	107
	안양시 재래시장 보증지원 협약식	109
	사기막골도자기시장-단국대 자매결연	162
	양평시장-협성대학 자매결연협약식	191
	소상공인 창업세미나	270
	전통시장 상품권통합업무 협약식	341
	삼성 미소금융 1호식 개점식	356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식'	458
	1시장-1대학 '민들레 쉼터' 창업개소식	475
	경기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협약선포식	575
수도권 광역발전	경기도-인천, 인천도시축전 협약식	36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195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 국가경쟁력' 세미나	336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480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서 체결식	639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47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284
	2010년 신년사	399

주제	행사	쪽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어린이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발대식	655	
	웅진어린이마을 착공식	303	
	경기도미술관 어린이벽화 1주년 기념 리뉴얼 개막식	351	
여성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532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41	
유니버설스튜디오	G코리아 대회	308	
	서동탄역 개통식	521	
일자리	경기 서해안권 비전 전략회의	608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152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개소식	235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 협약식	273	
	2010년 신년사	399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0	
	하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17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협약'	458	
	경기일자리센터 개소식	466	
	용인일자리센터 개소식	494	
	희망리본 프로젝트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대회'	505	
	제2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518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53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541	
	동두천 일자리센터 확장이전 개소식	624	
	자유 민주주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합동영결식	92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기우회 (2010년 2월 26일)		512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안성 3·1절 기념식		529	
향토예비군의 날		618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지방자치·지방분권	농업회관 현판식	27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 세미나	47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174	
	기우회 (2009년 9월 25일)	181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51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288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413	

주제	행사	쪽수
창업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8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경기도 민원모니터 위촉 및 교육	567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개소식	235
	G-창업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회	266
	소상공인 창업세미나	270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확장 개소식	362
	1시장-1대학 '민들레 쉼터' 창업개소식	475
	전국창업경진대회	550
	1시장-1대학 '민들레 쉼터' 창업개소식	475
청년	전국창업경진대회	550
	기우회 (2009년 11월 27일)	323
청소년	2010년 신년사	399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예절관 개관식	102
체육	청소년 대토론회	372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532
	꿈나무 축구대회 선수단 해단식 격려사	148
	박지성 축구센터 기공식	199
	전국체전 8연패 환영식	237
	경기도 체육상	379
	경기도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499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645
출산·육아장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출범식	74
	치안·안전	광역특별 사법경찰 발대식
택시체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104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165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564
	자녀 안심귀가서비스 협약식	606
	남양주 택시체험	31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학술회의	284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개소식	564
통일	광명시 무한돌봄 해피센터 개소식	602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611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27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413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452
	드라마 '로드넘버원' 제작지원 MOU	501
	기우회 (2010년 2월 26일)	512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611
	식목 행사	621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서 체결식	639
	독일 통일 20주년 특별전 공동개최 MOU	647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막식	661	
투자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경기도 투자설명회	339

주제	행사	쪽수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기공식	536
	경기도-독일 예넵텍사 투자협약 체결식	539
	독일 린데사 MOU	607
한미 관계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식	261
	강석희 美 어바인 시장 명예 경기도민 수여식	301
	국내 주요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	332
한센인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준공식	437
	오산천 수질개선대책 협약식	553
한일 관계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288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한중 관계	한·중 해저터널 국제세미나	206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식	261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	288
	국내 주요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	332
	경기도-산동성 자매결연 체결식	343
	소수력개발 업무제약 협약식	374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477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502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23
현장 행정	20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232
	무한돌봄경기 우리도 함께	369
환경	우이령 생태탐방로개방 기념식	53
	친환경주택 그린투모로우 개관식	268
	한강살리기 희망선포식	327
	양주-동두천 환경개선 협약식	353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준공식	437
	오산천 수질개선대책 협약식	553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개소식	597
	경안천 인공습지 준공식	656
365·24 언제나민원실	365·24 언제나민원실 개소식	587
	중환자용 구급차 발대식 및 시연회	634
DMZ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38
	제1회 DMZ 다큐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197
	2009 화랑훈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218
	2009 DMZ DOCS 평화장정 발대식	230
	DMZ미래연합 창립총회	3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회	320
	북부기우회 (2009년 12월 11일)	345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23
	북부기우회 (2010년 2월 25일)	508
	향토예비군의 날	618
	독일 통일 20주년 특별전 공동개최 MOU	647
GTX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51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	60

주제	행사	쪽수
	대심도 광역급행철도건설 정책토론회	76
	기우회 (2009년 7월 24일)	78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111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139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174
	경기뉴타운 기공식	224
	한국HRD 연합학술대회	246
	매니페스토 및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84
	시장 군수 정책회의	390
	2009년 송년사	395
	2010년 신년사	399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405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482
	서동탄역 개통식	521
	노작 홍사용 문학관 개관식	579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627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발대식	655
G마크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식	125
	경기도 수출농업 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239
	축산물 안전성 향상 국제심포지엄	359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 협약식	366
	NH팜랜드 조성공사 기공식	631
	농생명기업 발전 업무협약식	667
G푸드쇼	G푸드쇼 2009 개막식	292

---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

제 4 권

2009. 7. 1 ~ 2010. 6. 30

---

발행처 | 경기도청 대변인실

---

발행일 | 2014년 7월

---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 비 매 품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